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I 데이터 분석 세미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와 변화양상

일시 _ 2015년 7월 2일(목) 12:30 ~ 18:00

장소 _ 엘 타워 엘하우스 홀(8층)

주최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본 세미나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Ⅲ’
(연구책임자: 윤철경)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무단전재 및 복제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말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학업중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학교 교육현장을 떠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90% 이상의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상황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존재하는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자 2013년도부터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는 간간이 이루어졌지만 조사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워 소규모 면접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학업중단청소년 관련연구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연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해 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준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하여 대상학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상담복지센터, 검정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보호관찰소 등 여러 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사대상이 1차년도 996명, 2차년도 809명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80% 수준의 표본 유지율을 유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한국리서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학업중단 후 경로를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경로에 따라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학업중단 후에 청소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살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 수고해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청, 보호관찰소, 상담복지센터, Wee 센터 등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일하는 현장 전문가와 학계 연구자 등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노혁

세 부 일 정

시 간	진 행 내 용
12:30~10:00	등 록
13:00~13:10	사회: 최인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개회사 노 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13:10~13:50	▣ 기조발표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유형 분석과 유형별 분포 김강호(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4:00~15:20	좌장: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1. 학업형 청소년의 학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김성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발표2.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직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김강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 토론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실장)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정책·평가센터장)
15:20~15:40	휴 식
15:40~17:40	발표3.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생활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발표4.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 경험,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 황지원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발표5.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험 경로의 차이: 일반 학업중단 패널과 보호관찰 패널의 비교 박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및 참관 정제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이창한 (동국대학교 교수)
17:40~18:00	종합토론

목 차

기 조 발 표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유형분석과 유형별 분포 1
김 강 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세션 1

- 발표 1. 학업형 청소년의 학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23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발표 2.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직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59
김 강 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 토론 1. 류 방 란(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실장) 83
- 토론 2. 이 상 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정책·평가센터장) 91

세션 2

- 발표 3.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생활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95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 발표 4.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 경험,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 137
황 지 원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 발표 5.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험 경로의 차이: 일반 학업중단 패널과 보호관찰 패널의 비교	179
박 성 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 3. 정 제 영(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99
■ 토론 4. 조 아 미(명지대학교 교수)	205
■ 토론 5. 이 창 한(동국대학교 교수)	211

기조발표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와 경로별 분포

김 강 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와 경로별 분포

I. 서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삶의 경로 변화와 관련 변인들의 탐색을 위해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는 중·고등학생 600명과 보호관찰 청소년 200명에 대한 패널을 구축하여 2013년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3차년의 조사를 실시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할 예정이다. 1차 조사 시, 당초 계획된 패널(800명)에 대한 표본 수정을 거쳐 총 99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일반청소년은 776명, 보호관찰 청소년은 220명이 최종 조사되었다. 2차년도 조사의 경우에는 일반청소년 599명, 보호관찰 청소년 210명이 조사되어, 패널유지율은 일반청소년 77.2%, 보호관찰 청소년 95.5%였다.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I’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를 학업중단 시점 이후 경로조사기간 전체의 50% 이상(월 기준)이 발견되는 사건을 토대로 유형화하였다. 경로조사는 1차년도 및 2차년도 모두 1년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1차년도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학업중단 시점이 조사기간 이전일 경우에는 경로조사 기간에 맞추고, 경로조사 시점 이후일 경우에는 조사시점과 학업중단 시점을 일치시켜 관측기간을 분석한 것이다. 따라서 특정 달에서 학업을 하고, 바로 다음 달에는 니트 상태에 있더라도 전체 관측 가능한 경로조사 기간에 따라 그 비중을 고려하여 유형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유형 분류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로조사 기간에서 특정 경험상태의 유지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학업과 니트 상태가 월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총 12개월 동안에 6개월의 경험상태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학업과 무업 유형으로 동시에 분류되게 된다.

둘째, 총 경험조사기간 대비 50% 이상의 경험 상태에 따른 유형분류의 타당성에 대한 제한점을

지닌다. 이는 기준이 되는 비율 설정의 문제도 있겠으나, 학업중단 시점과 경로조사기간의 차이에 따른 유형분류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1차년도 조사의 1차 조사대상은 학업중단 후 경로조사기간이 '12년 7월부터 '13년 7월까지임. 따라서 만약 학업중단 시점이 '13년 6월 혹은 7월인 경우에는 총 관측기간이 1 또는 2개월이다. 이 경우 네 개의 유형 중 최소 한달 간의 경험이 조사되었더라도 해당 패널은 특정 유형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만약 '12년 7월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의 경험을 가질 경우를 기준으로 유형분류가 된다. 결국 이 두 가지 사례가 동일한 유형의 청소년을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위의 유형분류 방식의 제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3차년도까지 최종 조사된 패널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분류하는 분석방법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만, 본고에서 제시한 방법은 유형분류의 한 가지 방식을 제안한 것이며, 이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추적과 경로유형별 특징을 탐색하는데 제한점을 가질 수 있음을 밝힌다.

II. 분석자료와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의 1, 2차년도 조사 자료이다. 2차 조사에서의 패널 이탈율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22.8%였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4.5%로 비교적 안정된 패널이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 집단, 보호관찰소를 통해 수집된 패널은 제외하고 일반 학업중단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는 학업 중단 후 가급적 장기간동안의 경로상태에 대한 유형분류를 시도하고자, 1, 2차 패널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따라서 총 599명의 청소년 패널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1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 1·2차 조사 참여 패널현황**

자료수집방법		참여 차수		전체
		1·2차 참여	2차 미참여	
일반	개인	449(81.3)	103(18.7)	552(100.0)
	기관	150(67.0)	74(33.0)	224(100.0)
	계	599(77.2)	177(22.8)	776(100.0)
보호관찰		210(95.5)	10(4.5)	220(100.0)

출처: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p. 65.

학업중단 후 경험들은 윤철경 외(2013)가 정한 분류방식을 취했다. 다만 윤철경 외(2013)의 연구에서는 조사기간 동안 한 개인이 학업중단 후 경험한 일련의 경험사건에 대해 그 비중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개월 단위의 경험사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용어의 표현상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등의 분류된 유형의 이름보다는 학업, 직업, 무업, 비행 등 경험사건으로 사용하였다.

패널조사에서의 학업중단 후 경험사건은 ①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② 대안학교에 다님, ③ 검정고시 공부를 함(학원 등), ④ 직업기술을 배움, 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을 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⑥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⑦ 취미나 동아리활동 등에 참여함, ⑧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음, ⑨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함, ⑩ 대학입시 공부를 함, ⑪ 대학에 다님, ⑫ 가출하여 친구 집이나 PC방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팸과 함께 생활함, ⑬ 보호시설에서 지냄, ⑭ 보호관찰을 받음, ⑮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⑯ 소년원 학교에서 생활함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들 경험사건 항목 중 ⑩, ⑪, ⑯은 1차년도 조사에서는 없었지만, 2차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①, ②, ③, ⑩, ⑪은 학업 경험 사건을 나타내며, ④와 ⑤는 직업경험 사건을, ⑥은 무업 경험사건을, ⑫부터 ⑮는 비행경험 상태를 나타냄. 이러한 분류방식은 기존 패널조사의 청소년 유형분류의 기준을 차용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험들은 한 개인이 같은 시점(월)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윤철경 외(2013)의 경로유형 분류 방식에 따라 5개 유형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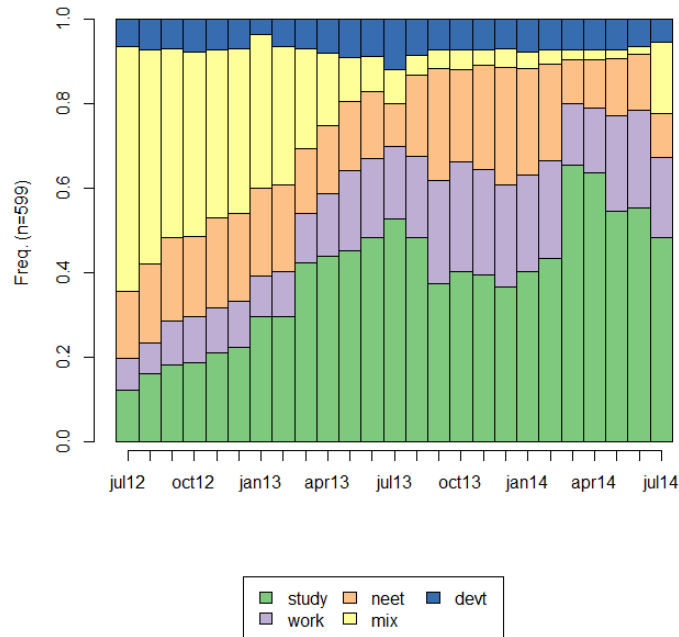
표 2 **학업중단 후 경험사건의 분류(월 기준)**

경험사건	해당경험
① 학업	학업 학업+직업 학업+니트
② 직업	직업 직업+니트
③ 무업	니트
④ 비행	비행 비행+다른 한 개 유형 비행+다른 두 개 유형 비행+다른 세 개 유형
⑤ 부정형(혼합)	4개 유형 모두 해당 없음 학업+직업+니트

또 하나 자료의 특성 중 하나는 1차년도 조사 시 두 개의 패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의 확보를 위해 추가 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이때의 경험사건 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이다. 다만,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두 유형의 패널 모두 2013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경험사건을 묻고 있다. 따라서 1차년도 조사에서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경험사건에 응답한 2차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2차 조사에서는 4개월(2013년 7월~10월)의 경험사건이 중복되게 된다. 이 경우에는 2차 조사에서 응답한 값을 활용하게 된다(윤철경 외, 2014). 따라서 분석에 사용된 경험사건의 총 기간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기간이며, 다만 학업중단 시기가 2012년 7월 이후, 조사시점(2013년 7월)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의 경험사건은 결측값으로 처리되며, 만약 2012년 7월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2012년 6월까지의 경험사건은 관측이 가능하지 않다.

[그림 1]은 분석대상이 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중 1,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를 나타낸다.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혼재형(mix) 경험사건의 분포가 시간이 흐르면서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학업형(study) 경험사건은 증가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 직업지향형(work) 경험사건 역시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하다 일정한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행형(devt) 경험사건은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전체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정비율이 이러한 패턴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시계열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분포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은 시퀀스 분석(sequences analysis) 방법이다. 시퀀스 분석방법은 시계열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경험들의 배열에 대한 (비)유사성((dis)similarities)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즉, 각 사례의 경험사건 배열을 쌍으로 비교하거나 기준이 되는 사건배열에 대한 유사성을 계량적 수치(거리값)로 산출하며, 이를 토해 산출된 거리값을 바탕으로 경험사건의 배열에 대한 군집화가 가능하다.

군집분석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계층적 분석방법과 비계층적 분석방법으로 분류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비계층적 분석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계층적 분석방법은 사전에 적정 군집수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지만, 비계층적 분석방법 중 하나인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즘은 계층적 분석방법에 비해 국부적 척도(local criterion)뿐만 아니라 전역적 척도(global criterion) 모두를 극대화하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PAM 알고리즘은 k-medoids 알고리즘으로 불리며 k-means방법과 유사하다. 다만, k-means 기법¹⁾은 극도로 큰 값(혹은 작은 값)이 자료의 분포를 사실상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치에 민감하다. 이를 위해 군집에서 객체들의 평균값을 취하는 대신에 군집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한 객체인 medoid를 사용할 수 있다. k-medoids 군집화 알고리즘의 기초적인 방법은 각 군집에서 대표 객체(medoids)를 임의로 찾음으로써 n개의 객체 중에서 k개의 군집을 찾는 것이다. 남은 각각의 객체는 가장 비슷한 medoids에 군집된다. 이러한 산정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tep 1. n개의 객체 중 대표 객체(medoids)를 k개 지정한다. ($n > k$)

Step 2. k개의 medoids를 지정 후, 나머지 객체를 유사성이 가장 높은 medoid에 배속한다.

여기서 유사성은 거리측도를 활용한다.

Step 3. medoid가 아닌 다른 객체를 임의로 지정한다.

Step 4. 본래의 medoid와 임의의 medoid간의 총 거리측도 합을 계산한다.

Step 5. 만약 총 거리측도 합이 음수인 경우, 임의의 medoid를 기존의 medoid와 교체한다.

Step 6. 변화가 없을 때까지 Step2~Step5를 반복한다.

III.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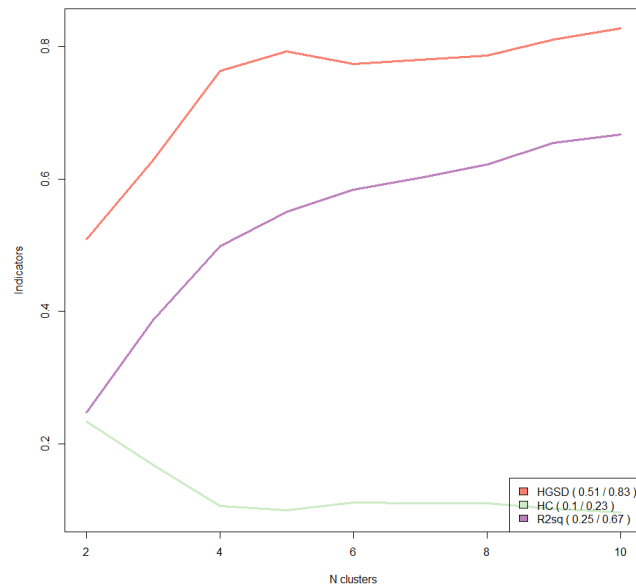
1. 군집수의 결정

적정 군집수의 결정은 PAM 알고리즘을 통해 산출된 지표값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에 제시된 3개의 지표값은 다음과 같다. HGSD(Hubert's Somers' D)는 -1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최댓값을 가지는 군집수가 적정군집수가 된다. HC(Hubert's C)는 0부터 1까지의

1) k-means 군집은 가장 가까운 평균을 가진 군집에 속해 있는 각각의 관측치안에 n개의 관측치들을 k개의 군집으로 분할하려는 목적을 가진 군집분석 방법이다. 이러한 k-means 알고리즘(McQueen, 1967)은 주어진 자료에 안에서 군집을 확인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각각의 관측치들이 d차원의 실제 벡터인 관측치들($x_1, x_2, \dots, x_n$)이 주어졌을 경우, k-means 군집은 n개의 관측치들을 k개의 집합($S_1, S_2, \dots, S_k$)으로 분할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군집간 제곱합을 식 (1)과 같이 최소화하여야 한다.

범위를 가지며, 최솟값이 적정 군집수가 된다. 마지막으로 R^2_{seq} (Pseudo R^2) 역시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나, 최댓값이 적정 군집수가 된다.

적정 군집수 판단에 필요한 군집수의 범위를 2부터 10까지 지정한 후 위의 3가지 지표값을 산출한 결과 적정 군집수로 5개로 판단하였다. 3가지 지표 모두 군집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표값이 좋아지는 공통된 특징을 나타냈으나, 군집수 5개 이상에서는 그 변화가 크게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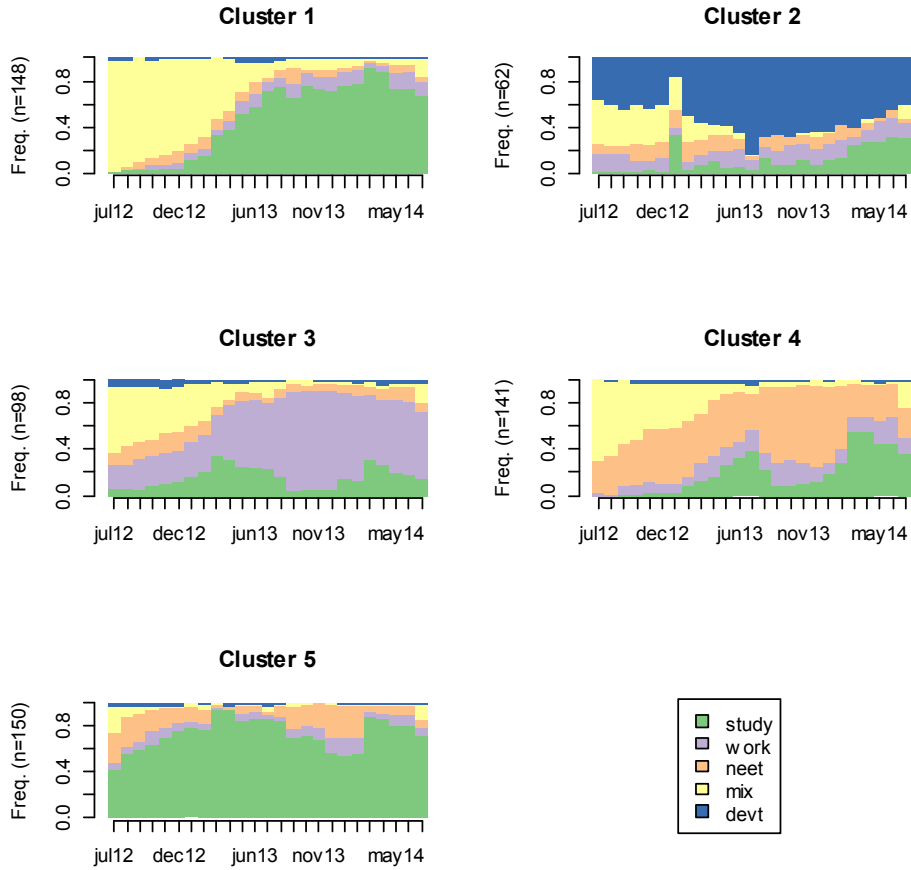


[그림 2] 군집수에 따른 주요 지표값의 변화

2. 군집별 분포와 사건배열

5개 군집의 시계열에 따른 경험사건 분포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Cluster 1의 경우 초기에는 혼재형의 경험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업형 경험사건의 비중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례들이다. Cluster 2의 경우에는 비행형 경험사건이 시간경과에 따라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Cluster 3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직업지향형 경험사건이 크게 증가한 사례들이다. Cluster 4는 대체로 무업형 경험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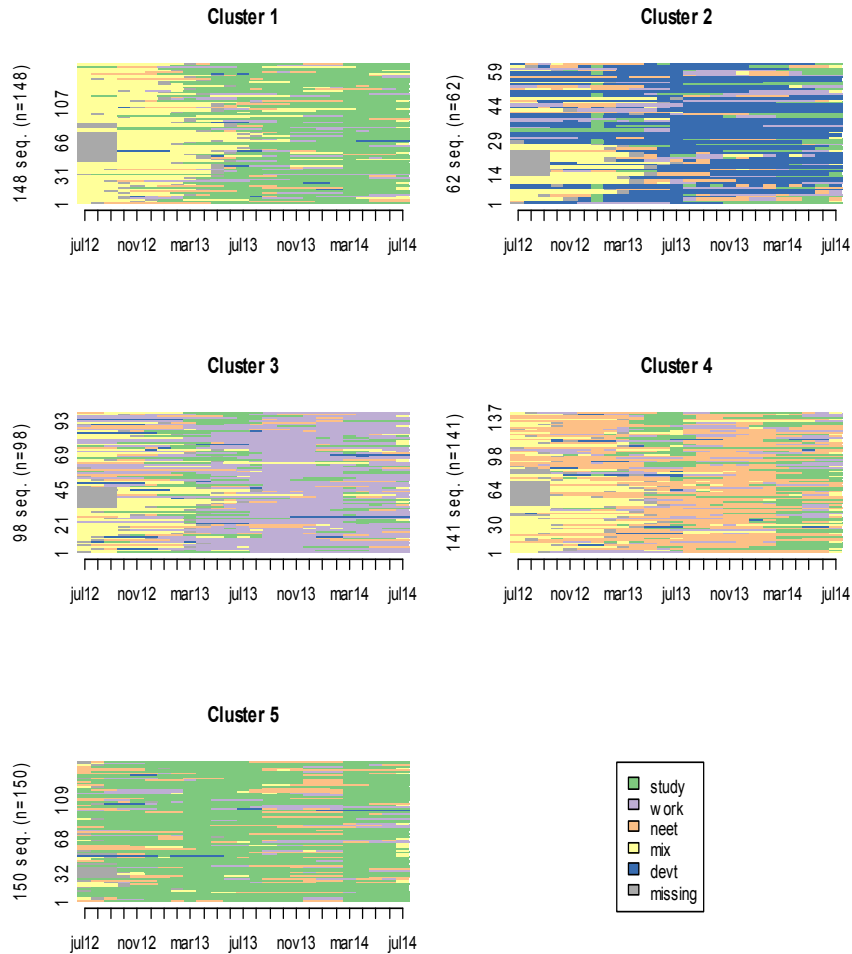
시계열적 변화에 따라 경험사건의 특징적인 변화가 크지 않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 Cluster 5는 초기 시점부터 학업형 경험사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들이다.



[그림 3] 시계열에 따른 군집별 경험사건 분포

[그림 4]는 5개 군집별로 그에 속하는 사례들의 시계열 경험사건 배열을 나타내고 있다. Cluster 1의 경우 대다수의 사례들이 초기 혼재형 경험사건이 많다가 2013년 5월 이후로는 학업형 경험사건들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luster 2의 경우에는 시계열에 따라 중간 중간 다른 유형(무업형, 학업형, 직업형)의 경험사건을 겪지만 대체로 많은 기간 동안 비행형 경험사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초기에 비행형 경험사건을

겪다가 후에는 다른 유형의 경험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발견된다. Cluster 3는 초기 무업형 경험사건을 겪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지만 대체로 직업형 경험사건이 많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Cluster 4는 전반적으로 혼재형과 무업형 경험사건이 많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그 유지 기간이 짧지만 중간 중간에 학업형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Cluster 5는 때에 따라 무업형 경험사건을 겪거나 극히 일부에는 비행형 경험사건을 겪었으나, 전반적으로 학업형 경험사건을 많이 겪은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들 사례들의 경우 경험사건 시점 마지막(2014년 7월)에도 학업형 경험사건을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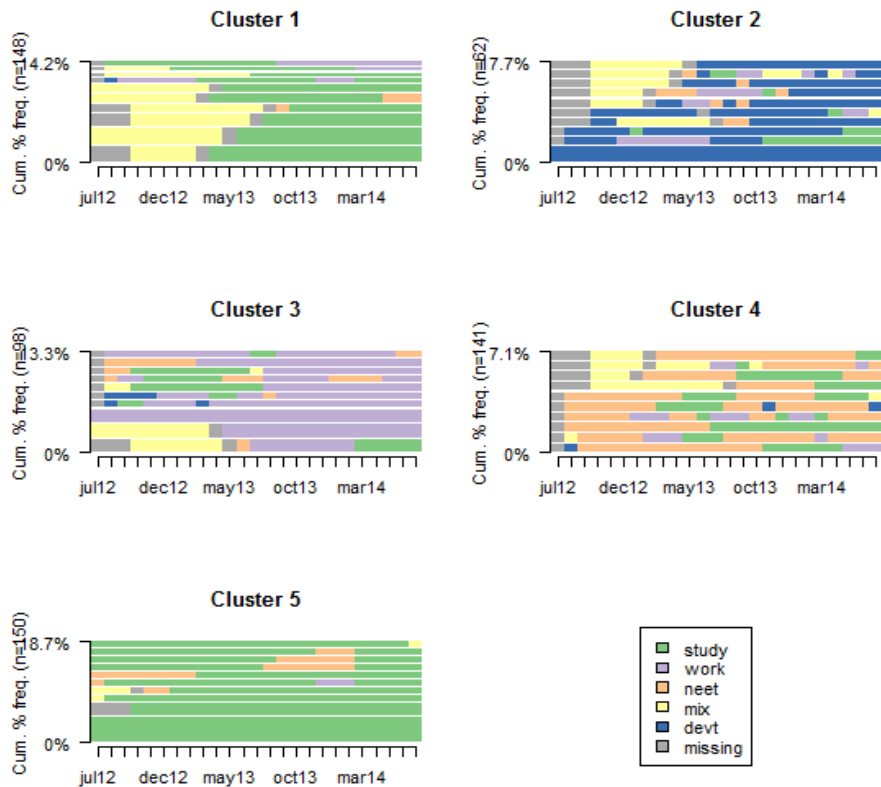


[그림 4] 군집에 따른 개인별 경험사건 배열(전체)

[그림 5]는 [그림 4]를 좀 더 간소화해 나타내기 위해 군집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별 경험사건 배열 중 상대적으로 빈도가 많은 경험사건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Cluster 1의 경우 초기에 혼재형 경험을 겪다가 후에는 학업형 경험사건을 지속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2차 조사시점에 무업형으로 전환하는 사례도 상대적으로 많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luster 2는 비행형 경험사건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중간 중간에 다른 유형의 경험사건을 겪는 경우, 또는 대체로 여러 형태의 경험사건들을 겪다가 2차 조사시점에 오면서 비행형 경험사건을 겪는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비행형 경험사건을

겪다가 마지막에 학업형으로 전환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Cluster 3는 대체로 직업형 경험사건을 많이 겪었다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혼재형, 또는 비행형이나 학업형 경험사건을 겪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직업형 경험사건으로 전환하는 특징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 Cluster 4는 초기에는 무업과 혼재형의 경험사건이 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업형, 비행형, 직업형 등 다양한 경험사건이 단기간 반복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Cluster 5는 대체로 학업형 경험사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부 사례의 경우에는 중간에 무업형, 혹은 직업형 경험사건을 겪지만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주로 학업형 경험사건을 겪은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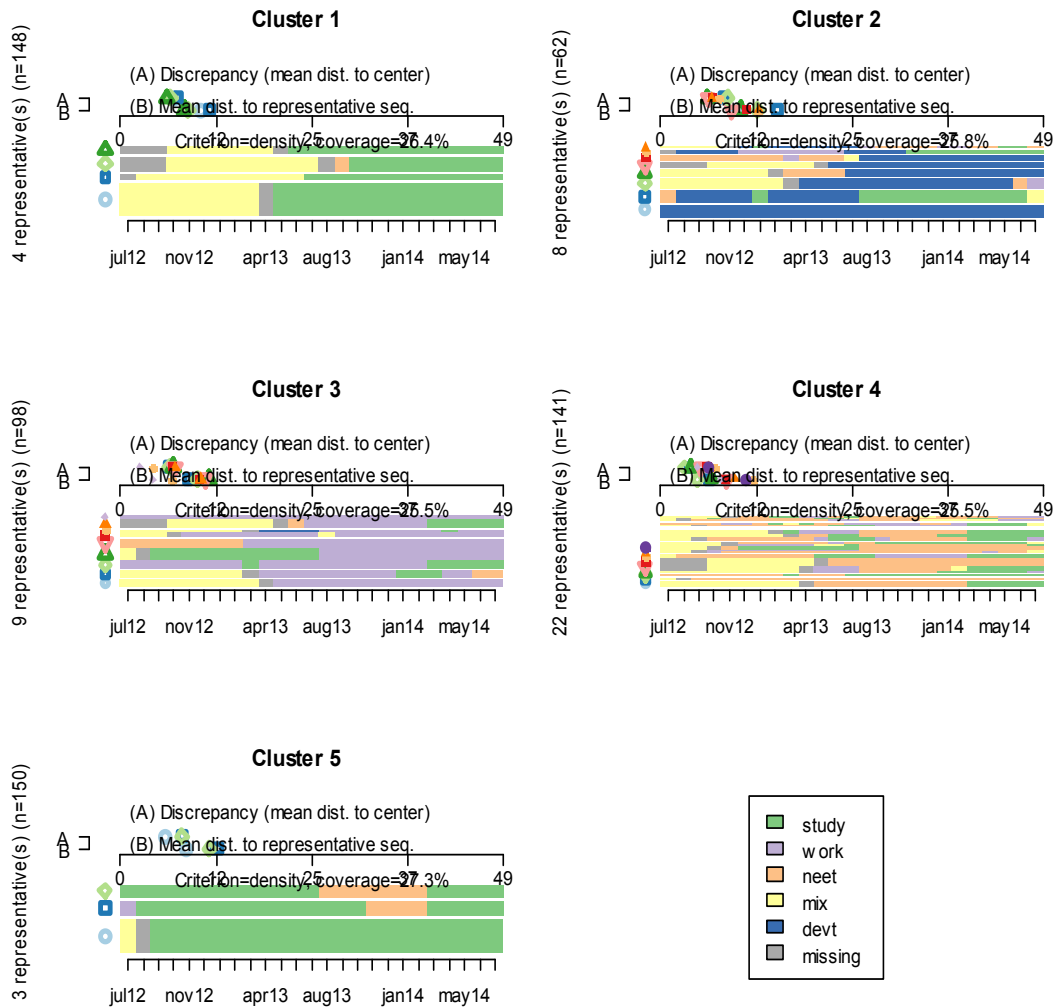


[그림 5] 군집별 발생빈도가 높은 경험사건 배열

3. 군집별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이상에서 살펴본 5개 군집의 시계열적 사건 배열들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Optimal Matching 방법을 활용한 sequence 분석의 5개 군집별 대표 경험사건 배열을 산출하였다. 이들 대표 사건배열은 각 군집에 속한 개인별 경험사건 배열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그 (비)유사성을 판단하여 해당 군집의 다양한 사건배열을 대표할 수 있는 경험사건 배열을 산출한 결과이다.

이들 5개 군집의 대표 경험사건 배열(sequences)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결과와 상당부분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Cluster 1의 경우 혼재형에서 학업형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Cluster 2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비행형 경험사건이 주를 이루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학업형이나 그 외의 경험사건으로 전환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Cluster 3의 경우에는 초기 경험사건은 여러 형태를 떠나 시간이 지나면서 직업형 경험사건이 많아지는 특징이 나타나며, 일부는 직업형 경험사건을 겪다가 다시 학업형이나 무업형 경험사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Cluster 4의 경우에는 대체로 무업형 경험사건을 많이 겪고 있으나, 전체 시계열 상에 다양한 경험사건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즉 초기 시점에서는 혼재형 경험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업형과 학업형, 직업형 경험사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Cluster 5는 일부의 경우 짧은 기간이기는 하나 무업형 경험사건을 겪는 경우도 발견되지만,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전반적으로 학업형 경험사건을 유지하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군집별 대표 경험사건 배열

이상에서 살펴본 각 군집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군집들을 명명하였다. ‘Cluster 1’은 초기에는 혼재형을 떠나, 추후 학업형으로 전환된 집단으로 ‘혼재->학업전환형’으로 명명하였다. ‘Cluster 2’의 경우, ‘비행진입형’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조사기간 마지막 시기에 비행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초기시점부터 계속해 비행경험만을 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어 ‘비행진입형’보다는 ‘비행경험형’으로 명명하였다.

‘Cluster 3’은 ‘혼재->직업형’으로도 명명할 수 있다. 대표 시퀀스가 초기에는 혼재형을 떠다가 뒤에 직업형을 띤다. 다만, ‘혼재->직업->학업’의 시퀀스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직업지향형’으로 명명하였다. ‘Cluster 4’은 초기상태에서는 혼재형을 떠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업형과 학업형, 직업형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경우이다. 다만, 전체 경험사건 중 무업형 경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체적으로 보면 ‘혼재형’에 가까운 집단이다. 다만, 초기에 ‘혼재형’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혼재->무업형’ 혹은 ‘혼재·무업형’으로 명명하였다. ‘Cluster 5’는 조사 초기시점부터 거의 대부분을 학업 경험을 유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학업지속형’으로 명명하였다.

각 군집에 속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학업지속형’ 청소년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혼재->학업전환형’이 24.7%로 많았다. ‘혼재·무업형’ 청소년도 23.5%를 차지하여 학업형 청소년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직업지향형’ 청소년은 16.4%로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았으며, ‘비행경험형’ 청소년은 10.4%였다. 그리고 여기서 결측치는 보호관찰소 패널로 이들 모두를 ‘비행형’으로 고려한다고 할 때 사실상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와 비율

유형	명	%
혼재->학업전환형	148	24.7
비행경험형	62	10.4
직업지향형	98	16.4
혼재·무업형(혼재->무업형)	141	23.5
학업지속형	150	25.0
소계	599	100.0
결측치	397	
총계	996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유형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지만, 비행경험형의 경우에는 남성의 비율이 여성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혼재에서 학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학업지속형은 남성이 여성보다 그 비율이 2배 가까이 되고 있다.

또한 혼재·무업형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남성이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나이(18.22세)가 가장 높았고, 비행형 청소년이 18세로 다음으로 많았다. 반대로 혼재->학업전환형과 학업지속형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이 분포하고 있었다.

최초 학업중단 학교 유형을 살펴보면, 혼재->학업전환형, 비행경험형, 혼재·무업형, 학업지향형 청소년은 일반고가 가장 많았고, 직업지향형 청소년은 특성화고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특성화고도 39.7%로 일반고 4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고와 특성화고 특성에 상관없이 고교시절에 첫 학업중단이 발생한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특징 중 하나는 학업지속형 청소년의 경우 중학교와 일반고 시기에 첫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중학교 시기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업을 유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개인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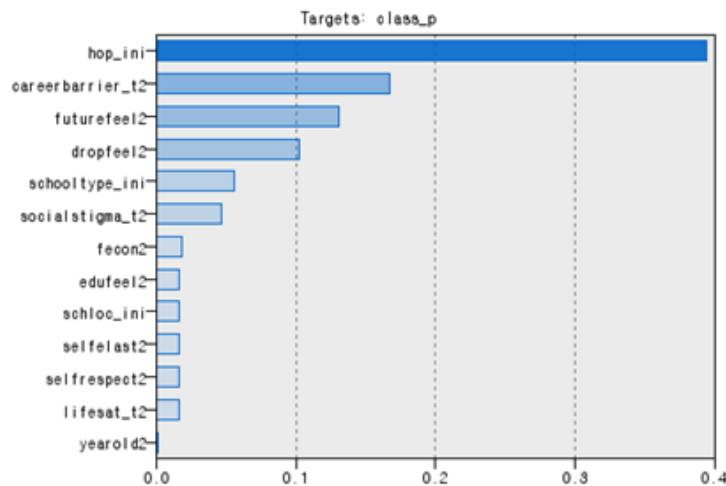
구분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성별	혼재->학업전환형	남성	70	47.3
		여성	78	52.7
		합계	148	100.0
	비행경험형	남성	53	85.5
		여성	9	14.5
		합계	62	100.0
	직업지향형	남성	53	54.1
		여성	45	45.9
		합계	98	100.0
	혼재 · 무업형	남성	84	59.6
		여성	57	40.4
		합계	141	100.0
	학업지속형	남성	94	62.7
		여성	56	37.3
		합계	150	100.0

구분			빈도/평균	백분율/표준편차
연령	혼재-〉학업전환형		17.54	.979
	비행경험형		18.00	1.086
	직업지향형		18.22	.831
	혼재 · 무업형		17.81	1.001
	학업지속형		17.71	1.164
최초 학업중단 학교유형	혼재-〉학업전환형	초등학교	1	.7
		중학교	24	16.2
		일반고	80	54.1
		특성화고	38	25.7
		자율고	2	1.4
		특목고	2	1.4
	비행경험형	기타	1	.7
		합계	148	100.0
		중학교	15	24.2
		일반고	22	35.5
		특성화고	25	40.3
		합계	62	100.0
	직업지향형	중학교	11	11.2
		일반고	39	39.8
		특성화고	45	45.9
		자율고	3	3.1
		합계	98	100.0
		중학교	23	16.3
	혼재 · 무업형	일반고	59	41.8
		특성화고	56	39.7
		특목고	1	.7
		기타	2	1.4
		합계	141	100.0
		중학교	50	33.3
	학업지속형	일반고	56	37.3
		특성화고	37	24.7
		자율고	4	2.7
		특목고	2	1.3
		기타	1	.7
		합계	150	100.0

한편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어떤 특성에 의해 각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C&R Tree)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군집유형을,

설명변수에는 성별과 함께 2차년도 조사 기준 연령,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학력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가구경제수준, 삶의 만족도, 사회에 대한 인식, 진로장애, 최초 학업중단 학교 유형, 소재지, 그리고 최초 학업중단 시기 가장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한 응답값을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각 군집에 속할 확률에 대해 최초 학업중단 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변수였고, 다음으로는 진로장애, 미래에 대한 인식,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이었다.



[그림 7] 군집별 소속 확률에 대한 설명변수의 중요도

각 설명변수별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최초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것 중에서 돈은 많이 벌고 싶었다, 실컷 놀고 싶었다,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혼재·무업형에 속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 외에 응답한 청소년은 혼재>학업전환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최초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 위의 3개 응답자 중에서도 미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3.500) 청소년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로장애가 상대적으로 많고(> 2.038),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5.500) 청소년 혼재·무업형에 속하는 비율이 높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직업형 청소년의 경우도 혼재·무업형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혼재>학업전환형 청소년을 보면, 미래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2.833)이고, 가구경제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4.500)인 청소년들이 이 유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노드 0	%	n
종가-4대간전환	24,708	140	0
비정상전환	15,917	92	0
직접지입현	23,539	141	0
종가지입현	18,391	90	0
합계	100,000	598	

별도	노드 0	%	n
종가-4대간전환	24,708	140	0
비정상전환	15,917	92	0
직접지입현	23,539	141	0
종가지입현	18,391	90	0
합계	100,000	598	

1,000, 2,000, 4,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별도	노드 2	%	n
종가-4대간전환	5,178	16	0
비정상전환	15,210	47	0
직접지입현	21,572	65	0
종가지입현	28,155	87	0
합계	51,588	308	

18886_P

1,000, 3,000, 4,000, 5,000

별도	노드 5	%	n
종가-4대간전환	20,207	64	0
비정상전환	5,603	13	0
직접지입현	18,103	42	0
종가지입현	21,983	51	0
합계	39,371	21	

18886_P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2 weekday

[그림 8] 의사결정나무명 분석결과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의 경로에 대해 2개년의 조사에 따른 총 25개월간의 학업중단 후 경험들을 분석하고, 그 유사성에 따라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유형을 5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월 단위 시점에 대한 시계열적 배열에 대해 각 사례들이 갖는 사건배열의 (비)유사성(또는 거리)을 도출하여 군집화 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경험하는 여러 사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지표에 의해 도출된 적정 군집수를 결정해야하며, 관련 통계량에 의해 도출된 군집수를 설정하더라도 실제 각 군집의 경험사건 배열의 해석 용이성을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배열에 대한 분석은 유사한 경험사건의 배열을 갖는 집단 구성원들의 특징을 설명해줄 수 있으며, 도출된 군집에 따른 다양한 관련변인과의 관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험사건 경로에 대한 기준과 다른 분석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OM 방법을 적용한 (비)유사성 (또는 거리) 값을 산출하였고, 비계층적 군집분석 중 하나인 PAM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사건배열의 (비)유사성(또는 거리) 값을 산출할 때에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최적일치법 (OM: optimal matching) 외에도 LCS(longest common subsequence), HAM(hamming distance), DHD(dynamic hamming distance) 등의 여러 방법이 존재하며, 도출된 유사성 값을 활용한 군집분석 단계에서도 여러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각 경험사건 간의 대체비용의 설정 방법 등 분석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Gabadinho, A. et al., (2011). Analyzing and visualizing state sequences in R with TraMineR.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40(4), 1-37
- Studer, M. (2013). WeightedCluster library manual: A practical guide to creating typologies of trajectories in the social sciences with R. LIVES Working Papers, 24.

발표 1



학업형 청소년의 학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김 성 식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학업형 청소년의 학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I. 서론

이 연구는 학업중단 이후에 다양한 형태로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의 특성, 경험을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업 중단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들이 다른 유형(직업형, 무업형 등)에 비해 어떤 특성이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학업 중단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은 처음에는 뚜렷한 유형을 보이지 않다가 학업형으로 변화된 유형(학업전환형)과 학업 중단이후에도 비교적 계속 학업을 지속한 유형(학업지속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업중단 청소년 규모는 전체 학생대비 1~2%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지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45), 지난 몇 년 동안 그 발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윤철경 외, 2013:19). 이런 점을 반영하여 정부는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고등학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학업중단 예방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연구는 학업 중단자를 교육하거나 수용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소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면담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김상현·양정호, 2013, 홍나미 외, 2013, 이자영 외, 2010, 오혜영 외, 2011; 홍임숙, 2004 등).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연구대상이 소수 특정 범위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학업중단의 예방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연구 주제로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수행된 학업중단 연구들은 학업중단 관련 요인, 지원 및 예방대책, 접근방안, 학업중단의 유형 및 특성 등을 주로 다루어 왔다(김영희·허철수, 2012). 이처럼 그동안 연구들은 학업중단을 감소시키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관심을 두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점은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삶과 경험의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관련 연구들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를 진학지향, 취업지향, 방임형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이경상·조혜영, 2005), 학습지향, 취업·알바형, 무업형, 비행형 등으로 나누기도 하였다(윤철경 외, 2010).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다양한 삶의 경로를 밟게 되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적응 과정으로 이행할 수도, 아니면 비행·일탈 행동에 동조하게 되는 부적응 과정으로 이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을 그만두기로 한 이후에 다시 학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에 특이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학업을 계속하게 되는 데 무엇 때문에 학교를 그만 두었고, 현재 경험하는 학업 경험은 이전의 학교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학업을 계속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점들이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이후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다른 경로가 아닌 학업을 지속하여 적응하도록 하는 데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는가를 파악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학업형 집단과 비학업형 집단 간에 학업중단 이전 학교경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 생활 경험과 가치관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관련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특성 및 요인들이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들로 하여금 다시 학업형 경로에 참여하게 할 가능성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2년 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시간적 변화 과정을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우선, 분석 과정에서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에 학업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한 유형(학업지속형)과 함께 학업전환형을 세분화하여 포함하였다. 학업전환형은 처음에는 뚜렷한 유형을 보이지 않지만 이후 점차적으로 학업 유형 경험이 뚜렷해지는 청소년들이다. 다음으로, 시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1차년도와 2차년도를 나누어서 반복 분석함으로써 연차별 차이가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데이터

이 연구에서 분석한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1차년도와 2차년도 데이터이다. 이 데이터는 학교를 통한 개인명부 조사, 보호관찰소를 통한 조사, 웹 홍보 및 학교 밖 기관을 통한 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되었다(윤철경 외, 2013: 92).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최종 분석 대상은 599명이다. 원 표본은 996명이나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과 2차년도에 설문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들이 제외되었다.

2. 변인 구성

가. 학업중단 이후 경로 구분

이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산출한 경로 유형을 사용하였다. 이 경로 유형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청소년들의 월별 경험을 분석하여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25개월 간의 월별 경험을 산출한 후 그 변화 패턴을 군집 분석하였고 혼재→학업형(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직업지향형, 혼재→무업형(혼재·무업형), 비행경험형 등 5개의 범주로 유형화되었다.

표 1 경로 유형별 분포

	빈도	%
학업전환형	148	24.7
학업지속형	150	25.0
직업지향형	98	16.4
혼재·무업형	141	23.5
비행경험형	62	10.4
합계	599	100.0

이 분석에서는 학업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분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업지향형, 혼재·무업형, 비행경험형을 함께 묶어서 비학업형으로 사용하였다. 즉, 최종적으로 사용한 경로 유형은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등 3개 범주이다.

참고로 학업중단 이후 유형 집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학업 경험에 대해서는 ‘복학하여 학교에 다님’, ‘대안학교에 다님’, ‘검정고시 공부를 함’ 등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직업지향 경험은 ‘직업기술을 배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일을 함’ 등의 문항이다. 무업형 경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놀’ 등의 문항이며, 비행경험은 ‘가출하여 친구집이나 pc방과 같은 곳에 지내거나 가출패와 함께 생활함’, ‘보호시설에서 지냄’, ‘보호관찰을 받음’,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생활함’ 등이다.

나. 학업중단 이후 학업형 경로 관련 변인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학교, 또래, 사회 환경, 적응유연성과 같은 심리적 변인 등이 제시된다(홍임숙, 2004, 윤여각 외, 2002, 오혜영 외, 2011). 여기에서는 데이터 수집의 기반이 된 윤철경 외(2013)의 연구 모형에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속 경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 학교경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 생활 경험과 인식 등으로 구성하였다.

관련 변인은 1차년도와 2차년도 반복 측정된 문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1차년도 혹은 2차년도에만 측정된 변인도 일부 유형 간 차이 분석(F 검증)에 사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 이전 학교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전 학교경험으로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습부적응, 규범위반,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과 도움 정도 등을 포함하였다.

교사와의 관계는 자신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며 의논할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사용된 문항은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선생님이 있었다.’,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학교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친구와의 관계는 학교에서의 친구와 어느 정도 잘 지냈는가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를 묻는 4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는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 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학습부적응은 학교 수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하고 만족하였는가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 경험한 수업에 대한 인식을 묻는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항은 ‘학교 수업내용은 내 관심, 흥미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학교 수업내용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았다.’, ‘학교 수업을 알아듣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다.’ 등이었다.

규범위반은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어느 정도 했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지각, 무단결석, 두발과 복장 등 규정위반, 숙제를 하지 않음, 수업을 몰래 빼 먹음, 선생님에게 대들었음, 잘못된 행동을 하여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감 등이 포함되었다. 이 문항들은 전혀 없었다, 연 1~2회, 월 1~2회, 주 1~2회, 거의 매일 등 빈도를 묻는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여부와 도움 정도는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전문기관 상담을 받으며 2주 정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기간을 가졌는지 여부를 문항을 활용하였다. 숙려제 참여 경험이 있는 경우가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인으로 구성되었다. 도움 정도는 학업중단을 할 것인 생각해보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도움 정도를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2) 개인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성 등 4개의 변인을 포함하였다. 2차년도에 새롭게 조사된 생활만족도와 사회적 낙인감도 포함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능력 있고 가치 있는 존재로 믿는 심리적 특성으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5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적절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내가 의자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이다.' 등의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울은 청소년들의 우울 증상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은 평소 기분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문항은 '기운이 별로 없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걱정이 많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울기를 잘 한다.' 등으로 측정되었다.

충동성은 조금하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결정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 변인은 자기 자신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기는 편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등이다.

생활만족도는 생활 속에서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의미한다. '나는 사는 게 즐겁다.', '나는 걱정거리가 별로 없다.',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낙인감은 사회로부터의 부정적 인식에 대한 자각 정도를 의미한다.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나는 사회가 나를 열등하게 본다고 느낀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고 느낀다.', '나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나는 사회가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고 느낀다.' 등의 5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3)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은 부모관계, 친구관계, 지역사회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들 영역에는 1-2개의 세부적인 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모관계는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정서적 지원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고민을 들어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사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친구관계는 또래 애착과 친구의 비행성향 등의 두 측면으로 구성되었다. 또래 애착은 친구에 대한 믿음과 애착 정도로서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친구의 비행성향은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등의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역사회는 거주 지역 구성원들의 상호 통합정도와 유대감 정도를 의미한다. 이 변인을 구성하는 문항은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었을 것이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렸을 것이다.' 등이다.

4) 학업 중단 이후 생활 경험과 가치관

학업 중단 이후 생활 경험과 가치관으로는 여가활동, 게임중독, 문제행동 피해 및 가해경험, 학력에 대한 인식,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 등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여가 활동은 하루 생활동안 어느 정도 여가와 취미활동에 참여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조사 시점에 하루 동안 생활하는 시간을 묻는 문항 중 운동, 취미, 동아리 활동을 하는 시간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은 평일과 휴일로 구분하여 하루 동안의 시간을 조사하고 있는 데 이를 1주일 간 시간으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게임 중독은 게임에 대한 자동화된 의존 성향으로 일상적 생활에 대한 장애가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밤늦게 게임을 하느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게임을 하느라 해야 할 일을 못한다.', '갈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점점 더 오랜 시간 게임을 해야 만족하게 된다.', '게임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그만두는 것이 어렵다.', '게임 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게임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도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 '게임 생각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 등으로 구성된 8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피해경험은 학업중단 이후 집단따돌림 당하기, 성적인 놀림당하기, 폭행 등과 같은 폭력 관련 사안에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말한다. 모두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에서는 6개 문항 중 경험한 문항의 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문제행동 가해경험은 학업중단 이후 문제행동 경험이 있는가 여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도박, 자살시도, 공공 기물이나 물건 파손 등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문제행동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8개 문항 중 경험한 문항의 수를 산출하여 사용하였다.

학력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우리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자기 미래에 대한 낙관성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등의 3개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 학생 배경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학업중단 이후 학업지속 여부에 대한 배경적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학생 배경 변인을 포함하였다. 배경 변인으로는 학업중단 시 학교급, 연령, 부모 학력수준, 성별, 성취수준, 경제수준(주관적), 현재 재학여부, 고교 졸업 여부 등이 투입되었다.

성별은 여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남학생을 1의 값을 갖도록 하는 더미 변인으로 하였다. 연령은 2차년도 조사시점인 2014년 현재 연령을 투입하였다. 학업중단 시 학교급은 중학교, 일반고, 전문고(실업고) 등으로 구분하고 일반고를 기준으로 중학교와 전문고를 더미 변인으로 하였다. 현재 재학여부와 고교 졸업 여부는 2차년도 조사시점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 성취수준은 학교를 그만둘 당시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 최하위권(1)부터 최상위권(7)까지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경제수준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자기 보고한 것으로 매우 못산다(1)부터 매우 잘 산다(7)로 측정되었다. 경제수준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조사되어 분석에서는 각 연도별로 각각 사용되었다. 부모 학력수준은 부모의 최종 졸업학교를 교육연한으로 전환한 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부모 학력수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모르겠다는 0, 알고 있다는 1의 값을 갖는 별도의 더미 변인으로 나타낸 후, 부모 학력수준 변인에서는 0의 값을 갖도록 하였다.

다음은 분석에 사용한 변인들의 기술통계이다.

표 2 사용변인의 기술통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남학생	599	0	1	0.59	0.49	
연령	599	15	21	18.78	1.10	
일반고	599	0	1	0.43	0.50	
특성화고	599	0	1	0.36	0.48	
재학	599	0	1	0.16	0.36	
졸업	599	0	1	0.04	0.19	
성적	599	1	7	3.36	1.61	
경제수준1	599	1	7	3.78	1.17	
경제수준2	598	1	7	3.65	1.15	
부모학력a	599	0	1	0.88	0.32	
부모학력b	599	0	19	11.08	4.91	
교사관계	599	1	4	2.54	0.86	
친구관계	599	1	4	3.04	0.74	
학습부적응	599	1	4	2.53	0.73	
훈육적학교풍토	599	1	4	2.52	0.79	
참여적학교풍토	599	1	4	2.37	0.75	
규범위반	599	1	5	2.45	1.06	
자아존중1	599	1	4	2.98	0.55	
자아탄력1	599	1	4	2.85	0.56	
우울1	599	1	3.9	2.03	0.58	
1	총동성1	599	1	4	1.99	0.58
차	정서지원1	599	1	4	3.00	0.69
년	경제지원1	599	1	4	2.99	0.72
도	또래애착1	599	1	4	3.14	0.61
	친구폭력성향1	599	1	4	1.64	0.63
	지역사회1	599	1	4	2.29	0.68
	여가1	599	0	70	6.87	9.73
	게임중독1	599	1	4	1.48	0.65
	피해경험1	599	0	3	0.07	0.29
	가해경험1	599	0	9	1.80	1.68
	학력주의1	599	1	4	3.06	0.66
	낙관성1	599	1	4	3.10	0.62

표 2 사용변인의 기술통계(계속)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 차 년 도	자아존중2	599	1	4	2.95	0.54
	자아탄력2	599	1	4	2.80	0.52
	우울2	599	1	3.6	2.00	0.57
	충동성2	599	1	4	1.93	0.61
	정서지원2	599	1	4	3.00	0.66
	경제지원2	599	1	4	2.86	0.77
	또래애착2	598	1	4	3.10	0.59
	친구폭력성향2	598	1	4	1.56	0.61
	지역사회2	599	1	4	2.08	0.66
	여가2	599	0	49	5.07	7.60
	게임중독2	599	1	3.75	1.36	0.51
	피해경험2	599	0	6	0.18	0.68
	가해경험2	599	0	8	1.82	1.55
	학력주의2	599	1	4	2.97	0.63
	낙관성2	520	1	4	2.98	0.64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학업형과 비학업형 간에 나타나는 청소년의 특성 차이와 학업형 유형에 대한 긍정적 영향 요인 탐색 등 2개의 연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경로 유형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성, 환경, 경험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F-검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학업중단 이후 학업지속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큰 관련성을 갖는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로 유형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관련 청소년 특성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항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변인들의 차이와 관련성에서 연도별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도별로 반복 분석을 시행하였다.

Ⅲ. 분석 결과

1.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경험

이 연구에서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전환형이 148명, 학업지속형이 150명, 비학업형이 3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경험 추이를 보면, 학업전환형인 경우는 초기에는 혼재형이 많다가 13년 3월을 기점으로 학업형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업형 경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은 14년 3월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14년 3월 이후에는 다시 감소 추세가 이어짐).

학업지속형인 경우는 초기 이후 학업형 경험 비율이 계속 높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13년 6월부터 14년 2월까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비학업형의 경우는 초기에는 혼재형이 많지만, 점차 직업형과 무업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초기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의 경험을 동시에 하는 혼합형이 많지만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업형의 등락 경향은 복교, 대안학교, 검정고시 등의 경험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 되므로 이와 관련된 학사 시작, 방학, 검정고시 일정 등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3 학업중단 후 월별 경험

연월		12년						13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n=148	학업	0.7	2.0	2.0	3.4	4.1	4.1	12.2	14.9	28.4	33.8	43.2	55.4	68.2
	전환형													
	직업형			1.4	3.4	3.4	4.7	4.7	5.4	4.1	7.4	9.5	10.1	7.4
	무업형	0.7	2.0	4.1	5.4	8.1	10.1	8.1	10.1	7.4	8.1	6.1	9.5	2.7
	혼재형	68.2	63.5	62.8	78.4	79.7	78.4	68.9	63.5	45.3	39.9	22.3	16.2	13.5
	비행형	2.0	2.0		2.7	1.4	1.4	1.4	0.7		0.7	3.4	3.4	4.1
n=150	결측	28.4	30.4	29.7	6.8	3.4	1.4	4.7	5.4	14.9	10.1	15.5	5.4	4.1
	학업	33.3	43.3	50.0	59.3	68.0	74.7	76.7	76.7	92.7	93.3	84.0	85.3	86.7
	지속형													
	직업형	5.3	4.7	7.3	11.3	9.3	8.0	4.7	4.7	1.3	0.7	6.0	6.7	2.7
	무업형	20.0	20.0	21.3	18.0	17.3	12.0	12.7	12.0	3.3	2.7	6.0	4.7	3.3
	혼재형	18.7	7.3	4.7	2.7	2.0	2.0	3.3	4.7	1.3	0.7	1.3	1.3	4.0
n=301	비행형	2.7	2.7	3.3	3.3	2.7	2.7	0.7	1.3	0.7	2.7	2.0	2.0	3.3
	결측	20.0	22.0	13.3	5.3	0.7	0.7	2.0	0.7	0.7		0.7		
	비학업	1.7	1.7	2.0	3.7	4.7	5.0	13.3	10.3	16.6	18.3	20.3	24.3	26.6
	형													
	직업형	8.6	8.3	11.6	13.0	14.6	15.0	14.3	15.0	18.6	23.9	27.2	28.2	28.6
	무업형	14.0	16.9	17.9	23.6	28.2	30.2	29.9	27.6	22.9	24.6	24.3	23.9	16.6
n=301	혼재형	45.2	40.9	35.5	41.2	36.9	37.2	35.2	27.6	19.9	12.0	7.6	7.3	7.3
	비행형	7.3	8.6	9.0	11.3	12.0	12.0	6.0	11.3	12.3	13.0	14.0	14.6	19.6
	결측	23.3	23.6	23.9	7.3	3.7	0.7	1.3	8.3	9.6	8.3	6.6	1.7	1.3

표 3 학업중단 후 월별 경험(계속)

연월		13년					14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n=148	학업	70.3	66.2	76.4	73.0	72.3	76.4	78.4	91.9	88.5	73.0	73.6	67.6
	전환형												
	직업형	8.1	12.2	10.1	11.5	11.5	12.2	11.5	4.1	4.7	13.5	14.2	12.2
	무업형	6.1	12.8	4.1	6.1	6.8	2.7	2.7	1.4	3.4	8.8	7.4	4.7
	혼재형	8.1	8.1	8.8	8.8	8.8	7.4	6.8	2.0	2.0	3.4	3.4	14.2
	비행형	2.0	0.7	0.7	0.7	0.7	1.4	0.7	0.7	1.4	1.4	1.4	1.4
n=150	결측	5.4											
	학업	84.7	69.3	70.7	68.0	56.7	54.0	55.3	87.3	86.0	79.3	80.0	70.0
	지속형												
	직업형	3.3	7.3	9.3	10.0	12.7	14.7	14.0	4.0	4.0	9.3	9.3	8.0
	무업형	9.3	20.7	18.0	21.3	28.7	28.0	26.7	5.3	6.7	8.7	7.3	6.0
	혼재형	1.3	2.7	2.0	0.7	1.3	1.3	2.0	1.3	1.3	0.7	1.3	14.7
n=301	비행형	1.3				0.7	2.0	2.0	2.0	2.0	2.0	2.0	1.3
	결측												
	비학업	17.6	7.3	7.3	9.0	9.3	15.6	20.3	41.5	40.2	33.2	33.9	27.9
	형												
	직업형	31.9	39.2	42.2	38.9	36.2	32.2	33.2	25.2	26.6	33.9	34.6	27.9
	무업형	29.9	36.2	32.6	35.5	37.5	34.9	30.9	17.3	17.3	17.9	18.9	15.6
n=301	혼재형	4.3	3.3	3.7	2.7	3.7	3.3	2.7	3.0	3.3	2.3	1.7	18.9
	비행형	15.0	14.0	14.3	14.0	13.3	14.0	13.0	13.0	12.6	12.6	11.0	9.6
	결측	1.3											

다음으로 <표 4>는 이들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세부 항목별 경험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은 대체로 검정고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7.8%, 83.3%). 이에 비해서 학교 복학이나 대안학교는 경험 정도가 낮았다. 학업중단 기간 중 1개월 이상 1회 이상 복학을 경험한 비율은 학업전환형이 31.1%, 학업지속형이 36.7%이었다. 대안학교는 6.1%, 16.7%에 불과하였다.

이와 같은 학업 경험의 비율은 비학업형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복교의 경험에서는 세 유형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표 4 학업형 세부 항목별 경험 정도

세부경험		학업전환형 (N=148)		학업지속형 (N=150)		비학업형 (N=301)		합계 (N=599)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복교	있음	46	31.1	55	36.7	83	27.6	184	30.7	3.901
	없음	102	68.9	95	63.3	218	72.4	415	69.3	
대안 학교	있음	9	6.1	25	16.7	20	6.6	54	9.0	14.322 ***
	없음	139	93.9	125	83.3	281	93.4	545	91.0	
검정 고시	있음	130	87.8	125	83.3	214	71.1	469	78.3	19.352 ***
	없음	18	12.2	25	16.7	87	28.9	130	21.7	

*: $p < .05$, **: $p < .01$, ***: $p < .001$

이와 같은 특징은 <표 5>에서 제시한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이 각 세부항목에 참여한 기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세 가지 항목에서 학업지속형이 다른 두 유형보다 참여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또한, 학업전환형은 비학업형보다 참여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표 5 학업형 세부 항목별 경험 기간

경험기간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복교	5.91	5.50	9.87	8.27	3.77	3.72	6.13	6.37	18.047 ***
대안학교	8.33	4.58	13.72	8.70	3.65	4.12	9.09	8.05	12.530 ***
검정고시	9.62	4.15	11.98	5.31	5.49	3.35	8.36	5.00	103.473 ***

*: $p < .05$, **: $p < .01$, ***: $p < .001$

2.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표 6>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재학하고 있었던 학교급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이 발생하였으며 이런 특징은 특히 학업전환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업지속형의 경우는 중학교 시기부터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비교적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비학업형은 특성화고에서 학업중단이 발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던 점도 다르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자율고, 특목고 등의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최종 학업 중단 시 학교급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초등학교	1	0.7					1	0.2	
중학교	24	16.2	50	33.3	49	16.3	123	20.5	
일반고	80	54.1	56	37.3	120	39.9	256	42.7	
특성화고	38	25.7	37	24.7	126	41.9	201	33.6	41.228
자율고	2	1.4	4	2.7	3	1.0	9	1.5	***
특목고	2	1.4	2	1.3	1	0.3	5	0.8	
기타	1	0.7	1	0.7	2	0.7	4	0.7	
전체	148	100.0	150	100.0	301	100.0	599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7>에서 제시한 학교의 소재 지역은 대도시 지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비율이 유형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업 중단 시 학교 소재 지역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대도시	79	53.4	88	58.7	156	51.8	323	53.9	
중소도시	60	40.5	54	36.0	116	38.5	230	38.4	
읍면지역	8	5.4	8	5.3	28	9.3	44	7.3	5.455
기타	1	0.7			1	0.3	2	0.3	
전체	148	100.0	150	100.0	301	100.0	599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8>은 학업중단 시 가장 하고 싶은 것을 정리한 것이다. 학업중단 시 희망하는 것이 유형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전환형은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 함양을 가장 높게 응답했고, 학업지속형은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비학업형은 돈을 벌고 싶다는 응답과 실컷 놀고 싶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는 학업중단의 동기와 이유가 이후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8 **학업 중단 시 가장 하고 싶은 것(1순위)**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x 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33	22.3	18	12.0	42	14.0	93	15.5	68,233 ***
2	28	18.9	30	20.0	42	14.0	100	16.7	
3	14	9.5	18	12.0	75	24.9	107	17.9	
4	5	3.4	5	3.3	11	3.7	21	3.5	
5	20	13.5	26	17.3	68	22.6	114	19.0	
6	11	7.4	19	12.7	39	13.0	69	11.5	
7	3	2.0	3	2.0	5	1.7	11	1.8	
8	9	6.1	3	2.0	4	1.3	16	2.7	
9	9	6.1	9	6.0	6	2.0	24	4.0	
10	3	2.0	4	2.7	2	0.7	9	1.5	
11	2	1.4	5	3.3			7	1.2	
12	11	7.4	10	6.7	7	2.3	28	4.7	
전체	148	100.0	150	100.0	301	100.0	599	100.0	

*: $p < .05$, **: $p < .01$, ***: $p < .001$

1.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2.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
3.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4.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
5. 실컷 놀고 싶었다.
6.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7.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다.
8. 전학가고 싶었다.
9.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다.
10. 전문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을 받고 싶었다.
11. 대안학교에 가고 싶었다.
12. 기타

<표 9>는 학업중단 시 하고 싶었던 것의 현재 실현정도(2014년 2차년도 조사 시점)를 보고한 것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실현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61.6%). 그러나 이런 비율은 학업지속형이 조금 더 높았고, 학업전환형이나 비학업형은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학업지속이 어느 정도 적응과 목표실현의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9 학업 중단 시 하고 싶었던 것의 현재 실현 정도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이루지 못함	8	5.4	9	6.0	36	12.0	53	8.8	22.981 ***
거의 이루지 못함	48	32.4	33	22.0	96	31.9	177	29.5	
거의 이룸	72	48.6	70	46.7	133	44.2	275	45.9	
매우 잘 이룸	20	13.5	38	25.3	36	12.0	94	15.7	
전체	148	100.0	150	100.0	301	100.0	599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0>과 <표 11>은 하고 싶은 것을 실현하지 못한 이유와 실현한 이유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실현하지 못한 이유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런 경향은 비학업형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실현한 이유로는 계획과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학업지속형은 지속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의 존재, 비학업형의 경우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다른 유형에 비해서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런 결과는 학업중단 이후 성공과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이 구체적인 사전 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학업지속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멘토가 중요하며, 취업이나 다른 진로의 선택에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10 학업 중단 시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11	19.6	14	33.3	74	56.1	99	43.0	43.662 ***
2	14	25.0	11	26.2	22	16.7	47	20.4	
3	2	3.6	2	4.8	9	6.8	13	5.7	
4	5	8.9	1	2.4	9	6.8	15	6.5	
5	5	8.9	1	2.4	3	2.3	9	3.9	
6	2	3.6	4	9.5	4	3.0	10	4.3	
7	1	1.8	2	4.8	3	2.3	6	2.6	
8	2	3.6			2	1.5	4	1.7	
9									
10	14	25.0	7	16.7	6	4.5	27	11.7	
전체	56	100.0	42	100.0	132	100.0	230	100.0	

*: p < .05, **: p < .01, ***: p < .001

1.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2. 끈기 부족
3. 노는 친구들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함
4. 관련 정보 부족
5. 이끌어주는 사람 부재
6. 가족(보호자)의 지원 부재
7. 게임이나 인터넷 몰두
8. 학원을 다닐 돈이 없었음
9. 보호관찰 중이라
10. 기타

표 11 학업 중단 시 하고 싶었던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18	19.6	23	21.3	35	20.7	76	20.6	22.164
2	33	35.9	33	30.6	46	27.2	112	30.4	
3	14	15.2	13	12.0	24	14.2	51	13.8	
4			15	13.9	12	7.1	27	7.3	
5	9	9.8	6	5.6	7	4.1	22	6.0	
6	4	4.3	6	5.6	12	7.1	22	6.0	
7	7	7.6	6	5.6	18	10.7	31	8.4	
8	7	7.6	6	5.6	15	8.9	28	7.6	
전체	92	100.0	108	100.0	169	100.0	369	100.0	

*: $p < .05$, **: $p < .01$, ***: $p < .001$

1. 가족이 격려나 용기를 준 것
2. 진학이나 취업준비를 위한 계획과 목표가 확실
3.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4. 지속적으로 이끌어준 사람의 존재
5. 전문기관을 이용
6. 유혹을 잘 뿌리침
7. 가족(보호자)의 경제적 지원
8. 기타

3.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여기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이후 경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인 학업중단 이전 학교경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 경험 및 가치 인식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이전 학교경험

<표 12>부터 <표 14>는 경로 유형별 학업중단 이전 학교에서의 무단결석의 경험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비학업형일수록 무단결석의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첫 무단결석 시기는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결석 이유로는 학업형이 공부하기 싫어서, 비학업형이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다. 특히, 다소 역설적이게도 학업지속형의 첫 결석 이유가 공부하기 싫어서라는 응답이다. 이는 학업지속형 유형에서 대안학교의 경험 비율이 높은 점과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2 학업 중단 당시 학교에서 학교 나가기 싫어서 결석한 경험 여부

구분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92	62.2	89	59.3	252	83.7	433	72.3	39.781 ***
없음	56	37.8	61	40.7	49	16.3	166	27.7	
전체	148	100.0	150	100.0	301	100.0	599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3 학교 나가기 싫어서 결석한 첫 시기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초 저학년	9	9.8	1	1.1	13	5.2	23	5.3	12.223
초 고학년	18	19.6	15	16.9	30	11.9	63	14.5	
중학교	38	41.3	46	51.7	139	55.2	223	51.5	
고등학교	27	29.3	27	30.3	70	27.8	124	28.6	
전체	92	100.0	89	100.0	252	100.0	433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4 학교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게 된 최초 이유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부하기 싫어서	17	18.5	28	31.5	74	29.4	119	27.5	26.953 **
친구들이 괴롭혀서	16	17.4	11	12.4	14	5.6	41	9.5	
선생님께 혼나서	7	7.6	10	11.2	20	7.9	37	8.5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19	20.7	19	21.3	87	34.5	125	28.9	
기타	33	35.9	21	23.6	57	22.6	111	25.6	
전체	92	100.0	89	100.0	252	100.0	433	100.0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표 15>에서는 경로 유형별 학업중단 이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습부적응, 문제행동 등의 학교경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친구관계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학업형과 비학업형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업형이 비학업형에 비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엄격한 훈육적 풍토와 관련해서는 비학업형이 더 높게 응답하였고, 참여적 학교풍토에서는 학업전환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친구관계는 비학업형 청소년들이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표 15 학업 중단 이전 학교 경험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F
교사관계	학업전환형	148	2.67	.83	33.22 *
	학업지속형	150	2.57	.94	
	비학업형	301	2.46	.83	
	합계	599	2.54	.86	
친구관계	학업전환형	148	3.01	.73	0.877
	학업지속형	150	2.99	.78	
	비학업형	301	3.08	.72	
	합계	599	3.04	.74	

학습	학업전환형	148	2.32	.69	20.050 ***
부적응	학업지속형	150	2.38	.70	
	비학업형	301	2.71	.72	
	합계	599	2.53	.00	
훈육적	학업전환형	148	2.45	.84	3.536 *
학교풍토 (규율)	학업지속형	150	2.42	.77	
	비학업형	301	2.60	.78	
	합계	599	2.52	.79	
참여적	학업전환형	148	2.53	.80	4.363 *
학교풍토	학업지속형	150	2.32	.71	
	비학업형	301	2.32	.74	
	합계	599	2.37	.75	
규범위반	학업전환형	148	2.10	1.00	24.917 ***
	학업지속형	150	2.20	.97	
	비학업형	301	2.74	1.06	
	합계	599	2.45	1.06	

*: $p < .05$, **: $p < .01$, ***: $p < .001$

다음 <표 16>은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경험한 비율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를 경험한 청소년은 129명(21.5%) 정도이었으며, 이 중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이 조금 안 되는 70명(44.2%)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런 응답 경향은 학업형과 비학업형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16 학업 중단 결정전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 여부

구분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χ^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있음	35	23.6	23	15.3	71	23.6	129	21.5	4.556
없음	113	76.4	127	84.7	230	76.4	470	78.5	
전체	148	100.0	150	100.0	301	100.0	599	100.0	

*: $p < .05$, **: $p < .01$, ***: $p < .001$

표 17 학업 중단 숙려제의 도움 정도

구분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		합계		x ²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	8	22.9	3	13.0	12	16.9	23	17.8	11.36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음	8	22.9	10	43.5	29	40.8	47	36.4	
약간 도움이 되었음	11	31.4	7	30.4	27	38.0	45	34.9	
매우 도움이 되었음	8	22.9	3	13.0	3	4.2	14	10.9	
전체	35	100.0	23	100.0	71	100.0	129	100.0	

*: $p < .05$, **: $p < .01$, ***: $p < .001$

나. 개인적 특성

<표 18>은 학업형 집단과 비학업형 집단 간에 개인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개인적 특성으로는 자기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 충동, 생활만족도, 사회적 낙인감 등 심리 정서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자아탄력성, 우울, 생활만족도를 제외한 자기존중감, 충동성, 사회적 낙인감 등에서 일관되게 학업지속형 집단이 비학업 집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에서는 자기존중감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개인적 특성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1차년도(13)			2차년도(14)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자기존중감	학업전환형	148	2.99	0.65	4.568	2.93	0.53	1.956
	학업지속형	150	3.08	0.52	*	3.02	0.57	
	비학업형	301	2.92	0.49		2.92	0.52	
	합계	599	2.98	0.55		2.95	0.54	

자아탄력성	학업전환형	148	2.86	0.60	2.444	2.81	0.51	0.800
	학업지속형	150	2.93	0.56		2.84	0.56	
	비학업형	301	2.81	0.53		2.78	0.50	
	합계	599	2.85	0.56		2.80	0.52	
우울	학업전환형	148	2.08	0.59	1.368	2.02	0.58	2.156
	학업지속형	150	1.97	0.56		1.92	0.58	
	비학업형	301	2.04	0.59		2.03	0.56	
	합계	599	2.03	0.58		2.00	0.57	
충동성	학업전환형	148	1.92	0.59	7.266	1.90	0.60	7.933
	학업지속형	150	1.88	0.62	**	1.79	0.62	***
	비학업형	301	2.08	0.54		2.02	0.59	
	합계	599	1.99	0.58		1.93	0.61	
생활만족도	학업전환형	148				2.55	0.66	2.130
	학업지속형	150				2.69	0.64	
	비학업형	301				2.58	0.63	
	합계	599				2.60	0.64	
사회적 낙인감	학업전환형	148				2.09	0.48	11.444
	학업지속형	150				1.90	0.50	***
	비학업형	301				2.10	0.42	
	합계	599				2.05	0.46	

*: $p < .05$, **: $p < .01$, ***: $p < .001$

다. 환경적 특성

<표 19>는 학업형 집단과 비학업형 집단 간에 정서적 지원, 경제적 지원,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지역사회 유대감 등 환경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정서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에서 학업형과 비학업형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학업형이 비학업형보다 더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차년도 조사에서는 친구의 비행성향이 의미 있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새롭게 나타났다. 친구의 비행 성향이 학업형(전환형, 지속형)에서 크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학업 지속에는 가정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친구의 비행성향이 중요하게 관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9 환경적 특성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1차년도(13)			2차년도(14)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정서적지원	학업전환형	148	3.01	0.63	7.767	2.92	0.63	9.621
	학업지속형	150	3.17	0.58	***	3.20	0.59	***
	비학업형	301	2.90	0.75		2.93	0.69	
	합계	599	3.00	0.69		3.00	0.66	
경제적지원	학업전환형	148	3.10	0.68	11.077	2.89	0.73	17.465
	학업지속형	150	3.15	0.61	***	3.15	0.61	***
	비학업형	301	2.86	0.76		2.71	0.81	
	합계	599	2.99	0.72		2.86	0.77	
또래애착	학업전환형	148	3.05	0.67	2.509	3.08	0.59	0.091
	학업지속형	150	3.18	0.60		3.11	0.60	
	비학업형	301	3.17	0.59		3.11	0.60	
	합계	599	3.14	0.61		3.10	0.59	
친구의 비행성향	학업전환형	148	1.60	0.67	1.383	1.47	0.55	4.755
	학업지속형	150	1.58	0.58		1.51	0.57	**
	비학업형	301	1.68	0.64		1.64	0.64	
	합계	599	1.64	0.63		1.56	0.61	
지역사회 유대감	학업전환형	148	2.33	0.62	0.596	2.08	0.62	1.007
	학업지속형	150	2.30	0.68		2.14	0.66	
	비학업형	301	2.26	0.70		2.04	0.68	
	합계	599	2.29	0.68		2.08	0.66	

*: $p < .05$, **: $p < .01$, ***: $p < .001$

라. 생활경험

<표 20>은 학업형 집단과 비학업형 집단 간에 학업중단 이후 생활경험에서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여가활동, 게임중독, 가해경험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경험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학업형 청소년들이 비학업형보다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다.

한편 2차년도 조사에서는 게임중독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비학업형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경로 유형에 따라서 이후 삶과 생활 경험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0 **생활 경험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1차년도(13)			2차년도(14)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여가활동 (시간)	학업전환형	148	8.98	11.58	9.656 ***	6.41	8.11	11.847 ***
	학업지속형	150	8.19	10.10		6.70	9.01	
	비학업형	301	5.18	8.15		3.59	6.16	
	합계	599	6.87	9.73		5.07	7.60	
게임중독	학업전환형	148	1.38	0.60	7.243 **	1.31	0.51	2.015
	학업지속형	150	1.38	0.54		1.32	0.47	
	비학업형	301	1.58	0.71		1.40	0.53	
	합계	599	1.48	0.65		1.36	0.51	
문제행동 피해경험	학업전환형	148	0.04	0.26	2.177	0.27	0.96	1.635
	학업지속형	150	0.04	0.20		0.14	0.57	
	비학업형	301	0.09	0.34		0.16	0.56	
	합계	599	0.07	0.29		0.18	0.68	
문제행동 가해경험	학업전환형	148	1.34	1.64	17.594 ***	1.34	1.40	18.234 ***
	학업지속형	150	1.47	1.49		1.57	1.47	
	비학업형	301	2.19	1.70		2.18	1.57	
	합계	599	1.80	1.68		1.82	1.55	

*: $p < .05$, **: $p < .01$, ***: $p < .001$

마. 가치관

<표 21>은 학력주의와 낙관성에 대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1차년도에는 학력주의와 낙관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서는 낙관성에서만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학력주의의 경우 1차년도에는 학업지속형이 높았으나 2차년도에는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낙관성은 학업형이 비학업형에 비해서 높았으나 2차년도에는 특히 학업전환형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학업전환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낙관적 태도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21 가치관의 차이

변인	구분	사례수	1차년도(13)			2차년도(14)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학력주의	학업전환형	148	3.04	0.68	3.750	3.03	0.64	1.142
	학업지속형	150	3.18	0.57	*	2.98	0.64	
	비학업형	301	3.01	0.68		2.93	0.61	
	합계	599	3.06	0.66		2.97	0.63	
낙관성	학업전환형	148	3.21	0.70	17.239	3.16	0.60	10.964
	학업지속형	150	3.28	0.55	***	3.07	0.63	***
	비학업형	301	2.96	0.58		2.87	0.63	
	합계	599	3.10	0.62		2.98	0.64	

*: $p < .05$, **: $p < .01$, ***: $p < .001$

3. 학업형 경로 여부에 대한 변인들의 관련성

이 절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로 유형에 대해서 어떤 변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표 22>는 비학업형 유형에 대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전환형 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연령이 낮고, 일반고를 다녔고, 학습부적응 정도가 낮고,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낙관적 태도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비학업형보다는 학업전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연도에만 유의성이 나타난 변인이 존재한다. 특성화고는 1차년도에만 나타났다. 그러나 2차년도에도 계수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연도별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성화고 출신 청소년들도 중학생 출신 청소년보다 비학업형보다는 학업전환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의 지원은 1차년도에는 경제적 지원이 의미 있게 나타났으나 2차년도에는 정서적 지원이 나타났다. 한 가지 이채로운 점은 정서 지원이 높을수록 학업전환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과이다. 이 부분은 학업전환형이 학업지속형이나 비학업형보다도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문제행동 가해와 피해경험도 2차년도에 통계적 유의성이 새롭게 나타난 변인이다. 2차년도에 학업전환형 청소년들이 비학업형에 대비해볼 때 피해경험은 더 많고 가해경험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혼재→학업 경험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표 22 비학업형 대비 학업전환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변인	1차년도			2차년도		
	b	s.e		b	s.e	
절편	7.514	3.039	*	11.361	3.534	**
남학생	-0.387	0.269		-0.134	0.291	
연령	-0.560	0.142	***	-0.591	0.153	***
일반고	1.483	0.430	**	1.621	0.469	**
특성화고	0.904	0.441	*	0.891	0.474	
재학	0.476	0.348		0.264	0.353	
졸업	-0.170	0.580		1.059	0.707	
성적	0.103	0.085		0.071	0.089	
경제수준	-0.013	0.116		-0.058	0.127	
부모학력 ^a	-0.506	0.662		-0.379	0.673	
부모학력 ^b	0.026	0.045		-0.002	0.046	
교사관계	0.206	0.158		0.212	0.170	
친구관계	0.038	0.193		-0.045	0.197	
학습부적응	-0.433	0.196	*	-0.551	0.211	**
규율엄격	-0.006	0.160		0.102	0.170	
활동활발	-0.005	0.176		0.135	0.188	
규범위반	-0.194	0.143		-0.179	0.145	
자아존중	-0.057	0.311		-0.517	0.340	
자아탄력	0.023	0.282		-0.014	0.312	
우울	0.382	0.277		0.002	0.290	
충동성	-0.241	0.262		-0.053	0.261	
정서지원	-0.253	0.224		-0.605	0.244	*
경제지원	0.471	0.225	*	0.241	0.218	
또래애착	-0.446	0.229		0.024	0.242	
친구폭력	0.230	0.212		-0.335	0.234	
지역사회	0.139	0.187		-0.057	0.199	
여가	0.033	0.013	**	0.050	0.017	**
게임중독	-0.129	0.212		0.075	0.274	
피해경험	-0.323	0.434		0.485	0.183	**
가해경험	-0.099	0.093		-0.320	0.106	**
학력주의	0.127	0.195		0.174	0.212	
낙관성	0.576	0.235	*	0.630	0.257	*
Pseudo R ² (Cox&Snell)	.320			.371		

*: $p < .05$, **: $p < .01$, ***: $p < .001$

<표 23>은 비학업형 유형에 대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지속형 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학업중단 학교가 중학교이고, 현재 재학 중일수록 비학업형보다는 학업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학업지속형 청소년들은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이나 다른 관점을 지니고 일찍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각 연도에만 유의성이 있는 변인이 나타나는데, 1차년도에는 학력주의와 낙관성이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경제적 지원 변인이 2차년도에 새롭게 나타났다.

이는 비학업형 청소년의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력주의나 낙관적 태도의 측면이 학업지속형 수준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정의 경제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표 23 비학업형 대비 학업지속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변인	1차년도		2차년도	
	b	s.e	b	s.e
절편	-7.624	3.067 *	-9.176	3.577 *
남학생	0.369	0.271	0.262	0.333
연령	0.211	0.133	0.294	0.150
일반고	-0.987	0.348 **	-1.439	0.392 ***
특성화고	-1.218	0.359 **	-1.642	0.399 ***
재학	1.232	0.341 ***	1.277	0.352 ***
졸업	-0.442	0.616	0.626	0.890
성적	0.156	0.085	0.168	0.101
경제수준	0.083	0.113	-0.078	0.135
부모학력 ^a	0.023	0.687	-0.094	0.810
부모학력 ^b	0.034	0.045	0.034	0.053
교사관계	-0.109	0.153	-0.100	0.175
친구관계	-0.148	0.180	-0.196	0.195
학습부적응	-0.250	0.187	-0.165	0.226
규율엄격	-0.167	0.156	-0.095	0.180
활동활발	-0.227	0.173	-0.281	0.199
규범위반	-0.179	0.141	-0.148	0.156

자아존중	0.108	0.311	0.195	0.368
자아탄력	-0.124	0.275	0.025	0.336
우울	0.115	0.278	0.223	0.322
충동성	-0.099	0.258	-0.156	0.276
정서지원	0.228	0.219	0.387	0.274
경제지원	0.232	0.214	0.561	0.237 *
또래애착	-0.085	0.224	0.072	0.262
친구폭력	0.317	0.217	-0.112	0.244
지역사회	-0.022	0.177	0.125	0.202
여가	0.018	0.013	0.031	0.018
게임중독	-0.395	0.215	0.211	0.281
피해경험	-0.768	0.509	-0.104	0.241
가해경험	-0.115	0.087	-0.163	0.107
학력주의	0.622	0.191 **	0.320	0.217
낙관성	0.665	0.235 **	0.106	0.277
Pseudo R ² (Cox&Snell)	.320		.371	

*: $p < .05$, **: $p < .01$, ***: $p < .001$

그 다음에 제시된 <표 24>는 학업전환형 유형에 대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지속형 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는 남학생이고, 연령이 높고, 학업중단 학교가 중학교이고, 현재 재학 중일수록 학업전환형보다는 학업지속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표 23>의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학업지속형 청소년들은 공교육에 대한 부적응이나 다른 관점을 지니고 일찍부터 새로운 대안을 찾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각 연도에만 유의성이 나타난 변인이 존재한다. 1차년도에는 학력주의가 의미 있는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차년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에 정서적 지원 변인과 문제행동 피해경험 변인이 2차년도에 새롭게 나타났다.

이는 학업전환형 청소년의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력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이 학업지속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학업전환형 청소년들에게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서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며 문제행동 피해경험이 높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학업전환형 청소년들의 학업전환이 학업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때문이 아닌 다른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으며, 학업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표 24 학업전환형 대비 학업지속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변인	1차년도			2차년도		
	b	s.e		b	s.e	
절편	-15.139	3.426	***	-20.538	4.183	***
남학생	0.756	0.300	*	0.396	0.370	
연령	0.771	0.154	***	0.885	0.179	***
일반고	-2.470	0.445	***	-3.060	0.517	***
특성화고	-2.122	0.469	***	-2.533	0.533	***
재학	0.756	0.355	*	1.013	0.385	**
졸업	-0.272	0.719		-0.433	0.960	
성적	0.052	0.095		0.097	0.113	
경제수준	0.096	0.129		-0.019	0.154	
부모학력 ^a	0.529	0.784		0.285	0.909	
부모학력 ^b	0.009	0.051		0.036	0.060	
교사관계	-0.315	0.175		-0.312	0.203	
친구관계	-0.186	0.203		-0.152	0.224	
학습부적응	0.183	0.218		0.386	0.263	
규율엄격	-0.160	0.177		-0.197	0.209	
활동활발	-0.222	0.191		-0.416	0.225	
규범위반	0.015	0.166		0.031	0.183	
자아존중	0.164	0.338		0.712	0.410	
자아탄력	-0.148	0.310		0.039	0.373	
우울	-0.267	0.314		0.222	0.358	
충동성	0.141	0.292		-0.103	0.322	
정서지원	0.481	0.253		0.993	0.312	**
경제지원	-0.240	0.253		0.320	0.277	
또래애착	0.361	0.242		0.048	0.294	
친구폭력	0.087	0.241		0.223	0.291	
지역사회	-0.162	0.203		0.182	0.235	
여가	-0.015	0.014		-0.019	0.019	
게임중독	-0.266	0.257		0.136	0.327	
피해경험	-0.445	0.582		-0.589	0.248	*
가해경험	-0.016	0.105		0.157	0.131	
학력주의	0.495	0.220	*	0.146	0.252	
낙관성	0.089	0.265		-0.524	0.319	
Pseudo R ² (Cox&Snell)	.320			.371		

*. p < .05, **. p < .01, ***: p < .001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 중 학업을 지속하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업전환형, 학업지속형, 비학업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 간에 학업중단 이전 학교경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학업중단 이후 생활 경험과 가치 인식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들 유형에 속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요인들이 관련되는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전반적으로 학업지속형 청소년이 학업전환형과 비학업형과 비교해볼 때 검토한 여러 변인에서 긍정적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학업전환형은 비학업형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이들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학습부적응, 부모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여가활동, 문제행동 가해 및 피해경험, 낙관성 등이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적 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수준이고 적절한 지원을 받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심리적 변인, 학교 경험 변인 등 학업중단 이후 경로 과정에서 관련 변인들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특이할만하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시 학업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이들 요인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분석 대상 자체가 학업중단 청소년들로 유사한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수 있으며, 또한 다른 변수들 간의 관련성이 높아서 서로 매개 현상들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변인들이 모든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어떤 유형에는 의미 있게 관련되지만, 어떤 유형에는 별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학업전환형이 정서적 지원과 문제행동 피해경험에서 민감하게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학업전환형 청소년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학업으로 복귀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에는 다른 유형 청소년에 비해서 정서적 지원이 부족하며 문제행동 피해경험이 높았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관적 응답에서는 학업중단 시 목표 실현 이유로 학업중단 시기가 뚜렷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중요하다는 응답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점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시 학업 경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어떤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학업형 청소년들은 비록 학업중단 상태이기는 하지만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서 이전 학교경험, 개인적 특성, 환경적 특성, 경험과 가치, 인식 등에서 좀 더 긍정적인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업전환형의 경우는 독특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긍정적 측면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양한 형태의 학업에 다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 유형의 특성에 맞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점을 좀 더 구체화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 경로 유형 집단 간 차이를 세밀하게 탐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교육통계분석자료집-유·초·중등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 김상현·양정호(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영희·허철수(2012). 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1991년-2011년. 상담학연구, 13(2):1013-1028.
- 오혜영·지승희·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125-154.
- 윤여각·박창남·전병유·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류방란·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41-64.
- 이숙영·남상인(1997).
- 이자영·강석영·김한주·이유영·양은주(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홍나미·신문희·박은혜·박지현(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 홍임숙(2004).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세계: 학교중퇴자에 대한 사례연구. 서강대

발표 2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직업경험, 제 특성 변화 양상

김 강 호

(한국고용정보원 생애진로개발센터 연구위원)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직업경험, 제 특성 변화 양상

I. 서론

매년 6~7만 명이 학교를 떠나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은 약 28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김선아(2010)의 연구에 의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58.5% 가량이 배회·은둔 등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으로 전락하나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국가적 지원정책과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미시적 개입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 파악과 그들의 학업복귀 및 자립을 위한 지원 폭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형태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기관과 시설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치료와 학업복귀 혹은 취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혜택을 받는 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원인에는 대다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NEET 상태에 있고 자신의 신분을 외부에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려한다는 점 때문이다(김강호 외, 2013).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중에는 자립을 위한 취업지원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것 또한 개선할 점이다.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이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영역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부 진로지도와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심리검사나 상담, 혹은 진로탐색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수준에서 체계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자립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두드림·해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두드림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해 직업체험을 비롯하여 자격취득 지원, 직업훈련 연계, 취업 및 인턴십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취업사관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직업훈련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진로·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취업알선을 통해 구직기술 습득과 성공적인 취업을 밀착하여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캐나다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취업을 돕는 '숙련도 제고'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그들의 취업지원에 할애하고 있고, 호주의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현황파악, 멘토링, 서비스 알선, 개별지도 등 4단계로 이뤄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를 떠난 이후 한동안 방황 기간을 거치다가 방황이 길어질수록 비행에 연루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된다(금명자, 2008). 따라서 NEET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그들의 진로를 조기에 결정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들의 진로개발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경로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하나로 취업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취업지원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두드림·해밀 사업을 통해 취업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취업지원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의 은둔적 특성으로 인해 전국의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최근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에 근거하여 올해 말까지 전국 200여개의 꿈드림 센터를 운영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다양한 경험들을 겪는 가운데 아르바이트나 취업(준비) 경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일 경험과 개인 및 환경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를 통해 조사한 1, 2차년 자료를 활용하여 '직업지향형 청소년' 표본의 관련 변인 자료를 분석하였다.

II. 분석자료

1.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2013년(1차 조사)부터 2014년(2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 중 학업지향형으로 분류된 청소년 98명에 대한 자료이다. 개인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3명(54.1%), 여성이 45명(45.9%)였고, 연령대는 16~20세까지 분포되어 있었고 중위(median) 연령은 18세(평균연령 18.22세)였다. 최초 학업중단 학교급은 특성화고가 45명(4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고 39명(39.8%), 중학교 11명(11.2%), 자율고 3명(3.1%) 순이었다. 학교 소재지역으로는 대도시가 47명(48.0%), 중소도시가 43명(43.9%), 읍·면·리 지역은 8명(8.2%)이었다.

최초로 학교를 그만 두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것 1순위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가 28명(2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가 20명(20.4%)이었다. 그러나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라는 응답은 5명(5.1%)에 그쳤다. 2014년 7월 기준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아직 정규 중·고교를 다니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이 7명, 복학하여 정규고교를 졸업한 상태인 청소년이 3명 있었고, 정규 중·고교를 그만둔 상태인 청소년은 82명(83.7%)이었다. 또한 중규 중·고교를 그만둔 상태인 청소년은 중 42명은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40명은 고졸 자격 취득 없이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이었다. 한편 1차 조사 이후 2차 조사 사이에 복학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명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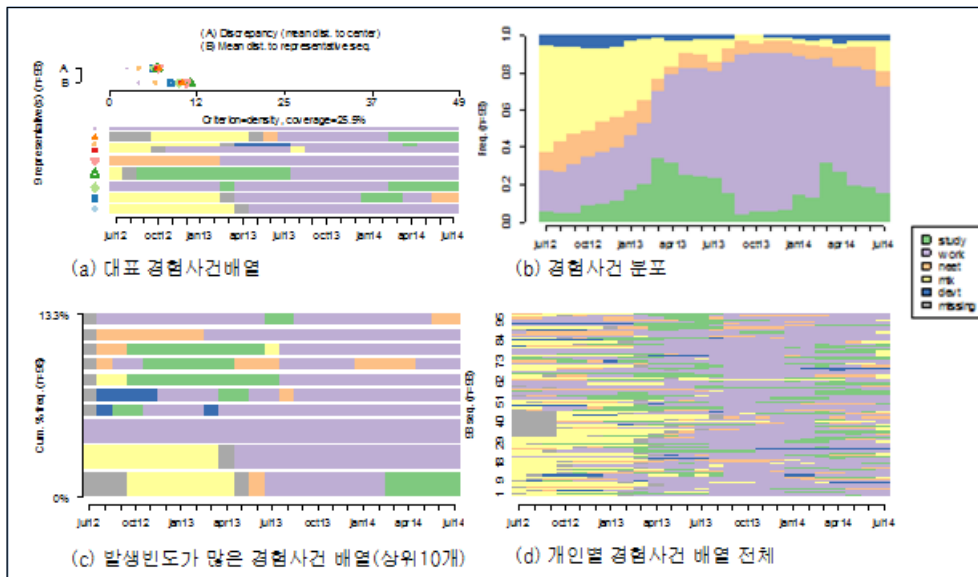
표 1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반적 특징

구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성별	남성	53	54.1
	여성	45	45.9
연령		18.22	0.831

구분		빈도/ 평균	%/ 표준편차	
최초 학업중단 학교급	중학교	11	11.2	
	일반고	39	39.8	
	특성화고	45	45.9	
	자율고	3	3.1	
최초 학업중단 학교소재지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47	48.0	
	중소도시(시.군.구.동)	43	43.9	
	읍.면.리 지역	8	8.2	
최초 학업중단 시 가장 하고 싶었던 것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다	20	20.4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빨리 얻고 싶었다	14	14.3	
	돈을 많이 벌고 싶었다	28	28.6	
	원하는 분야의 기술을 빨리 배워 사회에 진출하고 싶었다.	5	5.1	
	실컷 놀고 싶었다	14	14.3	
	별다른 계획이 없었다	9	9.2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싶었다	2	2.0	
	전학가고 싶었다	2	2.0	
	대학진학을 유리하게 하고 싶었다	1	1.0	
	전문심리상담 또는 진로상담을 받고 싶었다	1	1.0	
	기타	2	2.0	
현재 상태 (‘14.7 기준)	①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상태		82	83.7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	40	48.8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였다	42	51.2
	②정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상태		7	7.1
	③정규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태		3	3.1
	④기타	대학에 다니고 있음	3	3.1
		대학에 다니고 있음(검정고시 취득)	1	1.0
		대학에 다니고 있음(침례신학대학)(검정고시 취득)	1	1.0
		대학에 다니고 있음(한국IT직업전문학교 1학년)	1	1.0
복학 경험 여부 및 복학 학교유형	복학한 경험이 없다		90	91.8
	복학한 경험이 있다		8	8.2
		일반고	2	25.0
		특성화고	5	62.5
		기타	1	12.5
계		98	100.0	

2.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경험사건 특성

시계열에 따른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경험사건들을 보면 1-2차 조사 기간('12.7-'14.7) 직업형 경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관측대상 직업지향형 청소년들의 경험사건 배열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사건배열(c)을 보면 조사기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직업형 사건만을 경험한 청소년도 있고, 혼재형 또는 무업과 학업을 거친 후 직업형 경험을 하는 청소년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경험사건 배열은 일련의 경험사건에 대한 거리를 기준으로 군집화되어 배열된 것이기 때문에 조사완료시점('14.7)에서는 직업형 사건에서 탈출한 경우도 발생한다. 발생빈도가 많은 사건배열(c)과 개인별 경험사건배열(d)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사 완료시점에서는 무업형 혹은 학업, 때로는 혼재형이나 비행형 사건경험을 겪고 있는 청소년도 있다.



[그림 1]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험사건 배열

III. 분석결과

1. 일 경험과 진로계획

가. 일 경험 특성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1차년도에 비해 일(아르바이트)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 조사 시기에는 일(아르바이트) 경험 중인 청소년이 49%였으나, 2차년도에서는 65.3%로 16.3%p 증가하였다.

표 2 직업지향형 청소년들의 일(아르바이트) 경험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	빈도	%
예	48	49.0	64	65.3
아니오	50	51.0	34	34.7
계	98	100.0	98	100.0

2차년도 조사 시기에 일(아르바이트)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근로상 지위를 살펴보면 시간제 근로가 가장 많은 43.8%로 나타나 일반적인 직장에 취업해 근로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 중심의 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임시직 근로도 상대적으로 많은 23.4%였으나, 정규직 근로는 9.4%에 그쳤다.

표 3 일(아르바이트) 경험 직업지향형 청소년들의 근로상 지위

구분	빈도	%
시간제 근로자(시간 당 임금을 받는 경우)	28	43.8
일용직(하루씩 고용되어 일당을 받는 경우)	5	7.8
임시직(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15	23.4
계약직(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9	14.1
정규직(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6	9.4
잘 모르겠음	1	1.6
계	64	100.0

주된 일자리 유형으로 보면 주로 서빙이나 배달 중심의 일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업종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 역시 안정적인 취업으로의 이행보다는 불안정한 일시적 일자리로의 이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주된 일자리 유형

구분	빈도	%
분식점, 중국집 등에서 서빙/카운터/배달	12	18.8
피자, 치킨 등 패스트푸드점 서빙/카운터/배달	7	10.9
일반상점 판매원	6	9.4
공장노동	5	7.8
24시간 편의점 점원	4	6.3
식당, 출장 뷔페 등 요리사	4	6.3
노래방 카운터 및 서빙	2	3.1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빠끼), 서빙 및 접대	2	3.1
마트 등 주차, 안내요원	2	3.1
콜센터 안내직원	2	3.1
일반 사무직	2	3.1
카페(커피숍) 및 주점 서빙	1	1.6
게임방 카운터 및 서빙	1	1.6
건설현장 노동	1	1.6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	1.6
퀵서비스 배달	1	1.6
택배기사	1	1.6
오토바이, 자동차 등 정비 엔지니어	1	1.6
패션, 광고 모델	1	1.6
기타	8	12.5
계	64	100.0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1주일에 평균 5일, 하루 평균 8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일부 청소년의 경우에는 최대 7일을 근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시간당 임금은 최대 17,800원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1,300원을 받는 경우도 나타나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5,839원으로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5 주된 일(아르바이트)의 근로시간 및 임금

	N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주당 근로일수	64	2	7	5.2	1.15
하루 근로시간	64	4	13	8.5	2.43
시간당 임금	64	1,300	17,800	5,839.7	2,141.79

나. 진로계획과 진로장애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계획을 살펴보면 1차년도 조사 시점에서는 미결정 상태이거나 검정고시 준비(22.4%)가 가장 많았지만, 2차년도에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청소년들이 2차년도에서는 6.1% 정도에 그친 반면에 취업이나 창업을 계획하는 청소년이 20.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아울러 정규학교로 복학하겠다는 청소년도 32.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에 상당 비율이 학업을 지속하거나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계획으로 전향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직업지향형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3명 중 1명은 정규학교를 통해 학업을 지속할 계획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는 학업중단 이후 일경험이 많더라도 이러한 경험들이 취업준비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경제적 문제 해소에 그친다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계획 달성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서는 1차년도 경우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응답(그렇다, 매우 그렇다)이 92.1%였고, 2차년도 조사에서는 92.6%로 거의 비슷한 결과값을 나타냈다. 기대하는 교육수준 역시 1차년도 조사 때와 2차년도 조사의 분포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6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계획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빈도	%	빈도	%
향후 진로 계획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임		22	22.4	17	17.3
	진학 학업	정규학교로 복학(대학 진학 포함)	16	16.3	32	32.7
		대안학교 진학	1	1.0		
		해외 유학	1	1.0	1	1.0
		검정고시 준비	22	22.4	6	6.1
	취업	진학하지 않고 취업(창업)할 예정임	14	14.3	20	20.4
		취업 혹은 창업을 대비한 직업교육훈련	11	11.2	8	8.2
	취업과 진학 병행(방송통신고 등)		3	3.1	5	5.1
	시간제 근로나 아르바이트		5	5.1	8	8.2
	당분간 무보수로 가업 도움		3	3.1	1	1.0
	계		98	100.0	98	100.0
진로 계획 달성 예측	①전혀 그렇지 않다		1	1.3		
	②그렇지 않다		5	6.6	6	7.4
	③그렇다		47	61.8	51	63.0
	④매우 그렇다		23	30.3	24	29.6
	계		76	100.0	81	100.0
교육 기대 수준	중졸		2	2.0	2	2.0
	고졸		41	41.8	40	40.8
	초대졸(2-3년제)		15	15.3	14	14.3
	대졸(4년제)		34	34.7	34	34.7
	대학원 졸(석사 및 박사)		6	6.1	8	8.2
	계		98	100.0	98	100.0

한편 진로장애 정도를 살펴보면 평균 2.16(표준편차 0.546)²⁾로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리 크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애는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회 또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되어 진로준비를 하기 어려운

2) 진로장애 문항은 모두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은 그렇지 않다, 2는 그렇지 않다, 3은 그렇다, 4는 매우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다. 해당 문항들은 ‘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다’와 같이 진로 또는 직업관련 정보 탐색이 어렵다는 문항들과 ‘시대의 변화가 나의 진로에 대한 선택과 계획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나를 뒷받침해 줄 수 없다’ 등과 같이 사회적 환경이나 가정문제로 인해 진로준비가 어렵다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경우를 나타낸다. 진로장애와 관련한 변수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설명변수로는 개인적 심리·정서적 변수와 부모나 친구관계 변수이다. 이외에 연령과 성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로 투입된 변수 중 Δ 이 표시된 변수는 1, 2차 조사 간의 점수 차이로 해당 특성변수의 변화 값이다. 분석은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과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만의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장애는 또래비행, 학력에 대한 인식, 미래에 대한 인식, 우울이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비행이 많을수록, 사회생활에 학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적을수록, 우울감이 높을수록 진로장애가 많았다. 반면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 또래비행, 미래에 대한 인식, 자아탄력성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래 비행과 미래에 대한 인식은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과 동일한 방향성을 나타냈으나 그 크기는 좀 더 컸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은 그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장애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진로장애 관련 변인**

구분	직업지향형			전체		
	계수	표준 오차	p	계수	표준 오차	p
Δ 연령	2.053	0.094	0.000	2.172	0.036	0.000
Δ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0.126	0.126	0.320	-0.078	0.049	0.112
Δ 부모방임	-0.015	0.141	0.913	0.052	0.053	0.327
Δ 부모학대	-0.016	0.102	0.876	-0.056	0.037	0.134
Δ 부모애착	0.066	0.107	0.538	0.032	0.048	0.512
Δ 또래애착	-0.178	0.131	0.181	0.016	0.042	0.703
Δ 또래비행	-0.232	0.111	0.041	-0.089	0.037	0.018
Δ 학력에 대한 인식	0.163	0.100	0.109	0.093	0.036	0.011
Δ 미래에 대한 인식	-0.310	0.120	0.012	-0.128	0.045	0.005
Δ 자아존중감	0.190	0.125	0.133	-0.061	0.057	0.283
Δ 자아탄력성	-0.280	0.134	0.041	-0.045	0.056	0.426
Δ 우울	0.090	0.166	0.591	0.114	0.055	0.039
Δ 충동성	0.004	0.142	0.977	0.002	0.048	0.964
Δ 친한 친구의 수	0.004	0.009	0.691	0.005	0.003	0.082
Δ 학업중단 친구 수	-0.007	0.022	0.736	-0.011	0.007	0.148
Δ 경제적 수준	0.011	0.069	0.878	-0.017	0.028	0.551
여성	0.125	0.128	0.332	0.077	0.052	0.145
N	81			370		

다. 자립지원 요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9가지 항목 중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내용은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3.19)이었고, 다음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3.0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3.03)’,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3.01) 순으로 높은 요구수준을 보였다.

표 8 자립지원 요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목표의식을 갖기 위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2.67	.894
2)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2.80	.824
3) 지속적인 관심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성인안내자의 도움	2.81	.808
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	3.03	.805
5)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	3.19	.727
6)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	3.04	.811
7) 취업 및 대학진학과 관련한 진로지도 강화	2.99	.831
8)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등의 사회관계훈련 제공	2.91	.874
9) 저축, 돈관리 등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과 체험	3.01	.780

주) 응답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그렇다), 4(매우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필요 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은 취업준비와 관련한 요구가 높았는데, 특히 취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세 가지의 요구(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 직업기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진로탐색 프로그램)가 어떤 특성변수들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주요 변수로 개인적 심리·정서적 변수와 부모나 친구관계 변수와 함께, 진로장애를 추가로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취업과 연계된 학업준비 지원에 대해서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충동성이 낮을수록 지원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충동성만이 취업과 연계된 학업준비 요구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표 9 자립 지원 요구: 취업과 연계된 학업준비

구분	직업지향형			전체		
	계수	표준오차	p	계수	표준오차	p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0.178	0.178	0.321	0.033	0.074	0.654
△부모방임	0.012	0.197	0.952	0.019	0.080	0.809
△부모학대	-0.082	0.143	0.570	0.002	0.057	0.966
△부모애착	0.092	0.150	0.542	0.027	0.073	0.709
△또래애착	0.209	0.187	0.269	0.065	0.064	0.309
△또래비행	0.192	0.161	0.236	0.016	0.057	0.781
△학력에 대한 인식	0.236	0.143	0.105	0.081	0.055	0.145
△미래에 대한 인식	-0.088	0.176	0.619	0.124	0.068	0.069
△자아존중감	-0.190	0.178	0.290	0.090	0.086	0.293
△자아탄력성	0.463	0.194	0.020	-0.105	0.085	0.215
△우울	0.250	0.234	0.289	0.123	0.084	0.143
△충동성	-0.564	0.199	0.006	-0.257	0.072	0.000
△친한 친구의 수	-0.003	0.013	0.796	-0.001	0.005	0.835
△학업중단 친구 수	0.017	0.031	0.583	0.001	0.011	0.893
△경제적 수준	-0.040	0.097	0.680	-0.021	0.043	0.614
여성	-0.094	0.181	0.605	0.026	0.079	0.740
진로장애	0.239	0.175	0.178	0.129	0.080	0.108
△연령	2.589	0.383	0.000	2.700	0.182	0.000
N	81			370		

직업기술 및 자격증 취득교육에 대한 요구에서는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경우 또래비행이 많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적을수록, 진로장애가 많을수록 지원요구가 높았다. 반면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낮을수록 지원요구가 높았다.

표 10 자립 지원 요구: 직업기술 및 자격증 취득 교육

구분	직업지향형			전체		
	계수	표준오차	p	계수	표준오차	p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0.109	0.164	0.510	0.053	0.074	0.474
△부모방임	0.121	0.182	0.509	-0.002	0.079	0.983
△부모학대	-0.091	0.132	0.493	0.048	0.056	0.391
△부모애착	0.027	0.139	0.845	-0.081	0.072	0.264
△또래애착	0.261	0.173	0.136	0.069	0.064	0.281
△또래비행	0.372	0.149	0.015	0.038	0.057	0.498
△학력에 대한 인식	0.102	0.133	0.443	0.117	0.055	0.034
△미래에 대한 인식	0.004	0.163	0.980	0.101	0.068	0.138
△자아존중감	-0.138	0.164	0.405	0.234	0.086	0.007
△자아탄력성	0.387	0.180	0.035	-0.088	0.084	0.298
△우울	-0.123	0.216	0.570	0.015	0.083	0.853
△충동성	-0.373	0.184	0.047	-0.226	0.072	0.002
△친한 친구의 수	-0.001	0.012	0.929	0.002	0.005	0.736
△학업중단 친구 수	0.011	0.028	0.700	0.001	0.011	0.896
△경제적 수준	0.042	0.089	0.636	-0.018	0.042	0.670
여성	-0.269	0.167	0.113	0.001	0.079	0.994
진로장애	0.478	0.162	0.004	0.133	0.080	0.097
△연령	2.294	0.354	0.000	2.810	0.182	0.000
N	81			370		

직업체험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의 경우 직업지향형 청소년의 경우 학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적을수록 지원요구가 높았으나,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학력에 대한 인식,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충동성이 낮을수록 지원요구가 높았다.

표 11 자립 지원 요구: 직업체험을 위한 진로탐색프로그램 제공

구분	직업지향형			전체		
	계수	표준오차	p	계수	표준오차	p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0.107	0.165	0.518	-0.041	0.076	0.593
△부모방임	-0.171	0.183	0.355	-0.019	0.082	0.812
△부모학대	0.161	0.133	0.230	0.037	0.058	0.519
△부모애착	0.208	0.140	0.142	0.022	0.074	0.770
△또래애착	0.312	0.174	0.077	0.115	0.066	0.081
△또래비행	0.166	0.150	0.272	0.034	0.058	0.556
△학력에 대한 인식	0.298	0.133	0.029	0.117	0.057	0.040
△미래에 대한 인식	-0.103	0.164	0.531	0.120	0.070	0.086
△자아존중감	0.102	0.165	0.540	0.202	0.088	0.022
△자아탄력성	0.226	0.181	0.215	-0.181	0.087	0.038
△우울	0.166	0.217	0.447	0.073	0.086	0.394
△충동성	-0.613	0.185	0.002	-0.296	0.074	0.000
△친한 친구의 수	0.002	0.012	0.865	0.000	0.005	0.981
△학업중단 친구 수	-0.007	0.028	0.807	0.002	0.011	0.874
△경제적 수준	0.009	0.090	0.918	-0.035	0.044	0.429
여성	-0.152	0.168	0.369	0.136	0.081	0.095
진로장애	0.287	0.163	0.083	0.146	0.082	0.076
△연령	2.556	0.356	0.000	2.633	0.187	0.000
N	81			370		

2. 개인 및 환경 특성변화

가. 심리·정서 특성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우울, 충동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은 1차년도 조사에 비해 2차년도에서는 낮아진 특성이 나타났다. 또한 우울과 충동성은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시기가 늘어나면서 긍정적 심리변화보다는 부정적 심리변화가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심리·정서 특성변화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대응표본-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3.035	0.502	2.976	0.596	.952	.343
우울	1.933	0.572	1.996	0.559	-1.112	.269
충동성	1.949	0.556	1.982	0.661	-.459	.647

나. 부모 및 친구 관계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 및 친구관계 변화를 살펴보면, 부모애착은 유의수준 10%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방임과 학대는 1, 2차년도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방임수준은 높아졌고, 학대수준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1, 2차년도 점수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또래애착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낮아졌고, 친구의 비행성향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친구관계도 부정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표 13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 및 친구관계 변화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대응표본-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부모애착	2.881	.697	2.748	.721	1.963	.052
부모방임	1.889	.642	2.002	.605	-1.671	.098
부모학대	1.686	.756	1.653	.782	.387	.700
또래애착	3.238	.584	3.193	.614	.724	.471
친구의 비행성향	1.547	.584	1.571	.647	-.311	.756

다. 가치관

가치관 관련 변수로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사실에 대해 은폐하는 성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문항은 6개 문항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아 취급을 하는 것 같다' 등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³⁾.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은 1, 2차년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평균값이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늘어나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대한 인식은 학업중단 청소년이 인식하기에 사회나 노동시장 전반에서 학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학력에 대한 인식 역시 1, 2차년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평균값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서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학력주의 사회로 보는 시각이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인식은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보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낸다. 유의수준 10%에서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그 값이 낮아져,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는 2차년도 조사에서만 수집된 자료이다. 먼저 사회에 대한 인식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인식하기에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생각, 예를 들어 사회가 나를 부정적 혹은 열등하게 본다거나 차별적인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강함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평균 2.066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사회가 자신을 차별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 현재 나의 삶이 즐겁거나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는 평균 2.575로 만족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3) 긍정적 문항이 2개 포함되 있는데, '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 '내가 일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였다'라는 문항이 있다. 이들 문항은 모두 역코딩하여 분석하였다.

4) '삶의 만족도'와 '사회에 대한 인식'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1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2는 그렇지 않다, 3은 그렇다. 4는 매우 그렇다이다.

표 14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대응표본-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2.168	.542	2.154	.530	.230	.819
학력에 대한 인식	2.915	.646	2.891	.587	.330	.742
미래에 대한 인식	3.125	.529	2.996	.662	1.983	.050
사회에 대한 인식			2.066	.452		
삶의 만족도			2.575	.642		

사회인식에 대한 특성변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로는 개인적 심리·정서적 변수와 부모나 친구관계 변수이다. 이외에 연령과 성별, 진로장애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과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각각 실시하였다.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부모애착, 충동성, 진로장애 변수가 사회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적어지는 반면 충동성이 높고 진로장애가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충동성과 진로장애가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과 같은 방향성을 나타냈지만, 부모애착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사회인식 관련 변인

구분	직업지향형			전체		
	계수	표준오차	p	계수	표준오차	p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0.099	0.100	0.323	0.006	0.041	0.884
△부모방임	-0.158	0.110	0.158	-0.022	0.044	0.613
△부모학대	0.033	0.080	0.683	-0.032	0.031	0.302
△부모애착	0.046	0.084	0.586	-0.114	0.040	0.005
△또래애착	-0.110	0.105	0.297	-0.010	0.035	0.767
△또래비행	-0.066	0.090	0.470	0.015	0.031	0.643
△학력에 대한 인식	0.133	0.080	0.104	0.053	0.030	0.081
△미래에 대한 인식	-0.037	0.099	0.708	-0.049	0.038	0.190
△자아존중감	0.044	0.100	0.662	0.004	0.047	0.939
△자아탄력성	-0.140	0.109	0.203	-0.055	0.047	0.237
△우울	-0.072	0.131	0.583	-0.007	0.046	0.875
△충동성	0.261	0.111	0.022	0.104	0.040	0.009
△친한 친구의 수	-0.005	0.007	0.518	0.000	0.003	0.881
△학업중단 친구 수	-0.001	0.017	0.945	0.000	0.006	0.964

△경제적 수준	0.084	0.054	0.128	0.019	0.023	0.429
진로장애	0.197	0.098	0.049	0.340	0.044	0.000
여성	0.097	0.101	0.340	0.033	0.044	0.452
△연령	1.636	0.215	0.000	1.309	0.101	0.000
N	81			370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는 사회에 대한 인식에 사용한 변수와 동일하나, 그 외에 사회에 대한 인식 변수를 추가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진로장애와 사회인식이 삶의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애가 적을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과 진로장애가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장애의 경우 방향성과 크기 모두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삶의 만족도 관련 변인

구분	직업지향형			전체		
	계수	표준오차	p	계수	표준오차	p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0.087	0.133	0.513	-0.015	0.055	0.780
△부모방임	0.194	0.149	0.196	0.017	0.059	0.779
△부모학대	-0.012	0.106	0.911	-0.029	0.042	0.491
△부모애착	0.081	0.112	0.471	0.107	0.054	0.051
△또래애착	-0.086	0.140	0.541	-0.003	0.047	0.942
△또래비행	0.068	0.120	0.574	-0.018	0.042	0.664
△학력에 대한 인식	0.042	0.109	0.698	-0.010	0.041	0.799
△미래에 대한 인식	-0.111	0.131	0.401	0.045	0.051	0.374
△자아존중감	0.118	0.132	0.374	-0.036	0.064	0.568
△자아탄력성	0.341	0.146	0.023	0.111	0.063	0.080
△우울	-0.295	0.174	0.096	-0.099	0.062	0.113
△충동성	-0.013	0.154	0.934	-0.020	0.054	0.716
△친한 친구의 수	-0.009	0.009	0.363	0.002	0.003	0.470
△학업중단 친구 수	0.019	0.023	0.408	0.007	0.008	0.392
△경제적 수준	-0.048	0.073	0.517	-0.038	0.032	0.230
여성	-0.102	0.135	0.453	-0.051	0.059	0.388
진로장애	-0.326	0.134	0.018	-0.333	0.064	0.000
사회인식	-0.175	0.167	0.297	-0.396	0.072	0.000
△연령	3.676	0.394	0.000	4.176	0.164	0.000
N	81			370		

IV. 요약 및 시사점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 일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사건을 많이 겪은, 즉 학업중단 이후 직업지향적 경험 성향이 많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들의 일 경험 특성과 심리·정서적 특성, 그리고 부모 및 친구관계 특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일 경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아지지만, 근로여건이나 종사상 지위는 좋지 않았다. 주로 아르바이트로 보여지는 시간제 일자리 경험을 하고 있었고,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일자리의 유형을 보면 주로 서빙이나 배달이 많아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하는 청소년은 극히 일부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진로계획에서는 막연히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는 청소년들이 크게 줄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는 특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규학교로 복학하겠다는 청소년도 증가한 특징도 나타났다. 직업지향형 청소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지향하게 된 점은 학업중단 후 일 경험이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에 자극제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정규학교로 복학하겠다는 청소년도 많아진 점은 이들 청소년들도 사회에서의 학력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학업중단 후 경험한 일자리가 낮은 학력에 따른 차별과 불공정을 경험하게 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최소 고졸 이상의 교육기대수준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나타냈다.

그러나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거나 관련 정보나 도움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진로장애 수준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진로나 직업관련 정보나 자료를 탐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사회나 가정 환경도 진로에 어려움을 크게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긍정적인 해석을 내린다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 관련 정책이나 사업이 활발해졌고, 이로 인해 진로관련 지원도 크게 늘어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해석을 내린다면 기존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비정제된 진로정보를 탐색하여 신뢰성이 낮은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 그리고 부모나 사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자신의 진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장애에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탐색한 결과, 부모와 관계된 변수들은

긍정적 변수이건 부정적 변수이건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았다. 주로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나 자신의 가치관 혹은 심리·정서적 특성이 진로장애와 관계가 있었다. 특히 미래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 청소년들이 진로장애를 적게 겪고 있었는데, 이들 청소년들일수록 스스로 적극적인 진로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한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직업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이나 진로결정을 위한 도움보다는 취업에 필요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업에 대한 지원에서도 취업과 연계된 지원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궁극적으로 직업이행에 목적성이 강하다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적은 청소년들일수록 이러한 지원요구가 높았다. 다만 진로장애가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요구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바라는 취업준비 도움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 중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적절한 교육훈련이나 관련 정보가 드물고, 또 접근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부모 및 친구관계 특성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2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이들 특성은 1차년도 조사 시점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았으나, 삶의 만족도도 그리 크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나 가정 회복을 위한 지원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학업중단 청소년들로의 전달체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사항은 진로장애가 사회에 대한 인식과 삶의 만족도와 의미 있는 관련성이 지니고 있다는 결과이다. 진로장애가 많을수록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 진로장애가 적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다. 이러한 특징은 직업지향형 학업중단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결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인 또는 가정적 지원 외에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도와줄 수 있는 정보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강호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도 실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주미 외(2010). 취약청소년 자립지원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 서정아 외(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윤철경 외(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윤철경 외(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숙영·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 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정해숙 외(201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동선 외(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 1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업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실장)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업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호나 지원은 부족한 편이고 사회적으로 이들을 보는 눈이 너그럽지 못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지 않고 교육부와 여가부를 중심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는 접근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을 추적 조사함으로써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있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귀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하는 자리에 토론이라는 이름으로 배울 기회를 준 것에 감사드린다. 다만 토론자가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를 설계하며 분석하려고 하였던 전체 그림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김성식 교수님의 분석 결과의 맥을 제대로 짚지 못하지 않을까 주저되기도 한다.

김성식 교수님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다시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업형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과 비학업형 학생들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업을 계속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밝히기 위해, 재학시절 학교 경험, 개인특성, 환경적 특성(사회적 관계), 학교를 그만 둔 후의 생활 경험과 가치관 등의 변인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며 생각해볼만한 것들을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1. 학업중단 청소년과 학업

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제공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을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일컫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연구자가 명명했듯이 학업형 청소년들이다. 학교를 떠났다고 학업을 중단한 채로 머물러 있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학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말이 모순처럼 들리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학업중단 청소년이라고 호명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후 다시 하고 있는 학업은 무엇인가? 학업형으로 분류된 청소년은 복교, 대안학교 재학,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경우이다. <표 4>에서 보듯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검정고시 준비이다. 즉, 이 조사 자료에서 학업이란 학교에서 하는 것, 학교에서 하는 것과 같은 교과 교육을 하고, 그것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 준비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민하게 한다. 우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기 싫어 결석을 할 때, 그 주된 이유로 꼽은 것이나(표 14) 학교를 그만둘 때 주된 이유는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라고 답한 것(표 8)을 보면, 놀고 싶어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다시 학업을 하게 된 것이다. 학업형 청소년들이 비학업형 청소년에 비해 여가 시간 사용, 게임 중독 정도, 문제 행동 가피해 경험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표 28). 대체로 학업형 청소년이 더 긍정적 특성을 보인다. 학업형 청소년이 이러한 면에서 비학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나올 수 있지만, 이들이 이전에 하기 싫었던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은 공부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졸업장의 필요 때문이며, 이는 졸업 자격 취득을 위해 검정고시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청소년 시기에 비학업형 청소년을 학업형으로 유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배우도록 할 것이냐는 중요한,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관련 지원 기관 담당자들은 이들의 의사소통 역량, 일상적 기본 생활 기술 등을 갖추어줄 필요가 있으며,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정서적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 검정고시 준비와 이러한 역량 함양 간에 괴리가 있어 보이는 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일부 대안학교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을 유인하기 어렵다고 토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학업 지속과 전환의 조건, 계기

학교를 떠나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학업을 선택하기 어려운 여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유의미한 학업 경험을 하도록 여건을 만들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학업형 청소년들과 비학업형 청소년들을 가르는 주요한 변인은 학교 경험(표 15)보다 개인적 특성과 가정(표 18, 19) 지원이다. 개인적 특성은 가정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탓인지, 중다회귀 분석을 할 경우 유의미한 관련성을 지속적으로 가지지는 않는다. 현재의 여가나 게임 등과 같은 생활 경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선후를 전제하기 어렵다.

분석 결과를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하게 되는 핵심적인 변인이 가정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라는 것이다. 결국 가정이 중요하다는 현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계속하게 하려면 정책적으로 이들에게 가정에서의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하기 위해 소요되는 교육비용, 학업 수행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줄이는 데 따르는 비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과 면담한 자료에 기초한 선행 연구를 보면, 이들 중 학업을 계속하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거나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부모 혹은 부모보다 더 부담 없이 신뢰 관계의 끈으로 연결된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의 존재이다(김경애 외, 2014).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과의 관계”라고 한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어른이 자기에게 다가올 때, 잠시 머물 관계인지, 더 지속적으로 믿을만한 관계인지 “간을 본다.” 학교 밖에 나와 일정 기간 해매는 기간(그동안 쌓인 것을 푸는 기간, 가정이나 학교에서 생활이 힘들(있을) 경우 좌충우돌이 필요한 기간)을 보내는 경향을 인정하고 그 시기에 적절한 거리에서 무심한 듯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간보기에 기꺼이 당해주며 청소년들과 관계의 끈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어른들이 지역에 서로 연결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함께 연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기초해보면 이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여러 단체에서 이 청소년들이 유의하게 느끼는 성인과의 관계에 관한 변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가 되었다면 분석에 활용하며, 조사문항에 누락되었다면 추후 조사에서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3. 조사문항: 긍정적 경험, 부정적 경험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경험, 가정 배경, 부모와의 관계 등이 포함된 패널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한 문항을 보면 보통의 평범한 학생들의 생활, 경험, 조건 중심으로 구성된 것 같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험 특성을 잘 드러낼만한 문항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를 잘 알고 이해해주신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등의 문항을 분석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부모의 폭력 경험(부모 간, 부모-자식 간), 방임 경험 등에 관한 문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두 종류의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일정 정도 상관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과거 학교부적응 학생 조사 분석 경험을 미루어보면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 가족 구조(이혼, 조손, 한부모 등) 등과의 관련이 매우 높았다(류방란 외, 2008). 학교경험 중 교사와의 관계를 물을 때에도 “학교에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주시는 선생님이 있었다.” “학교에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었다.” 는 문항 외에 “나는 학교에서 대체로 무시 받는 느낌을 받는다, 교사로부터 모멸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 교사와 심하게 부딪친 적이 있다.” 등의 부정적인 문항이 의미 있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든다. 이러한 문제 제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부정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예방과 지원 필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의 변화에 대한 시사점, 가정의 변화 혹은 가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요청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상 김성식 교수님의 분석 결과를 읽고 생각해볼만한 것들을 몇 가지 언급하여 보았다. 힘들여 수집한 자료 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태에 가까이 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참 고 문 헌

- 김경애 · 류방란 · 정바울 · 정연순 · 송혜정 · 조은주(2014).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 복지방안 연구: 생애 진로 개발을 중심으로
- 류방란 · 신희경 · 이규재 · 최윤선. (2008). 학교학습부적응에 미치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력 분석. 교육학연구, 46(2), 179-208.

토론 2



「직업 지향형 청소년의 직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양상」 토론문

이 상 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능력개발정책·평가센터장)

「직업 지향형 청소년의 직업경험 제 특성 및 변화양상」 토론문

- 청소년 중도탈락자의 특징을 직업지향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김강호 박사의 논문은 기존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하나의 개념적 정리가 이루어진 글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분석은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는 청년층 또는 정상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청년층의 고용대책의 방안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한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본 토론문은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 전체적으로 분석의 동기는 매우 좋으나 분석의 정밀함과 내용의 완성이 매우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음
 - 또한 분석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와 해석이 많이 필요할 것임
-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현황이 9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임
- 또한 이들의 응답을 필자가 경험한 연구와 인터뷰를 토대로 할 때 통계질문의 응답이 과연 진실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임
 - 돈을 많이 벌고싶다는 중도탈락의 상징적 레토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는 등의 얘기는 뒤에서 언급한대로 경제적 취득의 일시적 이유로 판단됨에 따라 질적 연구와 병행하지 않으면 정확한 연구를 얻는 것에 한계가 있어 보임
 - 실례로 전문성 획득을 하겠다면서 진로정보와 구직 정보가 주로 아는 선배, 아는 형·누나로

정확한 정보라 보기 어려우며 이걸로 모든 진로직업 정보를 다 한 것으로 아는 대상자들도 있음

- 통계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진로장애로 각주1)로 볼 때 13개 문항을 합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 빠져있음
 - 독립변수도 변화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초 통계량이 빠져 있음
 - 만일 변화분의 스케일이 많지 않을 경우 분석의 해석이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이 연구결과에서 자립지원이나 가치관형성, 진로장애분석을 보면 학력에 대한 열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등 사회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 즉 이른바 미래의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찾고자 스스로 노력한다고 보이는-학생들일수록 정책적 수요가 있으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임
-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특성변화를 분석하는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이나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쉬움
- 현재 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진로교육 강화 등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분명한 것은 이들을 특정한 장소, 예를 들면 고용센터, 직업전문학교, 특수학교 등에서 집체식 교육훈련과 진로교육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이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
 - 즉 사회복지사와 같은 개념의 진로 및 직업상담사 필요

발표 3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생활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유 성 렬

(백석대학교 교수)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생활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

1. 서론

최근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4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으며, 교육부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대상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관련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학업중단 문제는 우리 사회의 주요 정책 과제로 간주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대응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학업을 그만두고 학교를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과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록 정규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 즉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들이 왜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서는 학업중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학업중단 예방에 필요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학업중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김범구(2012)는 기존의 주요 연구결과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크게 개인적 특성, 가정 환경적 특성, 학교 생활 관련 요인, 또래 관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자기조절동기, 유능감, 무기력함 등이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반면, 하고 싶은 일을 찾거나 자신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을 경우에는 학업중단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밖에 가정의 경제적 수준, 가정 내 갈등, 학교 적응 수준 등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교 수준에서는 학생 수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 등의 구조적 특성, 교칙 운영의 엄격성,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학교 분위기 등의 학교 체제 요인들이 정규학교 졸업의 중요성, 학업중단이 갖는 낙인 효과 등에 대한 인식등과 더불어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범구, 2012; 문용린, 2009).

기존의 학업중단 원인과 관련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는 학업중단을 이해하는 데 있어 주변 환경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학업중단의 문제는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즉 가정, 학교, 또래와의 관계, 지역사회 특성 등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과 관련한 두 번째 문제, 즉 정규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접근을 시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고, 필요한 도움을 어디서 받고 있는지 등 실제 그들의 삶의 양상을 파악하여야 비로소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접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즉 현재까지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등으로 인하여 그 명단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패널조사 자료는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윤철경 외, 2013; 윤철경 외, 2014). 이 패널조사의 대상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학업중단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다.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은 시·도 교육청별로 학업중단자 명부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였나, 당초 계획한 목표 표본 수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스노우볼링, 웹 홍보, 상담지원센터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표본을 확보하였으며, 이 외에도 직업훈련기관, 자활지원관, 검정고시학원,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쿼터를 배분하여 조사 대상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776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⁵⁾. 보호관찰 청소년은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가운데 10개를

선정하여 각 보호관찰소 별로 20명씩을 조사하여 200명의 청소년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삶의 유형을 살펴보기 위하여 가장 최근에 학업을 중단한 경험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시점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복학하여 학교에 다니는 경우, 대안학교에 다니는 경우, 검정고시공부(학원)를 하는 경우, 직업기술을 배우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취업한 경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논 경우, 가출을 하거나 비행한 경우 등에 대하여 월별로 해당 활동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 시점에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표에 주어진 13개월의 기간 동안 특정 달에 특정 활동을 한 것은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료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중단 이후의 삶의 유형을 범주화하여 복학, 대안학교, 검정고시 공부의 경우는 학업형, 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또는 취업하여 일하는 경우는 직업형,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는 니트형, 가출을 하거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행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나타나는 주요 양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유형에 대한 범주화 작업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2013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에서 사용된 범주화 작업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유목화하기 위해 조사시점부터 1년 전까지 어떤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 월별로 수집한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하였다⁵⁾. 이는 기존의 연구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형화하는데 있어 진일보한 측정방식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유목화 방법이 갖는 한계는 당초 설정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및 비행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물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대한 계획이나 행동 등과 관련한 소수의 문항에 기초하여 생활 유형을 분류해 오던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로 인해 발생하는 장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유형을 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확보하는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귀납적 관점에서 볼 때 주어진 자료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찾아내는 작업도 중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기준보다는 자료가 보여주는 양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의 범주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는 2013년을 출발점으로 하여 3년간 진행되는 패널조사이

5) 이 과정에서 학업중단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청소년들도 일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6)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유성렬(2014)의 218쪽에서 발췌함

기 때문에 2013년에 수집된 자료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생활 유형 구분은 학업중단 이후 조사시점까지의 생활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포함할 경우 조금 더 포괄적인 맥락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활 양상을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2013년과 2014년의 2년에 걸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주화 작업을 진행할 경우 전년도에 시도했던 범주화 작업의 결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선 범주화 대상 기간이 전년도에 1년 정도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는 측정 기간이 짧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던 유형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존의 범주화 작업이 지니는 한계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방법론적으로 세련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범주화 작업은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의 삶을 보다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새로이 시도한 범주화 작업에서 나타난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삶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자는 전년도의 범주화 작업에서 나타난 4개 유형 -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 가운데 무업형 청소년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무업형 청소년에 초점을 두었던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문제시 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학업중단 이후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준비 혹은 취업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정한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방치가 의도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은 관계없이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소위 무업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달리 그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특성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자는 전년도 연구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지닌 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 당시 학교로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제공받지 못했고, 배경변수나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보다는 학업중단 이후의 상황이 무업형 여부를 결정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유성렬,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무업형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년도 연구와 다른 점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중단 이후 삶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을 전년도와 달리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전년도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특정 활동에 참여한 개월 수를 계수하는데 초점을 두어 구분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즘을 사용한 군집분석 방식을 적용하였다는 것이다⁷⁾. 이 방식을 통해 뚜렷한 형태를 보이는 5개의 군집을 추출하였는데 그 각각을 살펴보면, 우선 초기에는 혼재형을 떠나가 뒤에 직업형으로 나타나는 직업지향형, 초기 상태에는 혼재형을 떠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무업형, 학업형, 직업형 등이 번갈아 나타나는 혼재·무업형, 비행 경험형, 초기 시점부터 학업 경험을 유지하는 학업지속형, 그리고 초기에는 혼재형을 떠나 점차 학업형으로 전환하는 학업전환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특정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혼재·무업형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집단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을 지니고 있지만 지속적이라기보다는 간헐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중간에 무업형 경험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⁸⁾.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던 무업형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특정 유형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집단으로 연구의 대상을 확장하여 그들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혼재·무업형으로 구분되는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시점부터 2차년도 조사 시점까지의 활동 구성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주요 시점별로 혼재·무업형으로 구분된 청소년들의 활동 내용의 분포를 살펴보고 주요 시퀀스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그 외의 유형으로 구분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요 변수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1차년도 조사와 2차년도 조사에서 주요 변수별로 나타나는 변화의 정도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재·무업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전년도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학업중단 이전의 특성보다는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보다는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들을 중심으로 그 영향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7)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이후 삶의 유형을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 자료집의 김강호 박사의 발표문 참조

8) 혼재·무업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발표문의 분석결과 부분 참조

2.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과 2014년에 실시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이다⁹⁾. 1차년도 당시 조사에 참여한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이 776명,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이 200명이다. 이 가운데 보호관찰 학업중단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비행 경력의 정도가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 조사에 참여한 776명의 일반 청소년 가운데 599명이 2차년도 조사에 참여하여,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참여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연구문제는 학업중단 이후 특정 유형으로 구분되기 어려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즘에 기초한 군집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의 유형(직업지향형, 혼재·무업형, 비행경험형, 학업지속형, 학업전환형) 가운데 혼재·무업형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혼재·무업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혼재·무업형과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혼재·무업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혼재·무업형을 1로 코딩하여 나머지 유형 전체를 하나의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배경변수와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중심으로 독립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배경 변수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양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정의 경제적 배경,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 수준을 사용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진로와 관련한 활동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들로 학업중단 당시 학교로부터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 학업중단 이후 자신을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등에 참여한 경험,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9) 1차년도 표본설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윤철경 외(2013) 참조

활동, 진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향후 진로를 결정하였는지의 여부, 교육 열망,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였다. 세 번째로 학업중단 이후의 심리·정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 학력 및 미래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정도, 학업중단한 친구의 수, 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하였다. 각 변수의 측정 방법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독립변인 측정 방법

구 분	변 수	측 정 방 법
배경변수	성별	남=1, 여=0로 코딩
	양부모 동거여부	부모(계부모 포함)와 동거하는 경우=1, 기타=0으로 코딩
	가정의 경제적 배경	매우 못 산다=1부터 매우 잘 산다=7로 측정
	학교성적수준	학교를 그만 둘 당시의 성적에 대해 최하위권=1부터 최상위권=7로 측정
진로 관련 경험	정보제공 여부	학업중단 당시 복학절차,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준비, 청소년시설, 진로나 직업교육 관련 시설 등에 관한 정보 중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를 합산
	성인의 도움	청소년시설, 복지시설, 보호시설, 상담기관, 보호관찰소, 직업훈련기관, 종교기관, 학원, 치료시설, 대안교육기관 등에서 도움을 받은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로,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를 0으로 측정
	동아리활동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1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으로 측정
	진로정보탐색활동	진로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①진로에 대해 부모님(또는 주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②인터넷을 검색하였다, ③공공기관(교육, 복지, 고용관련 기관 등)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2차년도 경우에는 ‘④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다와 ⑤여가시간, 방과후, 방학 등을 활용해 직업체험을 한 적이 있다.’의 문항을 추가함
	진로장애	진로장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지에 사용된 13개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은 ②번과 ③번의 2개 문항을 제외한 11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향후 진로 결정	향후 진로에 대하여 진로를 결정한 상태인 경우=1, 결정하지 못한 경우=0로 코딩

구 분	변 수	측 정 방 법
	교육열망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 값(1=중졸부터 5=대학원졸)으로 측정
	학업중단 태도	‘①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을 친구나 친척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 ②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주위사람들이 문제야 취급을 하는 것 같(았)다, ③학교와 같이 소속된 곳이 없으니 불안하다, ④내가 선택한 결과이니 현재 생활에 만족한(했)다, ⑤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후회한(했)다(역코딩), ⑥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의 6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심리정서	자아존중감	‘①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③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④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자아탄력성	‘①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②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③나는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④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⑤나는 내가 매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다.’ 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우울감	‘①기운이 별로 없다, ②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진 다, ③걱정이 많다, ④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⑤울기를 잘한다, ⑥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한다, ⑦외롭다, ⑧모든 일이 귀찮고 흥미가 없다, ⑨장래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⑩ 모든 일이 힘들다.’ 의 10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충동성	‘①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②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③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행동을 즐기는 편이다, ④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⑤나는 화가 나면 물물을 가리지 않는 편이다.’ 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미래관	‘①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②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③나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 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구 분	변 수	측 정 방 법
	학력관	‘①우리 사회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우를 받는다, ②우리 사회에서는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심하게 차별을 받는다, ③우리사회에서 중고등학교 중퇴 학력으로 취업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주변과의 관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①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②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③고민을 들어 주신다, ④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⑤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의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의 경제적 지원	‘①부모님은 나에게 용돈을 주신다, ②부모님은 내 공부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사 주신다, ③부모님은 내가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하게 해 주신다.’의 3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 방임	‘①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으셨다, ②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으셨다, ③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았고, ④내가 아플 때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부모 학대	‘①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때리셨다, ②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보호자)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③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④부모님(보호자)께서는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학업중단 친구 수	친한 친구 중 학업중단 한 친구의 수
	친구관계	‘①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었다, ②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했다, ③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냈다, ④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친구들이 도와주었다.’의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값(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을 합산하여 문항수로 나눈 값

3) 분석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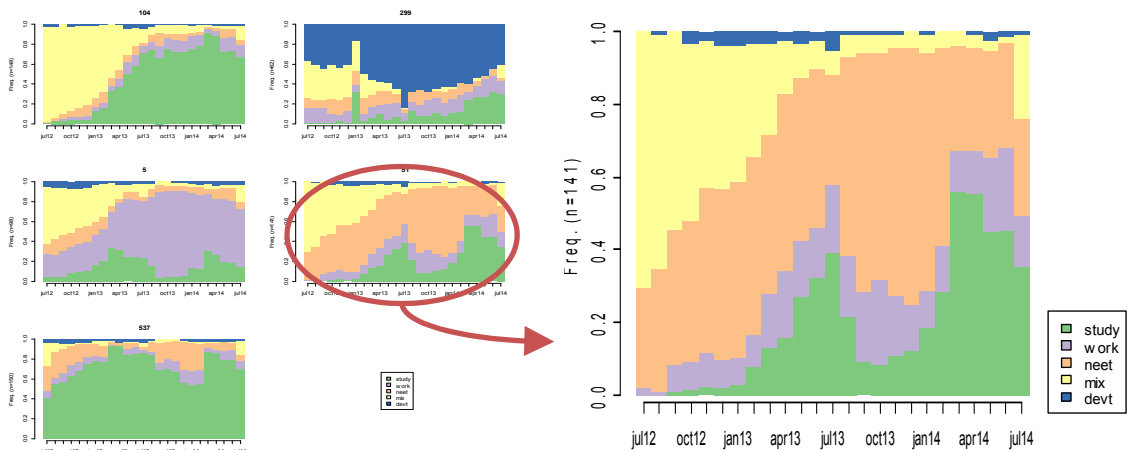
학업중단 청소년 중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각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측정 수준에 따라 t-검증이나 교차분석 등의 이변량분석(bivariate analysis)을 실시하여 혼재·무업형과 다른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유형별로 1차년도와

2차년도 독립변수 값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혼재·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단계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우선 배경 요인을 나타내는 변수를 먼저 회귀식에 투입하였고, 2단계로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나타내는 변수를, 3단계에서는 심리·정서와 관련한 변수를, 마지막으로 주변과의 관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18)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1) 혼재·무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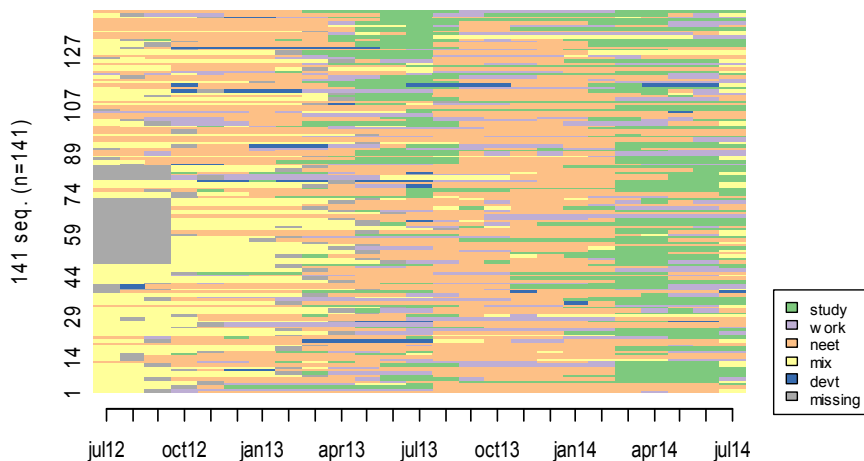
학업중단 시점부터 2014년 조사 시점까지 월별 활동 내용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알고리즘을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 5개의 집단을 추출하였다.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혼재·무업형 집단으로 <그림 1>에서 원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해당 집단의 시기별 활동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혼재·무업형 학업중단 청소년의 시기별 분포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혼재·무업형의 경우 학업중단 초기에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학업이나 직업 등의 특정 유형을 보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활동을 동시에 하고 있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혼재형 양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원을 다니는 등의 학업형은 7월과 4월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다가 다시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반면, 무업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졸 및 고졸 검정고시 실시 시기가 4월과 8월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 직전에 검정고시 응시를 위해 공부를 시작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검정고시가 끝나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혼재·무업형으로 구분된 청소년들의 개인별 경험 시퀀스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시퀀스는 주로 혼재형과 무업형 양상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학업중단 초기에는 혼재형이 많이 나타나다가 이후 무업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월과 7월을 중심으로 잠시 공부를 재개하였다가 7월 이후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개인별 경험 시퀀스

2) 혼재·무업형 청소년과 기타 유형 청소년들과의 비교

(1) 배경변수

먼저 본 연구에서는 배경변수를 중심으로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그 외의 학업중단 청소년들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2>에 따르면 1차년도 조사와 2차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한 599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남자 청소년 중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비율은 23.7%인 반면, 여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23.3%로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업중단 이후 혼재·무업형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경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조사에서 부모와 동거 여부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 가운데 혼재·무업형의 비율이 19.9%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28.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년도의 경우도 거의 동일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보다는 그렇지 않은 비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혼재·무업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배경변수와 혼재·무업형 여부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혼재·무업형	기타	χ^2
성별				
남자	354	23.7	76.3	.02
여자	245	23.3	76.7	
부모 동거 여부(1차년도)				
양부모와 동거	356	19.9	80.1	6.03**
기타	243	28.8	71.2	
부모 동거 여부(2차년도)				
양부모와 동거	332	19.3	80.7	7.52**
기타	267	28.8	71.2	

* $p<.05$, ** $p<.01$, *** $p<.001$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혼재·무업형 여부와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혼재·무업

형 청소년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기타 유형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나, 2차년도에 경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3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가정 경제적 수준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가정의 경제적 수준(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3.55	1.23	-2.654**
기타	458	3.86	1.14	
가정의 경제적 수준(2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3.51	1.19	-1.598
기타	457	3.69	1.13	

* p<.05, ** p<.01, *** p<.001

또한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 정도를 비교하였는데,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이 그 외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4> 참조).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학교를 그만 둔 당시부터 학업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성적 수준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성적수준				
혼재·무업형	141	3.09	1.61	-2.309**
기타	458	3.44	1.60	

* p<.05, ** p<.01, *** p<.001

(2)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 및 진로 관련 경험

학업중단 당시의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 진로와 관련한 활동 경험 등을 중심으로 혼재·무업형과 그 외 유형 청소년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표 5>와 <표 6>은 1차년도 조사에서 학업중단 당시 학업중단 이후 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와 학업중단 숙려제를 경험한 정도와 관련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와 학업중단 숙려제 경험에 있어서

의 경우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기타 청소년들 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재·무업형 청소년들 중 학업중단 숙려제를 경험한 비율과 그렇지 않은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학업중단 당시의 정보제공 정도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중단 관련 정보제공 정도				
혼재·무업형	141	1.38	1.53	.049
기타	458	1.37	1.44	

* p<.05, ** p<.01, *** p<.001

표 6 학업중단숙려제 경험과 혼재·무업형 여부와와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혼재·무업형	기타	χ^2
학업중단숙려제 경험 여부				
경험있음	129	25.6	74.4	.381
경험없음	458	23.0	77.0	

* p<.05, ** p<.01, *** p<.001

반면에 학업중단 이후 여러 기관에서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의 경우에는 흥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1차년도 조사의 경우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비율이 23.6%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2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7> 참조).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차년도의 경우 전체 분석 대상자 599명 가운데 594명이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2차년도의 경우에는 271명만이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났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이 가운데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비율은 18.8%로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나지 못한 경우의 27.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으며, 1차년도의 비율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기타 청소년의 비율은 81.2%로 그렇지 않은 경우인 72.6%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1차년도의 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도움을 주는 성인을 만난

경험이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7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과 혼재·무업형 여부와 교차분석 결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혼재·무업형	기타	χ^2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1차년도)				
경험있음	594	23.6	76.4	.035
경험없음	5	20.0	80.0	
도움을 준 어른을 만난 경험(2차년도)				
경험있음	271	18.8	81.2	6.12*
경험없음	328	27.4	72.6	

* p<.05, ** p<.01, *** p<.001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교사나 학교 친구들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해 여러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활동의 장(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특히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이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있어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활동은 미래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동아리활동 경험과 혼재·무업형 여부와 교차분석 결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혼재·무업형	기타	χ^2
동아리활동 경험				
경험있음	156	16.0	84.0	6.62*
경험없음	443	26.2	73.8	

* p<.05, ** p<.01, *** p<.001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 가운데 혼재·무업형의 비율이 16% 수준에 불과한 반면, 그렇지 않은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은 26.2%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즉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과는 달리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동아리 등과 관련한 활동 경험이 없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학업중단 이후 혹은 지난 조사 이후 2차년도 조사 시점까지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찾기 위해 실행한 활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특히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찾는 활동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영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진로정보활동 정도는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9> 참조).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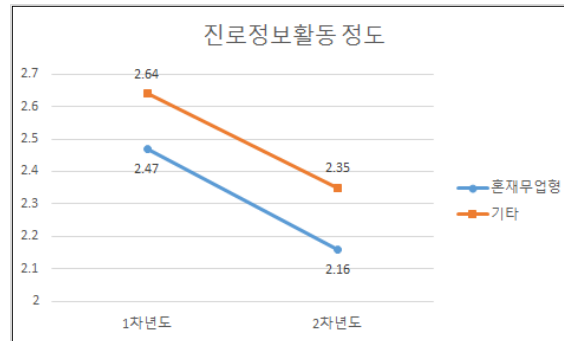
표 9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진로정보활동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정보활동(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47	.62	-2.64**
기타	458	2.64	.66	
진로정보활동(2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16	.52	-3.53***
기타	457	2.35	.58	

* p<.05, ** p<.01, *** p<.001

이와 더불어 1차년도와 2차년도 진로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 정도를 비교해 보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 뿐 아니라 기타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1차년도에 비해 진로정보 획득 활동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감소의 정도는 두 집단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참조).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정보활동의 정도가 감소한

반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일관성 있는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진로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마저 감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진로 준비에 있어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림 3> 진로정보활동 정도 변화 추이

본 연구에서는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들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업중단 청소년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진로설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가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표 10> 참조).

표 10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진로장애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장애				
혼재·무업형	140	2.28	.53	2.42*
기타	456	2.15	.55	

* p<.05, ** p<.01, *** p<.001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대학 진학이나 졸업 후 취업 등을 결정하여야 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의든 타의든 진로를 결정하여야 하는 압박을 받는 반면,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에게 있어 진로 결정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임과 동시에 학업중단 이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의 비율이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보다 20%p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표 11> 참조). 반면에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진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특정한 지향점을 갖고 생활을 영위하기 보다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학업이나 직업 등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생활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 **향후 진로 결정 여부와 혼재·무업형 여부와 의 교차분석 결과**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혼재·무업형	기타	χ^2
향후진로 결정(1차년도)				
결정	482	19.7	80.3	20.11***
미결정	117	39.3	60.7	
향후진로 결정(2차년도)				
결정	509	20.6	79.4	6.12*
미결정	90	40.0	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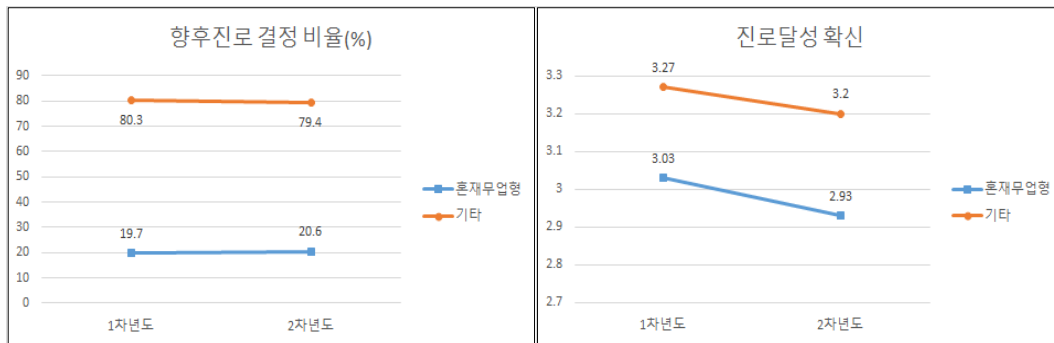
* p<.05, ** p<.01, *** p<.001

향후 진로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혹은 진로를 설정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결정한 진로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즉 진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 정도가 높을수록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유형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경우 상대적으로 자신의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표 12>에 나타난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차이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다.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은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진로 목표 달성에 대한 확신 정도가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목표 진로 달성 확신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진로달성(1차년도)	혼재·무업형	95	3.03	.49	-3.91***
	기타	387	3.27	.63	
진로달성(2차년도)	혼재·무업형	105	2.93	.51	-4.64***
	기타	404	3.20	.63	

* p<.05, ** p<.01, *** p<.001



<그림 4> 향후 진로 설정 및 진로달성 확신 정도의 변화 추이

<그림 4>는 향후 진로 결정 비율과 진로달성 확신 정도가 혼재·무업형 청소년과 기타 청소년들에게 있어 2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은 혼재·무업형 청소년들보다 두 요인 모두에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진로 결정 비율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진로달성 확신 정도에서는 두 집단 모두 1차년도보다 2차년도에 확신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남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음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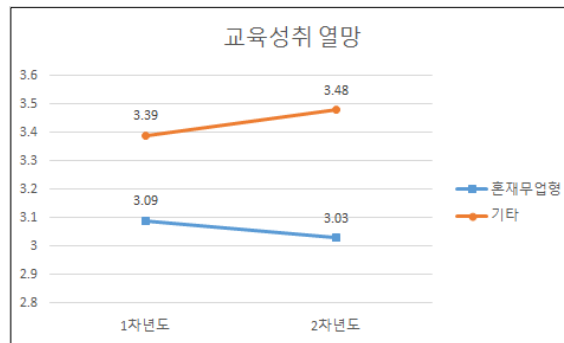
<표 13>에는 응답자 본인의 교육 성취 열망(educational aspiration)에 대한 두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교육열망 정도가 혼재·무업형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차이도 두 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1차년도보다는 2차년도의 교육열망 정도가 더 높아진 반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표 13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교육성취 열망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교육성취 열망(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3.09	1.08
	기타	458	3.39	1.06
교육성취 열망(2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3.03	1.03
	기타	458	3.48	1.02

* $p<.05$, ** $p<.01$, *** $p<.001$



<그림 5> 교육성취 열망 정도의 집단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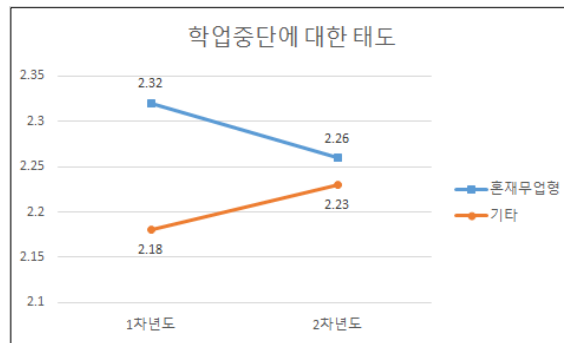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학업형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하면서 검정고시 등을 치루거나 학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교육성취에 대한 열망이 증가하는 반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은 자신의 교육 열망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정도로 학업을 지속하거나 아니면 일을 하는데 집중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흥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1차년도의 경우 혼재·무업형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차년도의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는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표 14> 참조), 오히려 기타 유형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가 더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6> 참조).

표 14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중단 태도(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32	.49	2.76**
기타	458	2.18	.54	
학업중단 태도(2차년도)				
혼재·무업형	102	2.26	.47	.572
기타	330	2.23	.52	

* p<.05, ** p<.01, *** p<.001



<그림 6>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의 집단별 변화 추이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부정적인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은 2차년도에 부정적인 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으나, 변화의 방향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중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학업중단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꾸준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 온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초기에 학업중단이라는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을 애써 부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적 시각의 벽을 넘지 못함으로써 학업중단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3차년도 조사 결과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심리·정서 및 가치관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기타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 사이에 심리 및 정서 상태,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 학력에 대한 생각 및 미래관, 낙인감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 몰입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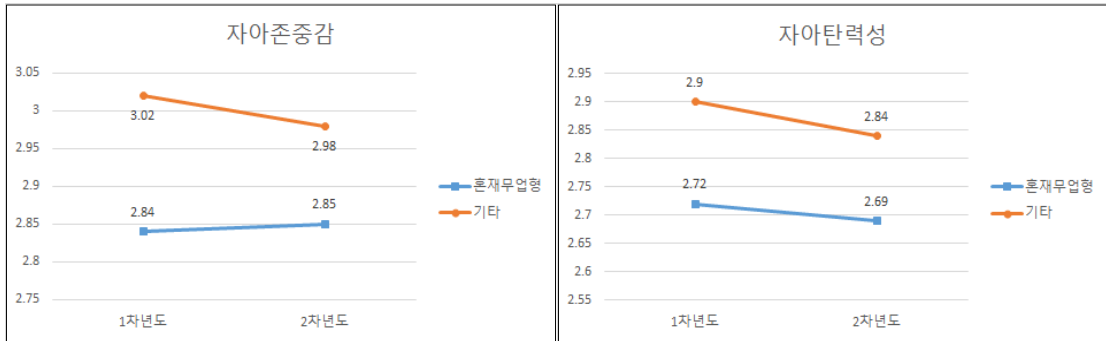
우선 자아존중감의 경우를 살펴보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자아탄력성의 경우에도 자아존중감에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한 양상의 차이를 보였다. 즉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은 혼재·무업형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생활유형과 자아존중감 또는 자아탄력성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지만, 적어도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학업중단 이후 어떠한 생활을 꾸려나갈 것인가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5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자아존중감·자아탄력성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자아존중감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84	.50	-3.40**
	기타	458	3.02	.56	
	2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85	.47	-2.58*
	기타	458	2.98	.55	
자아탄력성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72	.53	-3.26**
	기타	458	2.90	.56	
	2차년도				
	혼재·무업형	140	2.69	.47	-2.89**
	기타	458	2.84	.53	

* p<.05, ** p<.01, *** p<.001

또한 자아존중감의 경우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두 집단 모두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미미한 수준이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자아존중감 및 자아탄력성의 집단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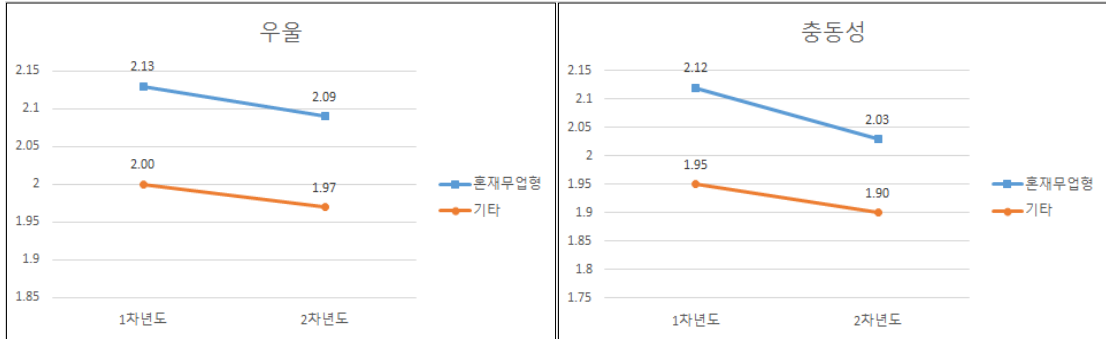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우울감 수준은 기타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충동성의 경우에도 우울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더 충동적임을 알 수 있다(<표 16> 참조).

표 16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우울·충동성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우울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13	.60	2.28*
	기타	458	2.00	.57	
	2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09	.56	2.00*
	기타	455	1.97	.58	
충동성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12	.51	3.19**
	기타	458	1.95	.59	
	2차년도				
	혼재·무업형	140	2.03	.53	2.27*
	기타	458	1.90	.62	

* p<.05, ** p<.01, *** p<.001

두 요인의 시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우울과 충동성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그림 8> 참조). 즉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울감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충동성의 정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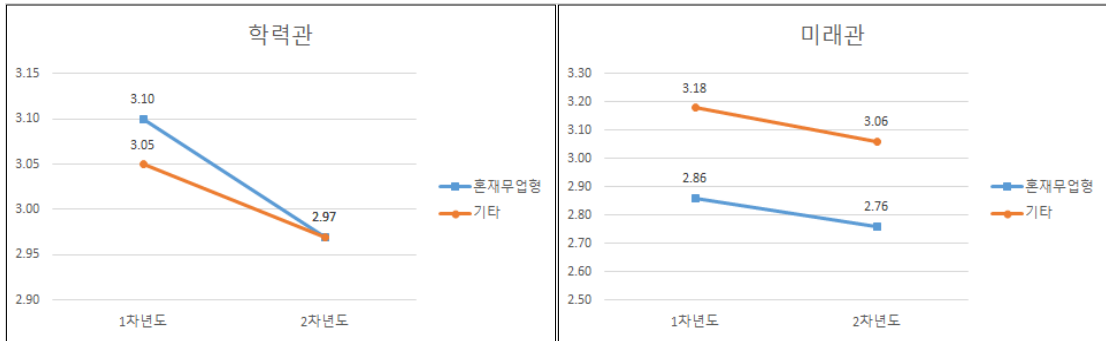
<그림 8> 우울감과 총동성의 집단별 변화 추이

학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혼재·무업형 청소년이나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경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은 반면, 낙인감의 정도는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미래에 대한 생각, 즉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보다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가치관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학력관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3.10	.67	.75
	기타	458	3.05	.65	
	2차년도				.07
	혼재·무업형	141	2.97	.61	
미래관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86	.57	-5.37***
	기타	458	3.18	.62	
	2차년도				-4.75***
	혼재·무업형	128	2.76	.57	
낙인감(2차년도)	기타	392	3.06	.64	
	혼재·무업형	140	2.07	.44	3.21**
		458	1.92	.51	

* p<.05, ** p<.01, *** p<.001



<그림 9> 학력관과 미래관의 집단별 변화 추이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정도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추세는 두 집단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그림 9> 참조). 물론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미래관의 변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학업중단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양상에 관계없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의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업중단의 사회적 의미를 보다 강하게 체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보다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3차년도의 자료를 포함한 체계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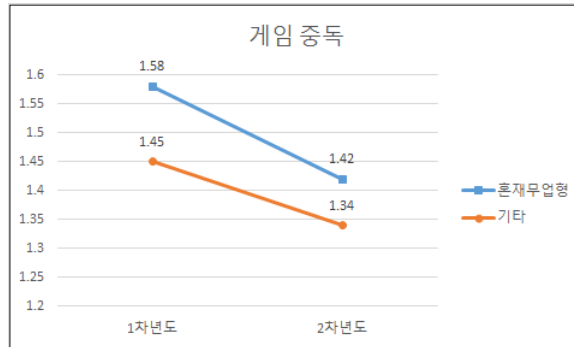
표 18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 몰입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게임중독(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1.58	.68	2.02*
기타	458	1.45	.64	
게임중독(2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1.42	.53	1.63
기타	458	1.34	.51	
스마트폰 중독(2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1.80	.50	2.37*
기타	458	1.68	.52	

* p<.05, ** p<.01, *** p<.001

1차년도에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정도는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2차년도에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보다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이 높은 평균값을 보임으로써 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재·무업형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가용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0> 게임중독 수준의 집단별 변화 추이

(4)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정도, 학업중단 친구 수, 친구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부모의 지원과 관련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 정도는 학업중단 이후 삶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서적 지원의 경우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에 비해 기타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원을 더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는 두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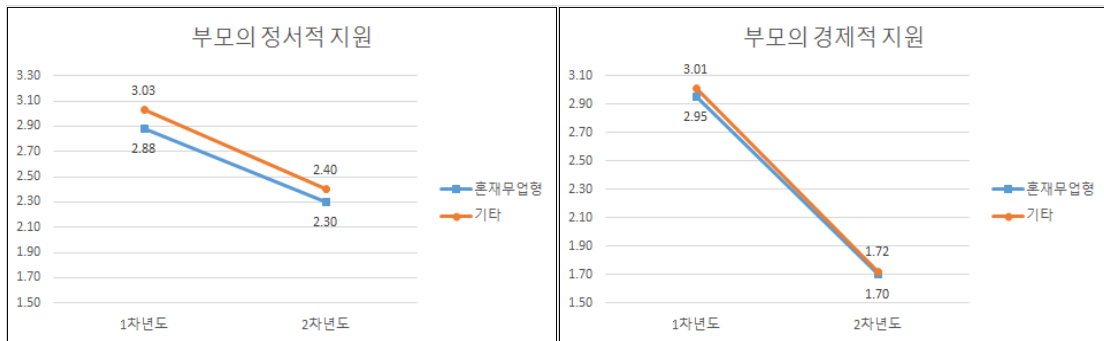
그러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및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정도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적지 않은 수준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감소 경향은 두 집단에서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정서적 지원에 비해 경제적 지원의 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1> 참조). 물론 이러한 경향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학업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불 때,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정서적 지원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88	.72	-2.33*
	기타	458	3.03	.68	
	2차년도				-2.10*
	혼재·무업형	140	2.30	.51	
	기타	458	2.40	.55	
경제적 지원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2.95	.71	-.85
	기타	458	3.01	.72	
	2차년도				-.43
	혼재·무업형	140	1.70	.41	
	기타	458	1.72	.48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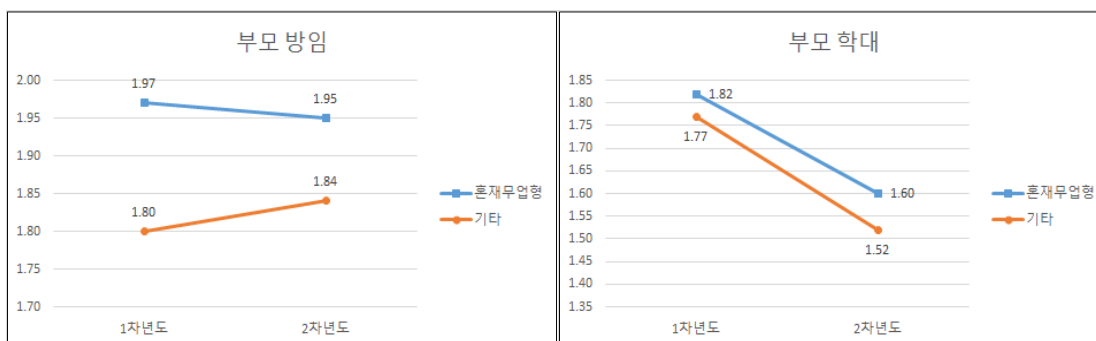
<그림 11>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의 집단별 변화 추이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정도와 관련하여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은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방임 정도에 대한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평균값이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평균값에 비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반면에 부모로부터의 학대 정도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0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부모의 방임 및 학대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부모 방임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1.97	.55	3.11**
	기타	458	1.80	.56	
	2차년도				2.00*
	혼재·무업형	141	1.95	.49	
	기타	457	1.84	.56	
부모 학대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1.82	.72	.80
	기타	458	1.77	.76	
	2차년도				1.23
	혼재·무업형	140	1.60	.58	
	기타	458	1.52	.67	

* p<.05, ** p<.01, *** p<.001



<그림 12> 부모 방임 및 학대 정도의 집단별 변화 추이

특히 부모 방임의 정도에 있어서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평균값이 미미하나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참조). 즉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모가 자신에게 충분한 관심을 보여주기 못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님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모의 방임 정도가 높아지는 것이 단순히 무관심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청소년이 생활을 잘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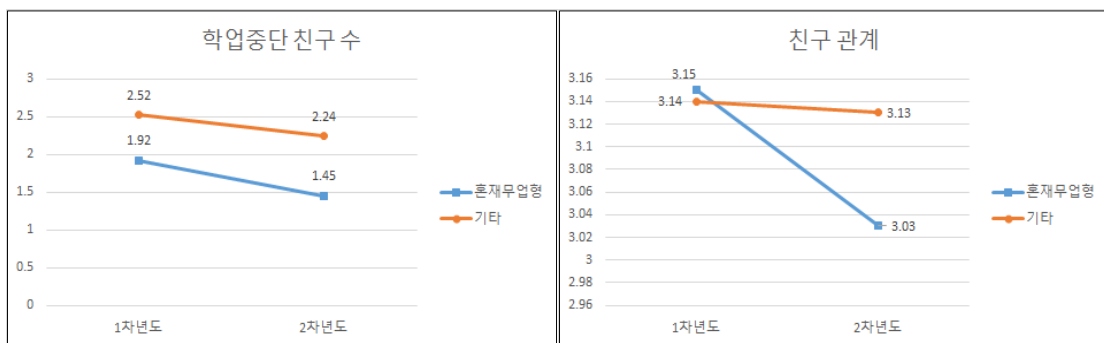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있어 친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필연적으로 친구집단에 노출되는 학교라는 환경을 벗어나 있는 상태에서 친구를 사귀다는 것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학업을 중단한 친구와의 교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역할모형으로 작용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1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교우관계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학업중단 친구 수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1.92	2.56	-2.26*
	기타	458	2.52	3.37	
	2차년도				-2.68**
	혼재·무업형	141	1.45	1.65	
	기타	458	2.24	5.56	
친구 관계	1차년도				
	혼재·무업형	141	3.15	.59	.20
	기타	458	3.14	.62	
	2차년도				-1.64
	혼재·무업형	141	3.03	.59	
	기타	453	3.13	.60	

* p<.05, ** p<.01, *** p<.001



<그림 13> 학업중단 친구 수 및 친구관계의 집단별 변화 추이

<표 21>에 나타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 특히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우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을 한

친구 수의 평균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각각 1.92명, 1.45명인 반면, 기타 유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각각 2.52명, 2.24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친구관계에 있어서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업중단 친구 수의 2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학업중단 친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보다는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 그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3> 참조).

표 22 혼재·무업형 여부에 따른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요구 정도의 평균 비교

		사례수 (명)	평균	표준편차	t
동기부여 프로그램	혼재·무업형	141	2.62	.72	-2.11 [*]
	기타	458	2.78	.84	
다양한 프로그램	혼재·무업형	141	2.65	.69	-2.63 ^{**}
	기타	458	2.84	.79	
성인안내자의 도움	혼재·무업형	141	2.67	.79	-2.19 [*]
	기타	458	2.84	.79	
실제적인 학업준비	혼재·무업형	141	2.94	.71	-1.40
	기타	458	3.04	.76	
직업기술, 자격증 등 취득기회	혼재·무업형	141	2.99	.72	-2.05 [*]
	기타	458	3.14	.75	
진로탐색 프로그램	혼재·무업형	141	2.91	.74	-2.12 [*]
	기타	458	3.07	.79	
진로지도	혼재·무업형	141	2.84	.70	-2.01 [*]
	기타	458	3.00	.81	
사회관계훈련	혼재·무업형	141	2.72	.73	-3.83 ^{***}
	기타	458	3.00	.80	
경제교육과 체험	혼재·무업형	141	2.97	.74	-.752
	기타	458	3.03	.80	

* p<.05, ** p<.01, *** p<.001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표 22>는 자립 관련 프로그램 욕구에 있어서의 두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모두 9개의 문항 가운데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학업준비와 실생활 속의 경제교육 및 체험의 2개 문항을 제외한 7개 문항에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7개 문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혼재·무업형 청소년들보다는 기타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욕구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갈등상황 해결, 분노조절 등의 사회관계훈련”의 경우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으로써 기타 유형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관계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직업기술이나 자격증 등의 취득기회에 대한 요구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자립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혼재·무업형 결정 요인 분석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재·무업형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업중단 이후 삶의 다양한 양상 가운데 특정한 지향점 없이 여러 활동을 전전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활하는 형태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혼재·무업형 중심의 생활양식을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년도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제시하는 바에 따르면,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양식을 설명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학업중단 이전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중단 당시의 상황이라기보다는 학업중단 이후에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이다(유성렬, 2014).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혼재·무업형 생활양식을 설명하는 요인을 크게 네 가지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우선 성별, 양부모와의 동거 여부, 가정의 경제적 배경, 학업중단 당시의 학업성적 수준을 배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전년도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였던 학업중단 당시의 정보제공 정도와 더불어,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경험, 동아리나 인터넷 카페 활동 경험, 진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 정도, 향후 진로 결정 여부, 교육성취에 대한 열망 및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를 한 영역으로 묶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기본적으로 학업중단 시점부터 2차년도 조사시점까지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한 혼재·무업형 여부이다. 따라서 2차년도 조사 시점의 상황을 나타내는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차례 모두 수집된 자료의 경우 기본적으로 1차년도 자료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차년도 조사 이후 2차년도 조사시점까지의 활동 등을 묻는 문항의 경우에는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측정된 변수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세 번째로 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가치관 관련 변수들로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 학력관 및 미래관을 사용하였으며, 이 변수들의 경우에는 1차년도 측정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의 방임 및 학대, 학업중단 친구 수, 친구와의 관계를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혼재·무업형 여부를 설명하기 위한 회귀분석은 기본적으로 위계적 분석의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1단계로 배경변수를 투입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배경변수와 학업중단 이후 경험 관련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 투입된 변수들과 더불어 심리·정서 변수를, 4단계에는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23>과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표 23>의 1단계 분석 결과를 보면, 배경변수 가운데 혼재·무업형 여부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 성적은 혼재·무업형 여부에 대해 부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나, $\alpha <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에 대한 변수들이 배경변수와 함께 회귀식에 투입된 2단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배경변수들은 혼재·무업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달리 1차년도의 향후 진로 결정 여부는 투입된 변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혼재·무업형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 = -.76$, $\text{Exp}(b) = .466$). 즉 1차년도에 향후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2년간의 생활 유형이 혼재·무업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있어 향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양식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중단 이후 혼재·무업형의 생활양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로 하여금 특정 지향성을 갖춘 생활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비록 학업중단 이후에라도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즉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 세계에 진출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차년도의 진로정보 획득을 위한 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혼재·무업형 생활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alpha <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분석 결과 가운데 전년도 분석결과(유성렬, 2014)와 차이를 보이는 것 가운데 주목할 것은 학업중단 당시 정보를 제공받은 정도가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수 산출 방식이 전년도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혼재·무업형 결정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1단계		2단계	
	B(SE)	exp(B)	B(SE)	exp(B)
상수항	.01(.38)	1.006	.63(1.51)	1.883
배경변수				
성별(남=1)	-.10(.20)	.991	-.13(.22)	.877
양부모 동거여부(동거=1)	-.34(.21)	.714	-.26(.22)	.770
가정의 경제적 배경	-.16(.09) ^a	.850	-.14(.10)	.870
학업중단 당시 학교성적수준	-.12(.63) ^a	.888	-.43(.07)	.958
진로관련 경험				
정보제공 정도			.03(.07)	1.028
1차년도 성인도움(있음=1)			.07(1.17)	1.070
2차년도 성인도움(있음=1)			-.30(.22)	.743
동아리 경험(있음=1)			-.33(.26)	.716
1차년도 진로정보활동			-.02(.18)	.981
2차년도 진로정보활동			-.39(.20) ^a	.678
진로장애			.14(.20)	1.153
1차년도 향후진로 결정(결정=1)			-.76(.24) ^{**}	.466
교육열망			-.07(.11)	.933
학업중단 태도			.26(.20)	1.294
N	599		595	
-2Log-Likelihood	639.57		603.82	
Cox & Snell의 R ²	.023		.074	
Nagelkerke의 R ²	.035		.111	
Homer & Lemeshow 검증	$\chi^2(df) = 6.03(8)$		$\chi^2(df) = 12.94(8)$	
분류정확도(%)	76.5		77.5	

^a p<.10, * p<.05, ** p<.01, *** p<.001

표 24 무업형 결정요인 분석(로지스틱 회귀분석)

변수	3단계		4단계	
	B(SE)	exp(B)	B(SE)	exp(B)
상수항	1.62(1.84)	5.051	-.485(2.17)	.616
배경변수				
성별(남=1)	-.09(.23)	.913	-.05(.23)	.957
양부모 동거여부(동거=1)	-.32(.22)	.725	-.35(.22)	.708
가정의 경제적 배경	-.13(.10)	.874	-.17(.11)	.846
학업중단 당시 학교성적수준	-.02(.07)	.978	-.02(.07)	.984
진로관련 경험				
정보제공 정도	.04(.07)	1.043	.06(.07)	1.604
1차년도 성인도움(있음=1)	-.07(1.19)	.933	-.01(1.18)	.989
2차년도 성인도움(있음=1)	-.30(.22)	.739	-.30(.23)	.741
동아리 경험(있음=1)	-.32(.26)	.730	-.41(.27)	.665
1차년도 진로정보활동	.05(.19)	1.049	.06(.20)	1.065
2차년도 진로정보활동	-.29(.21)	.751	-.29(.22)	.746
진로장애	.02(.21)	1.023	.09(.22)	1.091
1차년도 향후진로 결정(결정=1)	-.72(.25)**	.485	-.80(.25)**	.450
교육열망	.01(.11)	1.010	.04(.12)	1.044
학업중단 태도	.09(.22)	1.092	.16(.23)	1.170
심리정서				
1차년도 자아존중감	.13(.27)	1.135	.07(.28)	1.075
1차년도 자아탄력성	-.31(.24)	.731	-.33(.25)	.716
1차년도 우울감	-.10(.25)	.910	-.06(.26)	.944
1차년도 충동성	.42(.21)*	1.524	.50(.22)*	1.651
1차년도 학력관	.07(.17)	1.069	-.00(.18)	.997
1차년도 미래관	-.45(.21)*	.641	-.49(.22)*	.614
부모친구 관계				
1차년도 부모의 정서적 지원			-.17(.22)	.841
1차년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35(.20) ^a	1.419
1차년도 부모 방임			.39(.24)	1.477
1차년도 부모 학대			-.25(.17)	.777
1차년도 학업중단 친구 수			-.10(.04)*	.906
1차년도 친구애착			.47(.21)*	1.592
N	595		595	
-2Log-Likelihood	591.08		573.27	
Cox & Snell의 R ²	.093		.120	
Nagelkerke의 R ²	.140		.181	
Homer & Lemeshow 검증	$\chi^2(df) = 18.59(8)$		$\chi^2(df) = 6.30(8)$	
분류정확도(%)	76.1		76.6	

^a p<.10, * p<.05, ** p<.01, *** p<.001

<표 24>의 3단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단계의 배경변수,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 관련 경험 변수들과 더불어 1차년도 심리·정서 관련 변수를 투입한 경우 향후 진로 결정 여부, 충동성, 미래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2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향후 진로 결정 여부와 더불어 충동성이 높을수록 혼재·무업형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b = .42$, $\text{Exp}(b) = 1.514$), 자신의 미래에 대해 견해가 비관적일수록 혼재·무업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45$, $\text{Exp}(b) = .641$).

특히 앞서 <그림 1>과 <그림 2>에서 나타났듯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주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특정 활동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해당 청소년들이 갖는 충동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 다니는 것과는 달리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은 특별히 어느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따라서 충동적인 성향이 높을수록 어느 하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이 곧 혼재·무업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변수를 투입한 경우의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3단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향후 진로 결정 여부, 충동성, 미래관은 부모 및 친구 관계 변수들이 투입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4단계에서는 1차년도의 학업중단 친구 수와 1차년도 친구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차년도에 학업중단 친구 수가 많을수록 혼재·무업형이 될 가능성이 낮았으며($b = -.10$, $\text{Exp}(b) = .906$), 1차년도 친구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혼재·무업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47$, $\text{Exp}(b) = 1.592$).

특히 학업중단 친구 수의 경우 전년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감안하면, 학업중단 친구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의 문제는 학업중단 이후 생활 유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며, 동시에 기본적으로 같은 처지에서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애착의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현재의 결과는 친구애착 정도가 높을수록 혼재·무업형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애착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이 친구들이 학업중단을

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친구애착의 영향과 학업중단 친구 수의 영향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애착의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에 대해 애착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과의 교류가 높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신의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로 인해 무력감에 빠지거나 의욕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본 설문지에 사용된 문항에서는 애착의 대상이 되는 친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여러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이후 생활 유형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특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러 활동을 간헐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연구와 달리 학업중단 이후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월별 활동 내용을 토대로 PAM 알고리즘을 사용한 군집분석을 통하여 5개의 유형을 산출하였으며, 분석의 대상이 된 599명의 학업중단 청소년들 가운데 141명으로 구분된 혼재·무업형을 대상으로 나머지 유형의 청소년들과 비교를 통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비롯하여 위의 방법을 통한 유형 구분 연구가 갖는 중요한 의의 가운데 하나는 학업중단 이후 생활 혹은 경로를 유형화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생활 자료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시도된 연구라는 것이다. 기존의 학업중단 이후 유형을 구분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대부분 연구자가 갖고 있는 기준에 따라 몇 개의 범주를 사전에 설정하고 학업중단 이후의 대표적인 생활을 묻는 문항 등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분류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이숙영·남상인, 1997; 이경상·조혜영, 2005). 김범구(2013)는 향후 계획을 묻는 7개의 문항을 토대로 잠재계층 분석을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동이 아닌 계획에 근거하여 유형을 구분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2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매달 구체적으로 한 실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보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범주를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가 갖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본 연구의 이러한 범주화 작업이 이론적인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기보다는 자료에 나타난 유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범주화의 결과가 사용하는 자료의 완결성 및 대표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방식은 향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 양상을 연구함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가운데 전년도 연구결과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주목할 만한 부분은 향후에 진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가질 것인지 등과 관련한 진로를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전년도의 무업형 청소년을 설명함에 있어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혼재·무업형 청소년들 설명함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혼재·무업형 또는 무업형의 생활 유형이 바람직하지 못하는 전제하에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지향점을 갖고 생활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이들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구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로 학업중단 친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학업중단 친구가 많을수록 혼재·무업형 생활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동시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모형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년도에 언급했듯이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이나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들 사이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자립을 위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사회관계훈련이나 자격 취득 등에 관한 프로그램과 더불어 혼재·무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조절훈련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은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라는 강제성을 띤 환경이 부재한 상황에서 학업이나 직업 등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기 조절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충동성이 높다는 것은 특정한 지향성을 갖춘 삶을 영위하기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재·무업형 생활양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조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기타 유형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요 독립변수의 값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경우 우선 2차례의 조사 시기에 측정된 값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2년에 걸친 자료에 근거한 변화의 방향을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변화 과정에 대해 단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3차년도 자료를 함께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왜냐하면 3개년에 걸친 자료에 대한 분석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명료한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범구 (2013). 잠재계층분석(LCA)을 이용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특성. *한국청소년연구*, 24(3): 5-31
- 문용린·구본용·이은경·김영운·방재우·방승호·손성호·장맹배·김홍준 (2009).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 유성렬 (2014). “학업중단 후 무업형 청소년들, 특성과 경험, 의식.” Pp. 190-222 *학업중단 청소년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자료집*.
- 윤철경·유성렬·김신영·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서정아·유성렬·조아미 (2014).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I (연구보고 14-R1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조혜영 (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숙영·남상인 (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세미나 자료집*.

발표 4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 경험,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

황 지 원

(서울시립대학교 객원교수)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 경험,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

1. 서론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의 제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비행 청소년의 다양한 삶의 경험 및 학교에서의 경험, 그리고 중단 후에 나타난 생활의 변화 양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수행한 연구이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1차년도 자료에 근거한 학술대회 및 보고서 등을 통해 학업중단 학생의 실태를 비교적 상세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자료는 그로부터 1년이 흐른 시점에서 학생들의 응답을 수합한 자료로서,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나타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현황을 영역별로 상세히 분석하고, 변화의 양상을 파악해 보았다. 2차년도 자료에 대한 기술에 근거하되, 1차년도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양상을 함께 고찰하였다.

2차년도 자료가 나오면서 또 한 가지 가능해진 분석은 학업중단 이후의 변화를 유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사유와 학업중단 이후 경로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이후 진로에 따라 학업형/직업형/무업형/비행형 등의 구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동일한 시점에서의 응답에 근거한 것으로 진행 유형에 따른 구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2차년도의 자료를 결합하게 되면 학생 개인별로 학업중단 이후 어떠한 경로를 거치게 되는지를 분석하고 유형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경로를 중심으로 유형을 나누어 보면 약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유형은 혼재→학업전환형, 비행경험형, 직업지향형, 혼재·무업형, 학업지속형의 다섯 가지로 제시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의 틀을 받아들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일반 학업중단 패널에 속해 있지만, 비행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을 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들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관계, 이들과 기타학업중단 청소년들과의 차이점을 주로 검토해 보았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자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료이다. ‘학업중단청소년 패널조사’는 2013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하여 2015년에 3차년도 조사를 수행중인 자료로서, 1차년도 조사에서 일반청소년 776명, 보호관찰 청소년 220명으로 총 996명이 조사되었으며, 2차년도 조사에서는 일반청소년 599명, 보호관찰 청소년 210명으로 총 809명이 최종적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청소년의 패널 유지율은 77.2%이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패널 유지율은 95.5%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 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패널 수집 방법이나 특성 등이 너무 상이해서 동일한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에서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총 분석대상 자료는 2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해준 일반청소년 599명을 대상으로 한다.

이 패널조사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중단 이후의 활동에 대하여 월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차년도 조사를 통해 구분된 유형은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 혼합형의 다섯 가지이다. 2차년도 조사를 통해서 기존의 유형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가지고 변화의 유형에 기반한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방식의 군집 수 산출을 통해 다섯 가지의 군집을 적정 군집 수로 결정하였다. 이 유형은 혼재→학업 전환형, 비행경험형, 직업지향형, 혼재·무업형, 학업지속형의 다섯 가지이다. 각 유형별 자세한 수치는 다음의 <표 1>과 같다.¹⁰⁾

10) 자세한 유형의 분류 및 구분방법, 나머지 유형의 학생들에 대한 정보는 본 세미나의 기초발표인 김강호(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 유형 분석과 유형별 분포. 참조

표 1 학업중단 이후 경로에 따른 유형 구분

유형	사례수(명)	비율(%)
혼재→학업전환형	148	24.7
비행경험형	62	10.4
직업지향형	98	16.4
혼재·무업형	141	23.5
학업지속형	150	25.0
소계	599	100.0

이해를 위하여 각 유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학업지속형은 지속적으로 학업 경험을 유지한 것으로 응답한 청소년들이고, 혼재→학업전환형은 처음에는 혼재형으로 나타나다가 학업형으로 바뀐 경우를 의미한다. 직업지향형은 주로 직업을 갖거나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유형이거나, 혼재형으로 머물다가 직업형으로 바뀐 경우를 의미한다. 혼재·무업형은 주로 초기에는 혼재형으로 나타나다가 이후에는 무업형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중심적인 분석 대상인 비행경험형은 지속적으로 비행을 경험하거나 중간에 비행에 진입하는 학생들을 통칭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직접 활용된 비행경험형의 학생들은 2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해준 전체 분석대상 599명 중에서 62명(10.4%)으로 나타난다. 비록 인원이 적기는 하지만 이 학생들의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고, 학교에서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들여다보고, 학업을 중단한 이후 나타난 생활의 변화 양상을 추적해 봄으로써 비행 청소년들의 특성과 중단 전·후 삶의 양상을 보고하고자 한다.

2. 분석 변수

먼저 연구의 종속변수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 측면을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에 사용된 거의 대부분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정한 영역으로 통합 가능한 변수는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변수들의 내용과 기초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서열변수 이상의 속성을 지닌 변수만 대상으로 하였으며,

‘(1)’이 표시된 변수를 제외하면 모두 2차년도 결과를 대상으로 한다.

표 2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구성 및 속성

	변수	사례수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문항 수	비고
개인적·환경적 특성								
개인적 특성								
시간 활용	수면시간	806	3	14	7.78	1.874		평일 중 해당 활동을 하는 평균 시간
	공부나 직업훈련 시간	292	0	15	6.27	3.010		
	아르바이트, 일 시간	297	0	14	7.27	3.456		
	개인공부 시간	370	0	17	3.52	2.925		
	휴대폰, 컴퓨터, TV 시간	695	0	22	4.06	2.962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 시간	334	0	9	1.37	1.302		
	친구들과 놀기 시간	616	0	17	3.12	2.539		
식사 습관	아침식사 부족	806	1	2	1.42	.495		7일간 최대 2회 ①아니다 ②그렇다
	점심식사 부족	807	1	2	1.20	.401		
	저녁식사 부족	807	1	2	1.18	.387		
	인스턴트 식품	807	1	2	1.32	.468		주3회①아니다 ②그렇다
	건강상태	809	1	4	2.93	.705		4단척도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809	1.00	4.00	2.98	.549	5	4단척도
	자아탄력성	809	1.00	4.00	2.85	.532	5	4단척도
	우울감	809	1.00	3.60	2.00	.592	10	4단척도
	충동성	808	1.00	4.00	1.92	.610	5	4단척도
환경적 특성								
	가정의 경제적 수준	808	1	7	3.57	1.156		7단척도
	부모의 정서적 지원	809	1.00	4.00	3.01	.663	5	4단척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	809	1.00	4.00	2.86	.780	3	4단척도
	부모의 방임	809	1.00	4.00	1.79	.609	4	4단척도
	부모의 학대	809	1.00	4.00	1.56	.650	4	4단척도
	친한 친구수	807	0	100	8.63	10.89		자유기술
	또래애착	807	1.00	4.00	3.13	.592	3	4단척도

	친구의 비행성향	807	1.00	4.00	1.59	.628	3	4단척도
	지역사회 사회통합	809	1.00	4.00	2.15	.686	4	4단척도
	지역사회 무질서	809	1.00	4.00	2.18	.659	4	4단척도
	지역사회 유익환경	809	1.00	4.00	2.52	.737	2	4단척도
학교 경험의 특성								
	학교 생활의 경험							
	교사관계(1)	996	1.00	4.00	2.50	.865	3	4단척도
	친구관계(1)	996	1.00	4.00	3.06	.732	4	4단척도
	학습부적응(1)	996	1.00	4.00	2.58	.742	3	4단척도
	훈육적풍토(1)	776	1.00	4.00	2.50	.806	2	4단척도
	참여적풍토(1)	776	1.00	4.00	2.37	.767	2	4단척도
	학교규정위반(1)	996	1.00	5.00	2.63	1.096	7	5단척도
	당시 학교성적(1)	996	1	7	3.15	1.593		7단척도
	학교에 대한 생각							
중단 당시 생각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음	611	1	4	2.46	.927		4단척도
	문제아 취급 받는 느낌	611	1	4	2.57	.905		4단척도
	소속감이 없어서 불안	611	1	4	2.07	.829		4단척도
	내 선택이므로 현재에 만족	611	1	4	2.91	.780		4단척도
	학교 다니지 않는 것 후회	611	1	4	2.46	.961		4단척도
	내가 원하는 것 해서 행복	610	1	4	2.74	.795		4단척도
중단 후 생활의 변화								
	생활의 경험과 변화							
	게임중독	808	1.00	4.00	1.35	.525	8	4단척도
	SNS문제	807	1.00	3.10	1.18	.295	10	4단척도
	스마트폰중독	808	1.00	4.00	1.67	.529	8	4단척도
피해 행동	집단따돌림	809	1	2	1.03	.176		①없다②있다
	성적인 놀림	809	1	2	1.02	.155		①없다②있다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809	1	2	1.04	.204		①없다②있다
	돈이나 물건 뺏김	809	1	2	1.02	.155		①없다②있다
	심하게 얻어맞기	809	1	2	1.02	.155		①없다②있다
	성폭력 당하기	809	1	2	1.01	.099		①없다②있다
문제 행동	담배 피우기	809	1	2	1.66	.473		①없다②있다
	술 마시기	809	1	2	1.71	.455		①없다②있다
	남의 돈/물건 훔치기	809	1	2	1.08	.266		①없다②있다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809	1	2	1.08	.276		①없다②있다
	남의 돈/물건 뺏기	809	1	2	1.06	.236		①없다②있다
	음란물 보기	809	1	2	1.20	.400		①없다②있다
	돈내기 도박 해보기	809	1	2	1.14	.344		①없다②있다
	자살 시도	809	1	2	1.03	.180		①없다②있다
	공공기물 물건 파손	809	1	2	1.09	.292		①없다②있다
	약물(본드) 흡입	809	1	2	1.01	.099		①없다②있다
	의식의 변화							
진로 관련 노력	진로관련 부모님과 대화	808	1	4	3.01	.829		4단척도
	진로관련 인터넷 검색	807	1	4	2.77	.946		4단척도
	진로관련 공공기관 상담	806	1	4	1.77	.884		4단척도
	관심 직업 종사자 만나 대화	806	1	4	2.17	1.028		4단척도
	직업체험 경험	807	1	4	1.71	.852		4단척도
	진로정보획득 어려움	809	1.00	4.00	2.30	.573	5	4단척도
	진로에 대한 불안감	808	1.00	4.00	2.24	.709	4	4단척도
	진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808	1.00	4.00	2.12	.731	4	4단척도
	진로 계획 달성 예측	640	1	4	3.14	.629		4단척도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807	1	5	3.20	1.089		①중졸②고졸 ③초대졸④대 졸⑤대학원졸
학력 의식	고학력이 대우받음	808	1	4	3.19	.760		4단척도
	대학졸업 차별심함	808	1	4	2.96	.814		4단척도
	중퇴는 취업어려움	808	1	4	2.68	.907		4단척도
미래 희망	원하면 대학진학가능	808	1	4	2.80	.813		4단척도
	열심히 하면 희망적	808	1	4	3.06	.736		4단척도
	내가 성공한다 생각	808	1	4	3.04	.737		4단척도
사회 인식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808	1	4	2.09	.711		4단척도
	사회는 나를 열등하게 본다	808	1	4	2.04	.696		4단척도
	관계속에서 다르게 취급받는다	808	1	4	2.05	.743		4단척도
	인간다운 대접을 못받는다	808	1	4	1.86	.648		4단척도
	나를 문제있는 존재로 본다	808	1	4	1.98	.736		4단척도
	편안함을 느낀다	808	1	4	2.29	.722		4단척도(역)
	사회에 의해 희생되었다	808	1	4	1.86	.616		4단척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808	1	4	1.86	.665		4단척도

자립 필요 프로 그램	동기부여 프로그램	808	1	4	2.64	.842		4단척도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808	1	4	2.69	.811		4단척도
	성인안내자의 도움 필요	808	1	4	2.71	.831		4단척도
	취업연계 실질적인 학업준비	808	1	4	2.92	.792		4단척도
	기술, 자격증 교육기회 확대	808	1	4	3.00	.809		4단척도
	직업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	808	1	4	2.94	.813		4단척도
	취업/진학 진로지도 강화	808	1	4	2.86	.824		4단척도
	사회관계 훈련 제공	808	1	4	2.83	.831		4단척도
	실생활 속 경제교육	808	1	4	2.95	.825		4단척도

3. 분석 방법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1) 개인적·환경적 특성, 2) 학교 경험, 3)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으로 크게 구분하여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인 비교 대상 집단은 [집단1] 비행경험형 62명, [집단2] 비행경험형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 학업중단 청소년 537명, [집단3] 보호관찰패널 210명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 학업중단경험이 없는 일반청소년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집단4] 일반청소년을 명명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한 방법은 문항의 구조와 응답 차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1차년도와 2차년도에 공히 응답이 있는 문항의 경우에는 주로 대응표본 t 검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동일한 청소년의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응답간의 1년간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1차년도나 2차년도의 응답만 존재하는 문항의 경우에는 비교 집단에 따른 분산분석 방법이나 교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연구의 분석 결과는 앞서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대로, 1) 개인적 · 환경적 특성, 2) 학교 경험, 3)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으로 크게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만, 3)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은 그 속성에 따라 생활의 변화(아르바이트, 비행 경험 등), 심리상태의 변화(자아존중감, 우울 정도 등), 의식의 변화(교육포부수준, 사회개념 등)로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적 · 환경적 특성

1) 개인적 특성

청소년들의 개인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수면 · 학습 · 일 · 여가시간 배분, 식사습관, 건강상태 등이다. 2차년도 자료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시간 배분, 식사습관, 건강상태 비교

구분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시간 배분	수면	8.21	1.993	7.60	1.868	8.12	1.794	7.480***
	공부나 직업훈련	5.14	2.869	6.49	3.098	5.75	2.471	2.803
	아르바이트, 일	7.64	3.200	6.66	3.604	8.59	2.746	9.561***
	개인공부	2.23	1.223	3.83	3.097	2.84	2.447	6.368**
식사 습관	휴대폰, 컴퓨터, TV	4.86	3.187	4.00	2.895	3.92	3.072	2.335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	1.52	1.029	1.29	1.248	1.63	1.548	1.869
	친구들과 놀기	3.49	2.207	2.69	2.313	4.23	2.910	21.720***
	아침식사 부족	1.40	.495	1.44	.496	1.40	.491	.651
건강 상태	점심식사 부족	1.19	.398	1.19	.391	1.24	.425	.346
	저녁식사 부족	1.24	.432	1.17	.374	1.21	.406	.216
	인스턴트식품	1.35	.482	1.31	.465	1.33	.472	.769
	건강상태	3.02	.587	2.89	.720	3.01	.692	2.588

결과를 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수면시간이 8.2시간으로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조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나 일하는 시간도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개인공부시간은 2.2시간으로 적었으며,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3.5시간으로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서 많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다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비해서 공부나 직업 등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고 노는 시간이 많아서 시간의 효율적 활용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수들만 본다면 보호관찰 청소년들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소년들의 식사습관은 아침, 점심, 저녁식사를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먹었다는 응답이 2로 표시되고, 아니라는 응답이 1로 표시되므로, 수치가 높을수록 식사습관이 좋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데, 전반적으로 점심과 저녁은 잘 챙겨먹는 편이지만, 학업중단 청소년 중의 40% 정도는 아침은 잘 먹지 않고 35% 정도는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건강상태를 보면, 자신의 건강상태를 또래들과 비교할 때 건강한 편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의 평균 3점인데 3점에 해당하는 응답이 '건강한 편이다'에 해당한다. 다행스럽게도 학업중단 청소년 대부분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건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사용한 문항 중에서 1차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문항은 시간배분과 식사습관으로 볼 수 있다. 이 변수들에 대해서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정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친구들과 노는 시간에 대해서만 차이가 발견되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경우에 작년에 비해서 평일 중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초기에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이 비교적 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사습관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시간 배분, 식사습관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비행경험형 청소년 대상)

	구분	사례수	1차년도	2차년도	차이	t
시간 배분	수면	62	8.32(1.940)	8.21(1.993)	-.11(2.097)	-.424
	공부나 직업훈련	11	3.55(1.573)	5.27(3.259)	1.72(3.467)	1.652
	아르바이트, 일	10	6.20(3.553)	7.40(3.169)	1.20(2.440)	1.555
	개인공부	13	2.77(1.589)	2.15(.899)	-.62(1.981)	-1.120

식사 습관	휴대폰, 컴퓨터, TV	47	5.23(3.515)	4.77(3.298)	-.47(4.462)	.719
	운동, 취미, 동아리, 종교	14	1.86(1.610)	1.54(1.117)	-.32(1.836)	-.655
	친구들과 노는 시간(평일)	48	4.56(2.924)	3.35(2.129)	-1.10(3.157)	2.423*
	인스턴트 식품	62	1.35(.482)	1.31(.465)	-.05(.074)	-.652
식사 습관	아침식사 부족	62	1.40(.495)	1.37(.487)	-.03(.652)	-.390
	점심식사 부족	62	1.19(398)	1.24(.432)	.05(.526)	.725
	저녁식사 부족	62	1.24(.432)	1.27(.450)	.03(.600)	.424
	인스턴트 식품	62	1.35(.482)	1.31(.465)	-.05(.074)	-.652

식사시간에 대해서는 비행경험형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연도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학생들의 식사습관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심식사와 저녁식사에 대해서는 끼니를 거르지 않는 학생이 1차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식사습관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학업중단 청소년 전체 대상)

	구분	사례수	1차년도	2차년도	차이	t
식사 습관	아침식사 부족	806	1.42(.494)	1.42(.495)	.00(.671)	.105
	점심식사 부족	807	1.33(.469)	1.20(.401)	-.13(.591)	-6.080***
	저녁식사 부족	807	1.32(.466)	1.18(.387)	-.13(.595)	-6.387***
	인스턴트 식품	807	1.38(.485)	1.32(.468)	-.06(.660)	-2.345*

2) 심리적 특성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우울감, 충동성 등이다. 각 변수는 앞의 변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단 척도로 구성된, 5개에서 10개 사이의 변수들의 평균으로 구성된 변수들이다. 이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 심리적 특성의 비교

구분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일반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3.00	.487	2.94	.542	3.06	.579	3.290*	3.11
	자아탄력성	2.88	.419	2.79	.526	2.98	.557	9.643***	2.91
	우울감	1.96	.588	2.01	.574	2.01	.639	.149	1.93
	충동성	2.05	.600	1.92	.607	1.88	.618	1.956	

결과를 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이지만,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서는 약간 더 높고,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비행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이 특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타학업중단에는 가정 배경이 어렵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나 자아탄력성 수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¹¹⁾

이들이 보여주는 결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함께 비교해 볼 수 있다. 윤철경 외(2013)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면,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에서 동일한 문항이 일반 청소년들에게 조사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일반 청소년 8,732명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3.11, 자아탄력성 점수는 2.91, 우울감 점수는 1.93으로 나타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일반학생들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자아탄력성은 비슷하거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더 높기도 하였다. 우울감 역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자아탄력성은 놀라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겨내는 능력이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7>은 비행경험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나타낸

11) 윤철경 외(2014)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중단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대안교육 사유(3.12), 문제행동(2.99), 학교사유(2.93), 개인사정(2.89)로 나타나, 문제행동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이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 두 시기 간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은 학업중단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심리적 특성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비행경험형 청소년 대상)

	구분	사례수	1차년도	2차년도	차이	t
심리적 특성	자아존중감	62	2.91(.431)	3.00(.487)	.09(.477)	1.437
	자아탄력성	62	2.82(.526)	2.88(.419)	-.06(.521)	.976
	우울감	62	2.03(.555)	1.96(.588)	-.06(.690)	-.699
	충동성	62	2.17(.557)	2.05(.600)	-.11(.673)	-1.320

3) 환경적 특성

청소년들의 환경적 특성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은 크게 부모(가정), 친구, 지역사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정서적 지원,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모의 방임, 부모의 학대, 친한 친구 수, 또래애착, 친구의 비행성향, 지역사회 사회통합, 지역사회 무질서, 지역사회 유익환경 등의 변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각 변수는 앞의 변수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단 척도로 구성된, 2개에서 5개 사이의 변수의 평균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7단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친한 친구 수는 학생이 기입한 숫자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8 가정, 부모, 친구, 지역 등 환경적 특성의 비교

구분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일반 학생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정)	가정의 경제적 수준	3.63	1.090	3.65	1.156	3.35	1.153	5.221**	
부모	부모의 정서적 지원	2.98	0.673	3.00	0.656	3.06	0.678	.686	3.22

	부모의 경제적 지원	2.81	0.809	2.87	0.761	2.87	0.821	.148	3.36
	부모의 방임	1.82	0.566	1.77	0.605	1.82	0.630	.561	
	부모의 학대	1.48	0.620	1.55	0.658	1.63	0.634	1.945	
친구	친한 친 구수	9.03	9.274	9.04	10.20	7.44	12.86	1.668	6.69
	또래애착	3.15	0.568	3.10	0.597	3.20	0.580	2.268	
	친구의 비행성향	1.66	0.626	1.55	0.606	1.66	0.678	2.506	
지역	지역사회 사회통합	2.15	0.718	2.07	0.655	2.35	0.714	13.189***	
	지역사회 무질서	2.21	0.711	2.19	0.645	2.15	0.679	.332	
	지역사회 유익환경	2.44	0.736	2.51	0.721	2.57	0.779	.880	

결과를 보면, 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변수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있었다. 특별히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가정경제수준(3.35)이 다른 비행경험형(3.63)이나 기타학업중단(3.65)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 사회통합 변수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사회통합 변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기타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2.07로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반면에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35로 비교적 높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2.15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이 결과를 일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가능한 몇 가지 문항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이 3.22,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3.36으로 나타나 이들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부모님의 지원 환경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는 것은 일반 학생들의 경우 친한 친구수를 평균 6.69명으로 답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략 9명 정도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 9>는 비행경험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 간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부모의 학대 부분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1차년도 2.09에서 2차년도에는 1.48로 줄어들어 부모의 학대 부분에서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구 부분에서는 친구의 비행성향이 차이를 보였다. 1차년도에는 1.87이었지만 2차년도에는 1.66으로 낮아져 친구의 비행성향도 1년 전보다 낮아지고 있었다. 지역사회 변수에서는 사회통합 변수가 1차년도 2.54에서 2차년도 2.15로 낮아져 지역사회의 환경도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9 가정, 부모, 친구, 지역 등 환경적 특성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비행경험형 청소년 대상)

	구분	사례수	1차년도	2차년도	차이	t
(가정)	가정의 경제적 수준	62	3.65(1.216)	3.63(1.090)	-.02(1.032)	-.123
부모	부모의 정서적 지원	62	2.85(.806)	2.98(.673)	.13(.728)	1.396
	부모의 경제적 지원	62	2.84(.736)	2.81(.809)	-.03(.785)	-.270
	부모의 방임	62	1.92(.635)	1.82(.566)	-.10(.647)	-1.226
	부모의 학대	62	2.09(.875)	1.48(.620)	-.62(.807)	-6.020***
	친한 친구 수	62	9.85(6.808)	9.03(9.274)	-.82(9.686)	-.669
친구	또래애착	62	3.12(.589)	3.15(.568)	.03(.584)	.435
	친구의 비행성향	62	1.87(.705)	1.66(.626)	-.21(.778)	-2.122*
지역	지역사회 사회통합	62	2.54(.671)	2.15(.718)	-.39(.789)	-3.914***
	지역사회 무질서	62	2.32(.524)	2.21(.711)	-.11(.699)	-1.271
	지역사회 유익환경	62	2.48(.593)	2.44(.736)	-.04(.870)	-.365

2. 학교 경험의 특성

1) 학교생활의 경험

여기에서는 1차년도에 조사되었던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규정위반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이전 학교 경험에 대해서 확인해보기로 한다. 이 변수들에 대한 집단별 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 10>에 제시되어 있다. 이 분석은 현재의 변화 유형에 따라 이전 학교생활의 경험이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10 학교생활 경험의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일반 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사관계	2.46	0.804	2.55	0.869	2.42	0.883	1.768	2.84
친구관계	3.09	0.693	3.03	0.743	3.05	0.785	.205	3.35
학습부적응	2.76	0.707	2.50	0.729	2.66	0.712	6.074**	1.82
훈육적 풍토	2.44	0.790	2.53	0.794	-	-	.615	
참여적 풍토	2.22	0.755	2.39	0.749	-	-	2.969	
학교규정위반	3.18	1.000	2.36	1.035	3.17	1.026	55.602***	1.60
당시 학교성적	2.45	1.183	3.46	1.617	2.44	1.286	41.364***	

세 집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학교 경험 특성은 학습 부적응과 관련된 것이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276으로 학습부적응 정도가 매우 높았던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의 250이나 보호관찰 청소년의 266에 비해서도 높은 것이다. 결국 학업중단 후 비행을 경험하게 되는 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습부적응 정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에서의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다보니 학교 밖에서의 시간이 많아지고, 점차 비행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규정위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서 학교규정위반 경험이 많은 편에 속한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교사관계는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서 좋지 않았으며, 대신에 친구관계는 가장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일반 학생과 비교해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특징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다. 동일한 문항에 대하여 일반 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 2.84, 친구와의 관계 3.35, 학습부적응 1.82, 학교규정위반은 1.60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 물론 표집의 차이나 조사시기의 차이도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당시에 교사와의 관계가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낮고 친구와의 관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부적응 정도 역시 매우 커서 학습부적응에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규정 위반의 경험 역시 많았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학교를 그만 둘 당시의 학교 성적에 대한 자기보고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점수는 각각 245와 244점으로 하위권과 중하위권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기타학업중단 청소년들은 346으로 중하위권과 중위권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는 대안교육 등의 수요에 의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비행 청소년들의 경우에 학교생활 당시의 성적이 비교적 낮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12) 교사와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 문항은 2012년 이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와 비교하였고, 학습부적응은 2008년에 수행된 한국교육종단연구 4차년도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학교규정 위반 경험은 2005년에 수행된 한국교육종단연구 1차년도 자료와 비교하였다.

2) 학업 중단 경험

다음으로는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에서 겪었던 일이나 생각들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을 조사해 보았다. 이 변수는 2차년도 자료에만 분석되어 있으며, 세 집단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¹³⁾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중단 후 경로유형에 따라서 학교를 나오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실컷 놀기(32.3%)나 돈 많이 벌기(30.6%)에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기타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로 빠른 졸업장 획득(18.1%)과 실컷 놀기(17.5%)에 가장 높았지만 상대적으로 편포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돈 많이 벌기(42.4%)에 가장 응답이 많았고, 실컷 놀기(22.9%)에도 많은 응답을 보였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학교부적응을 비롯하여 학교생활의 답답함을 크게 느끼는 학생들이므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취득하는 일에 대해서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보호관찰 청소년보다도 그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학업중단 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의 집단간 교차분석 결과

구분 ($\chi^2=93.889, \alpha=.000$)	비행경험형		기타학업중단		보호관찰		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사례수 (명)	비율 (%)
원하는 분야에서 전문성 신장	6	9.7	87	16.2	22	10.5	115	14.2
검정고시로 빠른 졸업장 획득	3	4.8	97	18.1	30	14.3	130	16.1
돈 많이 벌기	19	30.6	88	16.4	89	42.4	196	24.2
원하는 기술 배워 빠른 사회 진출	2	3.2	19	3.5	6	2.9	27	3.3
실컷 놀기	20	32.3	94	17.5	48	22.9	162	20.0
별다른 계획 없었음	7	11.3	62	11.5	5	2.4	74	9.1
기타	5	8.1	90	16.8	10	4.8	105	13.0
총계	62	100.0	537	100.0	210	100.0	809	100.0

13) 해당 문항은 총 12개의 보기로 되어 있지만, 기타에 포함된 보기들에는 응답의 수가 적었다. 교차분석에서 사례수가 5 미만인 셀이 많으면 계산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들을 '기타'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지난 1차년도 조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부하기 싫어서라거나 학교에 가야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공부하기 싫고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실컷 놀아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복학의 경험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1차년도에서는 최초 학업중단 후 복학 경험을 질문하고 있으며, 2차년도에서는 1차년도 조사 이후의 복학 경험을 질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조사에 모두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학 경험을 조사해 보면, 최근까지 한 번이라도 복학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1차년도 조사에서 현재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그 이후 1년 동안 다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는지를 보면 이들의 학교 적응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분석에 대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2 **복학 경험 및 학업 재중단 경험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기타학업중단	보호관찰	계
1,2차년도 모두 응답한 청소년	62	537	210	809
- 지금까지 복학 경험 전혀 없는 청소년	44	388	129	561
복학 경험 없는 학생 비율	71.0%	72.3%	61.4%	69.3%
1차년도 당시 복학하여 재학중인 학생 수	4	38	7	49
- 이중 최근 1년 중단 경험 있는 청소년	2	2	2	6
재중단 경험 학생 비율	50.0%	5.3%	28.6%	12.2%

일단 전체적으로 비율을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학교에 다시 가지 않은 학생들은 809명 중 561명으로 69.3%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시 학교에 오고 싶어 하지 않는 반학교 의사가 높은 청소년들로 볼 수 있다. 경험유형별로 살펴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71.0%가 복학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 수치는 기타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관찰 청소년에서는 복학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의 비율이 61.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에 따른 복학 경험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그 수가 적기는 하지만 복학하여 학교를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그로부터 1년 동안 얼마나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49명 중에서 6명이 최근 1년 이내에 다시 중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는 12.2%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미 있는 수치는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에게서 중단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사례수가 적기는 하지만, 복학해서 학교를 다니던 4명 중에서 2명이나 다시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은 이들의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문항을 통해 이들의 학업중단 이유를 살펴보면 학교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비행경험형 청소년 집단의 특성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처럼 완전한 범죄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이들과 비교하여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서는 복학한 경우 학업 유지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점 척도의 복학 이후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해서 비행경험형 청소년은 2.33점,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은 2.79점, 보호관찰 청소년은 2.64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사례 수의 부족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학교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비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이다.

학업중단 과정에서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질문하였다. 2차년도에는 최근 1년간 학업중단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수가 너무 적어서 1차년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활용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표 13 학업중단 과정에서 고민을 나눈 사람 비교(중복응답)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계 (N=809)
부모님	38(61.3)	427(79.5)	135(64.3)	600(74.2)
형제자매	5(8.1)	82(15.3)	27(12.9)	114(14.1)
학교교사	13(21.0)	199(37.1)	22(10.5)	234(28.9)
상담교사	6(9.7)	87(16.2)	18(8.6)	111(13.7)
상담기관	7(11.3)	62(11.5)	5(2.4)	74(9.1)
친구,선후배	21(33.9)	255(47.5)	94(44.8)	370(45.7)

많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부모님(74.2%)과 고민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와 선후배도 45.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교교사는 28.9%로 뒤를 이었다. 비율을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학업중단과정에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친구, 선후배를 활용했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도움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14>와 같다. 학생들이 학업중단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이후 경로 유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진로상담(38.7%), 직업기술훈련(29.0%)의 순서로 나타났고, 기타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진로상담(47.3%), 학업중단 이후 생활 정보 제공(37.6%)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일자리 소개(39.5%), 진로상담(35.7%)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진로상담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정보 가치가 높다고 보았을 때,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직업기술훈련에 대한 요구를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유익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요청하고 있었다.

표 14 학업중단 과정에서 가장 필요했던 도움 비교(중복응답)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계 (N=809)
학업중단 이후 생활 정보제공	17(27.4)	202(37.6)	55(26.2)	274(33.9)
심리상담	10(16.1)	144(26.8)	39(18.6)	193(23.9)
진로상담	24(38.7)	254(47.3)	75(35.7)	353(43.6)
대안교육	5(8.1)	40(7.4)	14(6.7)	59(7.3)
직업기술훈련	18(29.0)	89(16.6)	47(22.4)	154(19.0)
일자리 소개	16(25.8)	101(18.8)	83(39.5)	200(24.7)
또래 활동	6(9.7)	94(17.5)	45(21.4)	145(17.9)
경제적 지원	11(17.7)	74(13.8)	24(11.4)	109(13.5)

3) 학교에 대한 생각

다음은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보았다. 아래의 <표 15>를 보면, 청소년들은 집단에 따라 학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5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음	2.48	1.065	2.40	0.873	2.59	0.995	2.690
문제아 취급 받는 느낌	2.71	0.774	2.49	0.882	2.71	0.964	4.404*
소속감이 없어서 불안	1.86	0.814	2.08	0.795	2.11	0.899	1.587
내 선택이므로 현재에 만족	2.69	0.811	3.01	0.730	2.76	0.846	8.113***
학교 다니지 않는 것 후회	2.36	0.983	2.25	0.879	2.95	0.958	36.351***
내가 원하는 것 해서 행복	2.57	0.887	2.85	0.752	2.54	0.819	11.129***

비행경험형 청소년이나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자신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문제아 취급 받는 느낌을 다수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 2.71로 그렇다는 응답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모든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안학교 등 자의에 의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도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을 후회한다는 응답은 주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서 2.95로 높았다. 이에 반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2.36점으로 나타나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정도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 낮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행복하다는 응답은 역시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2.85로 높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인 2.5정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한 경우 두 시기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면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었다. 아래의 <표

16>은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학교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비교한 분석 결과이다.

표 16 학교를 그만둔 것에 대한 생각의 대응표본 t검정 결과(학업중단 청소년 전체 대상)

구분	사례수	1차년도	2차년도	차이	t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음	611	2.54(.949)	2.46(.927)	-.09(1.043)	-2.017*
문제아 취급 받는 느낌	611	2.68(.900)	2.57(.905)	-.11(1.012)	-2.757**
소속감이 없어서 불안	611	2.05(.869)	2.07(.829)	.02(.040)	.570
내 선택이므로 현재에 만족	611	2.90(.837)	2.91(.780)	.01(.039)	.337
학교 다니지 않는 것 후회	611	2.45(1.027)	2.46(.961)	.01(.044)	.221
내가 원하는 것 해서 행복	611	2.75(.855)	2.74(.795)	-.01(.040)	-.244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느낌은 1년이 지나면서 조금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아 취급받는 느낌도 1년이 지나면서 그 정도가 조금은 덜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문항들에 대해서는 1년의 경과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업 중단 당시에는 그러한 심리적인 어려움이 크지만, 1년 정도 지나면 그러한 어려움도 조금은 완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중단 후 생활의 변화

1) 생활의 경험과 변화

(1) 보호관찰 및 어른의 지도 경험

중단 후 생활의 변화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보호관찰의 경험이다. 보호관찰을 경험했다는 것은 문제적 수준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 측면에서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질문에서는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만 응답하는 하위 문항으로서 보호관찰관이 바뀐 경우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항에 응답한 경우라면 보호관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7>과 같다.

표 17 보호관찰 경험자 비율

항목	비행경험형	기타학업중단	보호관찰	계
1,2차년도 모두 응답한 청소년	62	537	210	809
- 보호관찰 경험자	44	12	194	248
1년 이내 보호관찰 경험 학생 비율	71.0%	2.2%	92.4%	30.7%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보호관찰을 받은 학생들이 71.0%에 달했다. 최근에 발생한 비행으로 인해 비행경험형으로 분류되었고, 보호관찰을 받은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타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는 2.2%만이 보호관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보호관찰 청소년 중에서는 92.4%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추후에 결론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비행경험형 청소년 중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는 결국 보호관찰 패널의 대상자와 동일한 케이스가 된다. 이 두 집단의 차이가 무엇이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밝혀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자신을 이해해주고 고민을 해결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는 어른을 만났는지를 기관 유형을 통해 질문하였다. 각 기관에 대해서 복수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통해 비율을 계산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성인 멘토를 만나지 못하는 비율은 51.7%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서는 56.6%로 높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은 각각 38.7%와 42.9%로 나타났는데 일단 보호관찰 선생님을 멘토로 생각하고 응답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18 성인멘토 만난 경험 비율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계 (N=809)
성인멘토 만난 경험(시설) 없음	24(38.7)	304(56.6)	90(42.9)	418(51.7)

(2) 아르바이트 경험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이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업중단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는 대부분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각종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거나 배달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종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아르바이트 경험

항목	비행경험형	기타학업중단	보호관찰
1순위	패스트푸드점 서빙,배달 (22.7%)	분식점, 중국집 서빙, 배달 (19.4%)	패스트푸드점 서빙,배달 (21.8%)
2순위	카페 및 주점 서빙 (13.6%)	24시간 편의점 점원 (11.0%)	분식점, 중국집 서빙, 배달 (14.9%)
3순위	분식점, 중국집 서빙, 배달 (13.6%)	패스트푸드점 서빙,배달 (11.0%)	일반상점 판매원 (11.5%)

아르바이트를 수행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상의 지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중에서 정규직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18.2%),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60.2%로 높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자신의 근로 상 지위를 모르는 경우도 10.3%로 많았다. 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시 가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직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설문에서는 어떤 직장을 갖게 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직장 경험 및 직업 지위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0 아르바이트 근무형태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22)	기타학업중단 (N=191)	보호관찰 (N=87)	계 (N=300)
시간제 근로자	9(40.9)	115(60.2)	40(46.0)	164(54.7)
일용직	4(18.2)	18(9.4)	10(11.5)	32(10.7)
임시직	2(9.1)	26(13.6)	9(10.3)	37(12.3)
계약직	0(0.0)	11(5.8)	1(1.1)	12(4.0)
실습생	1(4.5)	2(1.0)	1(1.1)	4(1.3)
정규직	4(18.2)	11(5.8)	10(11.5)	25(8.3)
잘 모름	0(0.0)	5(2.6)	9(10.3)	14(4.7)
기타	2(9.1)	3(1.6)	7(8.0)	12(4.0)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게 되는 주급을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평균은 237,000원 정도가 평균으로 나타난다. 최소값은 3,300원이었고, 최대값은 660,000원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나누어 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은 241,000원,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은 213,000원, 보호관찰 청소년은 293,000원으로 나타난다. 비교적 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에서 평균 주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동아리, 카페 활동

다음으로는 동아리나 카페의 가입과 활동을 확인하였다. 가입하여 활동하였는지의 경험을 묻은 결과는 아래의 <표 21>과 같다. 전반적으로는 20.5%정도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동아리나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기타학업중단 청소년들이 26.8%로 가장 활용도가 높았으며,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19.4%로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보호관찰 청소년(4.8%)에 비해서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표 21 동아리, 카페 활동 참여 경험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계 (N=809)
참여경험 있음	12(19.4)	144(26.8)	10(4.8)	166(20.5)

다음으로 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질문한 결과를 보면 재미를 위해서 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58.3%,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의 34.0%, 보호관찰 청소년의 40.0%가 재미를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그 외의 응답들은 너무 많이 흩어져 있어서 별도 제시를 생략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끼리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라거나, 학업중단 성공사례를 알고 싶어서, 혹은 대학입시 준비에 도움이 되어서와 같은 응답에는 응답자의 비율이 매우 적었으며, 그나마도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동아리나 카페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활용한다기보다는 재미를 위해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참여하는 유형은 전체의 37.3%가 SNS 서비스라고 응답해 주었고, 18.1%가 인터넷 포털이라고 응답해 주었다. 대학교 동아리를 가입했다는 응답도 7.8%였고, 중고등학교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응답도 7.2%로 나타났다. 역시 이들 대부분은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이었는데, 이들이 학교에

복학하거나 대학에 진학한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을 위해 동아리 활동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4)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

다음으로는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 등의 현황을 점검해 보았다. 각각의 항목은 8개에서 10개 정도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문항을 평균하여 점수로 활용하였다.

표 22 게임, SNS, 스마트폰 사용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일반 학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게임중독(1차년도)	1.87	.871	1.44	.610	1.37	.577	16.032***	1.23
게임중독	1.54	.646	1.34	.491	1.31	.451	4.703**	
SNS문제	1.18	.280	1.16	.270	1.22	.352	.043*	
스마트폰중독	1.70	.460	1.71	.525	1.54	.540	8.552***	

먼저 게임중독에 대해서 살펴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이 훨씬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차년도 당시의 수치를 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 1.87, 기타학업중단 청소년 1.44, 보호관찰 청소년 1.37점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비행경험형 청소년 1.54, 기타학업중단 청소년 1.34, 보호관찰 청소년 1.31로 나타나 그 차이는 조금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여전히 비행경험형 청소년이 게임중독 정도가 높은 것은 분명하며,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중단 이후 초기에 게임중독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수치는 특히 일반 학생과 비교하면 그 차이를 잘 알 수 있는데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조사했던 연구결과를 보면 일반 학생들의 게임중독은 1.23 정도로 나타난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게임에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상황이 나아진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을 모두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1차년도 1.45에서 2차년도 1.35로 낮아졌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만 대상으로 분석해 보면 1차년도 1.87에서 2차년도 1.54로 낮아져 큰 폭의 하락이 입증되었다.

표 23 게임중독 대응표본 t검정 결과

구분	사례수	1차년도	2차년도	차이	t
게임중독(전체)	808	1.45(.637)	1.35(.525)	-.11(.584)	-5.201***
게임중독(비행경험형)	62	1.87(.871)	1.54(.646)	-.33(.853)	-3.089**

SNS 상에서 문제 행동을 하거나 피해를 당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1.22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은 1.18,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은 1.16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는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이 1.71로 가장 높았고, 비행경험형 청소년이 1.70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은 1.54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피해 행동 및 문제 행동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피해 행동과 문제 행동의 경험 여부 및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이 문항들은 이미 1차년도에 학업중단 이전의 경험과 학업중단 이후의 경험을 나누어 질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차년도까지 합쳐진다면 3시점의 경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표 24 피해 행동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중단전	중단후	최근 1년	중단전	중단후	최근 1년	중단전	중단후	최근 1년
집단따돌림	8.1	0.0	4.8	20.3	0.9	3.9	4.3	0.0	1.0
성적인 놀림	3.2	1.6	6.5	5.6	0.9	2.4	2.9	0.5	1.4
일방적으로 음란물 받기	8.1	9.7	6.5	3.4	1.9	5.4	1.9	1.0	1.0
돈이나 물건 뺏김	11.3	1.6	6.5	7.1	0.4	2.0	5.7	1.9	2.4
심하게 얻어맞기	8.1	4.8	6.5	7.3	0.7	2.0	7.1	0.5	2.4
성폭력 당하기	1.6	0.0	1.6	2.0	0.4	0.9	1.4	0.0	1.0

먼저 피해 행동은 학업중단 전에 가장 심했다가 학업중단 후에는 많이 사라지지만, 다시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결과를 보면 동일한 학생집단에 대하여 비율을 측정한 결과이므로 시기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업중단 전과 학업중단 후의 변화가 크다는 것은 대부분 학교에서 이러한 피해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 이러한 피해 행동의 경험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지만, 점차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시 피해 행동의 경험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방법에 따라 문제 행동의 경험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25 문제 행동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일반 학생
	중단전	중단후	최근 1년	중단전	중단후	최근 1년	중단전	중단후	최근 1년	
담배 피우기	93.5	93.5	91.9	54.9	50.5	53.8	93.3	80.0	91.0	13.0
술 마시기	85.5	88.7	90.3	53.1	55.3	63.9	87.1	79.0	82.4	33.0
남의 돈/물건 훔치기	35.5	16.1	12.9	13.0	3.9	3.5	43.8	27.6	16.7	11.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43.5	21.0	16.1	15.8	5.4	4.8	37.6	20.5	14.8	12.0
남의 돈/물건 뺏기	30.6	12.9	9.7	14.5	4.3	2.6	40.0	19.0	13.3	5.6
음란물 보기	43.5	43.5	32.3	24.0	16.6	19.4	26.7	17.1	17.6	27.2
돈내기 도박 해보기	33.9	30.6	14.5	13.4	8.8	12.1	18.1	11.9	17.6	10.3
자살 시도	24.2	9.7	1.6	15.6	7.1	2.4	8.1	7.1	6.2	—
공공기물 물건 파손	32.3	22.6	17.7	17.7	8.0	7.4	25.7	17.6	11.9	15.2
약물(본드) 흡입	—	—	1.6	—	—	0.6	—	—	1.9	—

문제 행동은 피해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교에 있을 때 가장 심각하다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 행동은 최근으로 와서 다시 강화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영역별로 차이가 나타나는데, 소위 어른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술 마시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는 대부분의 경우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최근 1년의 경험 비율이 대부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행동의 특성을 나누어 보면,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흡치는 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 행동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술, 담배, 도박 등의 문제 행동은 다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동을 일반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음란물 보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

2) 의식의 변화

(1) 진로 탐색 경험 및 진로에 대한 의식

의식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진로에 대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먼저 진로 탐색의 경험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6 진로탐색 경험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부모님과 대화(1차년도)	2.63	1.059	3.19	.791	2.93	.839	17.441***
부모님과 대화	2.69	.879	3.08	.787	2.90	.886	8.503***
인터넷 검색(1차년도)	2.52	1.052	2.86	.958	2.54	.984	10.011***
인터넷 검색	2.56	.880	2.85	.943	2.63	.952	5.539**
공공기관 상담(1차년도)	1.79	.908	1.84	.979	1.69	.810	2.061
공공기관 상담	1.97	.940	1.75	.888	1.74	.853	1.794
관심 직업 종사자 만나 대화	2.19	1.006	2.17	1.029	2.19	1.035	.038
직업체험 경험	1.74	.808	1.74	.879	1.64	.791	1.061

분석 결과를 보면, 진로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경험은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높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보호관찰 청소년들보다도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진로 대화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기타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보호관찰 청소년과

14) 윤철경 외(2013)에서 활용한, 2012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결과 참조

비행경험형 청소년은 비슷한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에 찾아가 진로 상담을 받아보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새로 추가된 질문인 관심 있는 직업의 종사자를 만나서 대화해 본 경험이나 직업체험을 해본 경험에 대해서도 역시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해와 비교하여 최근 1년 사이의 값이 차이를 보이는지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해 본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진로에 관련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확인해 보았다. 진로정보 획득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불안감, 진로 선택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항목에 대해서 세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각 항목은 4~5개의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7 **진로장애에 대한 인식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진로정보획득 어려움	2.31	.569	2.27	.547	2.38	.630	2.669
진로에 대한 불안감	2.31	.733	2.22	.678	2.26	.779	.750
진로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2.20	.677	2.09	.726	2.17	.757	1.336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조사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점 척도에서 평균 2점대 초반이므로 대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진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는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진로정보 획득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 더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진로 계획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진로 계획을 10가지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이 문항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모두 들어있어서 비교가 가능하다. 다음의 <표 28>은 1차년도의 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2차년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표 28

1차년도와 2차년도의 학생진로 교차분석

2차년도 1차년도	진로 미결정	정규 학교 복학	대안 학교 진학	해외 유학	검정 고시 준비	취창업 예정	직업 교육 훈련	취업 진학 병행	아르 바이트	무보수 가업	계
진로 미결정	31 (26.5)	46 (39.3)	4 (3.4)	2 (1.7)	14 (12.0)	8 (6.8)	6 (5.1)	1 (0.9)	5 (4.3)	0 (0.0)	117 (100)
정규학교 복학	18 (10.7)	127 (75.1)	1 (0.6)	2 (1.2)	8 (4.7)	9 (5.3)	2 (1.2)	2 (1.2)	0 (0.0)	0 (0.0)	169 (100)
대안학교 진학	1 (9.1)	4 (36.4)	3 (27.3)	0 (0.0)	1 (9.1)	1 (9.1)	1 (9.1)	0 (0.0)	0 (0.0)	0 (0.0)	11 (100)
해외 유학	1 (4.3)	13 (56.5)	1 (4.3)	5 (21.7)	1 (4.3)	2 (8.7)	0 (0.0)	0 (0.0)	0 (0.0)	0 (0.0)	23 (100)
검정고시 준비	26 (13.6)	113 (59.2)	2 (1.0)	2 (1.0)	23 (12.0)	18 (9.4)	4 (2.1)	2 (1.0)	1 (0.5)	0 (0.0)	191 (100)
취·창업 예정	7 (18.4)	7 (18.4)	0 (0.0)	1 (2.6)	5 (13.2)	7 (18.4)	3 (7.9)	4 (10.5)	4 (10.5)	0 (0.0)	38 (100)
직업교육훈련	4 (14.3)	8 (28.6)	0 (0.0)	0 (0.0)	2 (7.1)	4 (14.3)	6 (21.4)	4 (14.3)	0 (0.0)	0 (0.0)	28 (100)
취업진학 병행	0 (0.0)	3 (30.0)	0 (0.0)	0 (0.0)	1 (10.0)	3 (30.0)	1 (10.0)	1 (10.0)	1 (10.0)	0 (0.0)	10 (100)
아르바이트	2 (22.2)	0 (0.0)	0 (0.0)	1 (11.1)	2 (22.2)	2 (22.2)	0 (0.0)	1 (11.1)	0 (0.0)	1 (11.1)	9 (100)
무보수 가업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0 (0.0)	0 (0.0)	1 (33.3)	1 (33.3)	3 (100)
계	90 (15.0)	321 (53.6)	11 (1.8)	13 (2.2)	57 (9.5)	55 (9.2)	23 (3.8)	15 (2.5)	12 (2.0)	2 (0.3)	599 (100)

위의 표를 보면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음영 처리된 부분은 1차년도와 2차년도에 동일하게 응답한 사례가 된다. 즉, 최근 1년 동안 진로에 대한 계획이 바뀌지 않은 청소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응답대상자 599명 중에서 이러한 사례는 204명으로 34.1%에 해당한다. 이것은 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 1/3 정도는 최근 1년 사이에 진로 계획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1년 사이의 지속률이 가장 강한 진로는 정규학교 복학으로, 1년 전에 정규학교 복학을 하겠다고 생각한 169명 중에서 75.1%인 127명이 여전히 정규학교 복학을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진로 미결정이라고 응답했던 117명 중에서 39.3%인 46명이 정규학교로 복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며,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응답했던 191명 중에서 59.2%인 113명이 역시 정규학교로 복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력 취득의 문제인데, 학업중단 초기에는 검정고시에 대한 선호도(31.9%)가 정규학교 복학(28.2%)에 대한 선호도보다 높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는 정규학교 복학(53.6%)이 압도적으로 늘어났고, 검정고시는 9.5%로 크게 줄어들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중단 초기에는 학교를 벗어나 검정고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진로계획의 달성 가능성과 교육 기대수준을 질문하였다.

표 29 **진로계획의 달성 가능성과 교육 기대수준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54)		기타학업중단 (N=455)		보호관찰 (N=131)		F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진로 계획 달성 예측(1차년도)	2.91	.701	3.25	.595	3.22	.613	12.912***
진로 계획 달성 예측	3.06	.596	3.15	.620	3.15	.673	.579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1차년도)	2.84	.978	3.37	1.066	3.32	1.069	14.153***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	3.05	1.047	3.41	1.034	2.70	1.072	35.149***

자신이 원하는 진로 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기대치가 약간 낮기는 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에서는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은 3.41로 평균적으로 초대졸에서 대졸 사이를 희망하고 있었고,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3.05로 초대졸 수준,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2.70으로 고졸이나 초대졸 수준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었다.

지난해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진로 계획 달성 예측은 약간 상승하였지만, 다른 집단에서는 하락하면서 집단 간 차이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자신의 진로 계획 달성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인의 교육 기대수준에 대해서는 약간씩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보호관찰 청소년에서만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차츰 대학입학보다는 고졸 방향으로 계획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변수 모두 1차년도와 2차년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것은 각 집단별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사회에 대한 인식

이번에는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력에 대한 사회의 생각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30 학력에 대한 인식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학력이 대우받음(1차년도)	3.13	.896	3.36	.699			5.757*
고학력이 대우받음	3.18	.779	3.25	.712	3.07	.858	4.211*
대학졸업 차별심함(1차년도)	2.95	.858	3.09	.782			1.599
대학졸업 차별심함	2.89	.791	3.00	.758	2.86	.943	2.570
중퇴는 취업어려움(1차년도)	2.77	.948	2.77	.929			.000
중퇴는 취업어려움	2.68	.937	2.67	.877	2.69	.977	.035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이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매우 높았으며, 특히 기타학업중단 청소년 중에서는 3.25의 응답을 보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고학력이 대우받는 사회라고 응답해 주었다. 대학졸업에 대한 차별이 심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점수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3점에 가까운 동의가 높았다. 중퇴 학력으로는 취업이 어렵다는 인식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집단에서 2.68 정도의 점수를 보여주었다. 보호관찰 청소년은 1차년도에 응답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화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에 대해서만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도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아직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1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원하면 대학진학가능(1차년도)	2.58	.801	2.96	.787	2.58	.952	19.110***
원하면 대학진학가능	2.71	.868	2.88	.779	2.64	.849	6.399**
열심히 하면 희망적(1차년도)	3.10	.670	3.27	.652	3.07	.856	6.922***
열심히 하면 희망적	2.98	.700	3.08	.708	3.04	.806	.526
내가 성공한다 생각(1차년도)	3.02	.859	3.15	.711	3.11	.798	.977
내가 성공한다 생각	3.02	.751	3.02	.709	3.10	.795	.936

자신이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생각은 긍정과 부정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며,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는 진술에 대해서도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 집단 모두 지난해에 비해서는 점수가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 평균 3점 이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시기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상자 전체로 했을 때에는 열심히 하면 희망적이라는 진술과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한다는 진술에 대해서 변화가 나타났다. 두 진술에 대해서 모두 점수가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1년을 더 살아보면서 성공과 희망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자신의 성공에 대한 생각 비교

구분	사례수	1차년도	2차년도	차이	t
원하면 대학진학가능	725	2.79(.859)	2.80(.813)	.01(.949)	.391
열심히 하면 희망적	725	3.18(.726)	3.06(.736)	-.12(.029)	-4.047***
내가 성공한다 생각	725	3.11(.750)	3.04(.737)	-.07(.029)	-2.335*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그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생각보다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질문에 대하여 2점 근처의 응답이 나왔고, 이것은 사회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3 사회에 대한 인식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는 나를 부정적으로 본다	2.11	0.680	2.09	0.703	2.08	0.744	.050
사회는 나를 열등하게 본다	2.03	0.677	2.03	0.694	2.05	0.707	.068
관계 속에서 다르게 취급 받는다	2.05	0.664	2.05	0.756	2.08	0.735	.121

인간다운 대접을 못 받는다	1.82	0.529	1.84	0.650	1.92	0.673	1.388
나를 문제 있는 존재로 본다	2.02	0.665	1.96	0.746	2.00	0.732	.316
편안함을 느낀다	2.31	0.692	2.29	0.712	2.30	0.757	.027
사회에 의해 희생되었다	1.87	0.461	1.86	0.635	1.86	0.610	.015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1.85	0.568	1.85	0.657	1.89	0.714	.245

다음으로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세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각 항목에 대하여 2.75에서 3.11로 비교적 긍정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반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이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보호관찰 청소년들은 훨씬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집단에 따라서 청소년 자립 프로그램의 필요도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직업기술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기회가 늘어야 한다는 것이 평균 3.00으로 가장 높았고 저축, 돈 관리 등 실생활속의 경제교육과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2.95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동기부여 프로그램, 자립 프로그램 등은 필요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에 쏠떡을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들, 특히 직업과 경제적 자립에 관련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표 34 **자립에 필요한 프로그램 비교**

항목	비행경험형 (N=62)		기타학업중단 (N=537)		보호관찰 (N=210)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동기부여 프로그램	2.68	0.825	2.75	0.813	2.35	0.854	17.427***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2.63	0.794	2.81	0.769	2.40	0.844	21.074***
성인안내자의 도움 필요	2.69	0.759	2.81	0.798	2.46	0.881	14.382***
취업연계 실질적인 학업준비	2.97	0.746	3.03	0.745	2.65	0.857	17.614***
기술, 자격증 교육기회 확대	3.08	0.708	3.11	0.750	2.70	0.906	19.966***
직업체험 진로탐색 프로그램	2.90	0.740	3.04	0.780	2.70	0.867	13.690***
취업/진학 진로지도 강화	2.82	0.820	2.98	0.781	2.59	0.872	17.244***
사회관계 훈련 제공	2.73	0.750	2.96	0.792	2.51	0.865	24.032***
실생활 속 경제교육	2.84	0.751	3.04	0.785	2.75	0.906	9.970***

IV. 요약 및 결론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환경적 특성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환경에 있어서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많고 공부나 직업 훈련 시간이 적었다. 하지만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지난해에 비해서 1시간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적으로 보면 식사습관 등이 첫해에 비해서 개선되고 있었다.

심리적 특성에서는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 모두 기타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중간에 위치했다. 자아존중감은 일반학생들보다 낮았지만, 자아탄력성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일반학생보다 높았다. 우울감은 통계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비행경험형 청소년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충동성은 비행경험형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환경적 특성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에 대해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부모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또래에 비해 친한 친구의 수가 많았다. 지역사회 사회통합 정도에서는 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서 지역사회의 사회통합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비행경험형 청소년에게 있어서 부모의 학대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친구의 비행성향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사회 사회통합에 대한 인식은 낮아졌다.

다음으로 학교 경험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의 경험에서는 교사 관계나 친구 관계가 세 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일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부적응의 경우 일반학생보다 훨씬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의 학습 부적응이 가장 높았다. 학교규정 위반 횟수 역시 일반 학생에 비해 많았으며, 비행경험형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당시의 학교 성적은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서 비행경험형 청소년이나 보호관찰 청소년이 낮았다.

학업중단의 경험을 살펴보면, 학교를 그만두며 가장 하고 싶던 일은 실컷 놀거나 돈을 버는 것이었다. 69.3%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중단 이후 복학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복학해서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시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에서 이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업 중단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은 주로 부모님이나 친구, 선배였고, 학업중단 이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진로 상담과 생활 정보 제공이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에게서는 직업기술 훈련 교육과 일자리 소개의 희망도 높았다.

학교에 대한 생각을 보면,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이므로 현재에 만족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비행경험형 청소년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 초기년도에는 학업중단 사실을 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고 문제가 취급받는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1년이 지나면 그런 마음이 누그러졌다.

중단 후 생활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생활의 경험과 변화에서는 최근 1년간 보호관찰을 경험한 학생이 전체적으로는 30.7%였으며, 특히 비행경험형 청소년 71.0%, 보호관찰 청소년의 92.4%가 경험이 있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인 멘토를 만나지 못했다는 응답은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 38.7%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아르바이트는 주로 음식점 서빙이나 배달을 위주로 하는데, 비행경험형 청소년이나 보호관찰 청소년에서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동아리나 카페 활동은 학업중단 청소년 중의 20.5% 정도가 참여하며 주된 이유는 재미를 위해서였다. 게임중독 영역에서는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중독위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단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장 위험이 높았다. SNS 상에서의 문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많이 겪고 있었고, 스마트폰 중독은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기타학업중단 청소년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피해 행동의 경우에는 중단전에는 높다가 학업을 중단하면 급격히 줄어들고,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문제 행동의 경우에는 중단전과 후의 변화는 비슷하지만, 가해 행동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술, 담배, 도박 등 일반적인 문제 행동은 늘어나고 있었다.

의식의 변화에서는 진로탐색을 위해 부모님과 대화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의 활동이 비행경험형 청소년에서 낮게 나타났다. 진로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고 있었다. 약 30% 정도의 청소년들이 1차년도에 비해서 진로 계획에 변화가 없었다. 1년 사이 가장 큰 변화는 정규학교 복학 희망 학생이 많아진 것이다. 초기에는 검정고시 응시 의사가 높지만, 차츰 학교 복학으로 진로 계획이 변화한다. 자신의 진로 계획이 달성될 것이라고 보는 비율은 비행경험형 청소년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기대하는 교육 수준은 초대졸 수준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고학력이 대우받는다고 느끼고 있다. 본인이 원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비행경험형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이 약간 낮았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1년 전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아졌다. 사회가 자신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고 인식하지는 않았고, 기술, 자격증 교육기회의 확대나 실생활 속 경제 교육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들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 사항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기타학업중단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일반적인 학업중단의 단계를 거쳐 비행을 경험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보호관찰을 경험한 청소년들도 많지만, 이 단계에서 이들의 비행을 확실히 제어할 수 있어야만 더 심각한 단계로 진행되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초기 학업중단 단계에서 게임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학습이나 교육 시간을 많이 갖지 않는 등의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각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보호관찰 청소년에 비해 높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사전 대처가 더해진다면 충분히 비행 경험을 종료할 수 있는 학생들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비행경험형 청소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과 부모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지원이 더해지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학업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이미 학교생활 단계에서 교사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문제 행동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담교사 확충 등으로 이들의 학교 부적응을 개선하고, 문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학교규정 위반 횟수가 많다는 점은 학교규정을 어기는 학생들은 학업 중단 이후에도 비행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서 학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규학교에 복학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지만, 복학 이후 재적응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당시에는 검정고시를 많이 생각하지만, 1년만 지나도 다시 복학해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청소년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복학한 이후 다시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았다. 복학을 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지해주는 제도적 기반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1년 정도 자유를 만끽한 이후 정규학교 복학에 대한

희망을 품는 학생들에게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학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그 사실을 남에게 알리기 싫어하고 문제가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걱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마음도 누그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 등에 대한 필요는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는 학업중단으로 인한 마음의 짐을 청소년들이 혼자서 떠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극복하고 있는 상태인데, 학업중단 초기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이들은 개론적인 의미에서의 학업중단 학생 지원보다는 기술 및 자격증 교육이나 경제교육 등 성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학교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그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되,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박창남 외(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까지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9(2), 125-154.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 청소년 및 대안교육 실태조사(CR 2002-9).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철경, 류방란, 김선아(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연구보고 10-R33).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조아미(2014).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I 데이터 분석 보고서(연구보고 14-R19-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진로교육연구, 18(2), 41-64.
- 이혜영(2001). 학업중도탈락의 실태와 학교에서의 대처방안,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7-23.

조규필, 박현진, 김래선, 김범구, 양대희, 이현진, 황수진(2011).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교 재적응 과정 연구. 중등교육연구, 59(4), 969-1000.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연구보고 RR 2010-12).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발표 5

.....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험 경로의 차이: 일반 학업중단 패널과 보호관찰 패널의 비교

박 성 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행경험 경로의 차이: 일반 학업중단 패널과 보호관찰 패널의 비교

1. 서론

1차 조사데이터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비행경로모형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긍정적 활동에의 참여정도가 낮을수록, 친구와의 애착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중단 이후 부정적 낙인과 같은 새로운 긴장요인이 높을수록 비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초 학업중단 시점이 빠르고, 학업중단 이전의 성적이 낮으며, 문제행동 때문에 학교에서 ‘쫓린’ 청소년일수록 참여의 정도가 낮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낮은 참여는 긍정적 활동보다는 비구조화된 활동에 노출을 증가시킴으로써 심각한 비행으로 이어지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성훈·전영실, 201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중단 이후 비행경험에 있어 긴장요인 보다 유대요인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학업중단과 비행 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통제이론의 적용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성취(Katsiyannis et al., 2008)라든지 무단결석(Henry et al., 2012), 가족과의 소원한 관계(최옥 채·이정미, 2006), 부모의 훈육방식(김성곤, 2005), 도움을 주는 외부사람(송순용·양철호, 2009) 등 청소년을 둘러싼 학교, 가정,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약화될 때 학업중단은 물론 학업중단 이후 비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통제이론은 기본적으로 애착(attachment), 관여(committment), 참여(involvement), 신념(belief)으로 요약되는 유대요인(social bonds)이 약화될 때 비행이나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Hirschi, 1969). 그러나 사회통제이론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긍정적 유대요인의 약화뿐 아니라 유대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존재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가 증가할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학업중단과 비행 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사회통제이론을 적용하되 긍정적 측면의 보호요인과 부정적 측면의 위험요인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1차 조사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초 학업중단시기가 빠를수록 인습적

활동에 대한 참여가능성을 낮추고, 그로 인해 비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관찰패널의 경우에는 다른 요인은 모두 관계가 없는 반면, 최초 학업중단시기만 유일하게 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박성훈·전영실, 2014).

이 연구는 지난 1차 조사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의 연장선상에서 비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학업중단시기에 주목하는 한편 사회통제이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관심을 갖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보호관찰패널’과 일반패널 가운데 시퀀스 분석(sequence analysis)을 통해 분류된 ‘비행경험패널’을 대상으로 비행경험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학업중단 이후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1차 조사데이터와 2차 조사데이터 기초로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시퀀스 분석은 시계열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경험들의 배열에 대한 유사성과 비유사성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사건배열에 대한 유사성을 계량적 수치(거리값)로 산출하며, 이를 통해 산출된 거리값을 바탕으로 경험사건의 배열에 대한 군집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혼재→학업전환형’, ‘혼재→무업형’, ‘직업지향형’, ‘학업지속형’, ‘비행경험형’ 등 5개 군집이 도출되었다(김강호, 2015).

이 연구에서는 5개의 군집 가운데 ‘비행경험형’에 주목하고, 이들 집단에 속한 학업중단청소년과 ‘보호관찰패널’에 속한 학업중단청소년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두 집단의 표본 특성은 <표 1>과 같다. 두 집단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며, 연령분포 역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패널(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 표본의 특성

		일반패널(비행 경험)	보호관찰패널	계
성별	남자	53 (85.5)	160 (76.2)	213 (78.3)
	여자	9 (14.5)	50 (23.8)	59 (21.7)
연령별	13-14세	1 (1.6)	6 (2.9)	7 (2.6)
	15세	3 (4.8)	10 (4.8)	13 (4.8)
	16세	10 (16.1)	37 (17.6)	47 (17.3)
	17세	17 (27.4)	53 (25.2)	70 (25.7)
	18세	19 (30.7)	61 (29.1)	80 (29.4)
	19-20세	12 (19.4)	43 (20.5)	55 (20.2)
	계	62 (100.0)	210 (100.0)	272 (100.0)

이 연구에서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비행경험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1) 일반패널의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 간에 학업중단시기의 차이가 있는가? (2) 만일 차이가 있다면, 보호관찰패널과 일반패널의 비행경험집단 중 어떤 집단이 더 이른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가? (3) 보호관찰패널과 일반패널의 비행경험집단 간에 학업중단시기의 차이를 야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특히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경험이 학업중단시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학업중단 이후 사회유대의 약화가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하여 (1) 전년도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변화가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3)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일반패널의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 간에 차이가 있는지 등을 종단 설계를 통한 로짓분석(logit analysis)을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비행경험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시점을 연령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후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이 최초로 발생한 시기는 보호관찰패널 149개월(12.4세), 비행경험집단 162개월(13.5세)로 보호관찰패널이 약 1년 정도 이른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0개월(15.8세)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비행경험집단은 24.2%가 학업을 중단한 반면에 보호관찰패널은 38.6%가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0개월을 기준으로 한 시점에서는 비행경험집단의 58.1%, 보호관찰패널의 75.7%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보호관찰패널의 학업중단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생존함수(survival function)의 비교

비행경험집단				보호관찰패널			
Time	Total	Fail	Failure Function	Time	Total	Fail	Failure Function
162	62	1	0.016	149	210	1	0.005
190	49	2	0.242	190	132	3	0.386
200	28	2	0.581	200	56	5	0.757
210	12	1	0.823	210	26	8	0.914
221	2	1	0.984	222	1	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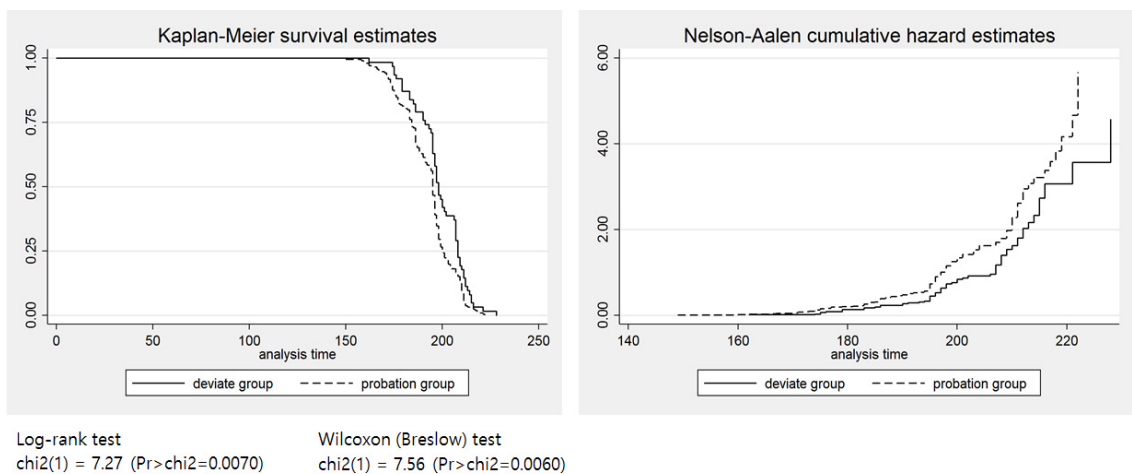


그림 1.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집단의 학업중단시기에 대한 생존함수와 위험함수

이러한 두 집단 간 차이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래프는 각 시점마다 두 집단의 생존율(survival rate)을 나타낸 것으로 보호관찰패널의 생존율이 비행경험집단의 생존율에 비해 더 이른 시기에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각 시점의 생존 함수(survival function)를 해저드 함수로(hazard function)로 바꾼 두 번째 그래프에서도 보호관찰패널의 해저드 비율(hazard rate)이 비행경험집단에 비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검증 결과, 두 집단 간 생존함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비행경험집단에 비해 보호관찰패널의 학업중단이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될 뿐 아니라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업중단의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성별, 연령과 같은 인구특성, 학업중단 시 학교성적¹⁵⁾, 학업중단 시 부모님과 교사의 만류¹⁶⁾, 무단결석이 시작된 시기¹⁷⁾ 등 학업중단 시 관련요인, 그리고 학업중단 이전의 음주여부, 흡연여부¹⁸⁾, 비행경험¹⁹⁾, 피해경험²⁰⁾ 등 비행경험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종속변인은 학업중단시기(월 단위)로 설정하여 사건사 분석(Cox 모형)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15) 학업중단 시 학업성적(1차설문 문5)은 최하위권 '1점'부터 최상위권 '7점'까지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16) 학업중단 시 부모 및 교사만류(1차설문 문11, 문12)는 '학업을 중단하려고 했을 때 부모님이(학교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셨다(1)'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17) 무단결석 시기(1차설문 문14-1)는 '학교를 나가기 싫어서 결석하기 시작한 일은 언제 처음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으로 코딩하였다.

18) 학업중단 이전 음주(1차설문 문37-2)와 흡연(1차설문 문37-1)은 '학업중단 이전에 술 마신 적(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1)', '없다(0)'로 처리하였다.

19) 학업중단 이전 비행경험은 '남의 돈이나 물건 훔치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남의 돈이나 물건 뺏기', '음란물 보기', '돈내기 도박 해보기', '공공장소에 있는 기물이나 물건 파손하기' 등 6개 비행경험 중 한번이라도 경험이 있으면 '있음(1)', 없으면 '없음(0)'으로 처리하였다.

20) 학업중단 이전 피해경험은 '집다따돌림 당하기', '성적인 놀림 당하기', '문자나 메신저로 일방적인 음란물 받기',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뺏기기', '심하게 얻어맞기', '성폭력 당하기' 등 6개의 피해경험 중 한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면 '있음(1)', 없으면 '없음(0)'으로 처리하였다.

표 3. 학업중단 이전의 비행경험이 학업중단시기에 미치는 영향-Cox모형

	비행경험집단		보호관찰집단	
	계수	z 값	계수	z 값
성별(1=여자)	0.33	(0.71)	0.08	(0.45)
연령	-1.23	(-5.43)**	-0.85	(-9.01)**
학업중단 시 성적	-0.17	(-1.18)	-0.03	(-0.53)
학업중단 시 부모만류	0.04	(0.11)	0.14	(0.92)
학업중단 시 교사만류	0.21	(0.67)	-0.09	(-0.58)
무단결석시기	-0.23	(-0.83)	-0.44	(-3.14)**
학업중단이전 음주	0.23	(0.35)	-0.02	(-0.06)
학업중단이전 흡연	-0.65	(-0.72)	-0.17	(-0.50)
학업중단이전 비행경험	0.38	(1.02)	0.29	(1.79) [†]
학업중단이전 피해경험	-0.04	(-0.09)	-0.05	(-0.26)
	N=57		N=201	
	LR chi2(10)=42.74**		LR chi2(10)=100.84**	

[†]p<0.1 *p<0.05 **p<0.01

분석 결과, 비행경험집단은 연령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반면,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연령, 무단결석시기, 학업중단이전의 가해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비행경험 집단이나 보호관찰패널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더 일찍 학업중단을 경험하는 것은 공통적이나, 비행경험집단은 연령 이외에 다른 변인은 학업중단을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보호관찰패널은 무단결석을 더 일찍 경험할수록, 학업중단 이전에 재산비행을 비롯한 폭력비행을 저지를수록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 역시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 시 성적이라든지 음주·흡연과 같은 지위비행, 피해경험 등은 학업중단시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Cox 모형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의 발생시점에 대한 해저드 함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180개월(15세)을 기점으로 보호관찰패널의 학업중단가능성이 비행경험 집단에 비해 점차 커지면서 216개월(18세)에 두 집단 간 학업중단가능성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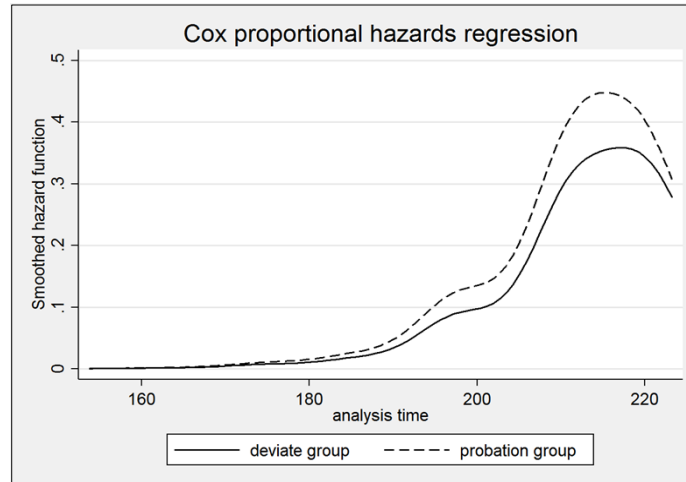


그림 2. 학업중단 시기에 대한 Cox 해저드 함수

이러한 차이는 앞서 분석한 결과를 고려할 때, 무단결석시기와 학업중단이전 비행경험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이른 시기부터 무단결석이 시작되고 재산비행 및 폭력비행과 같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일수록 더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단결석은 적어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게는 학업중단의 게이트(gate)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4. 학업중단 이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이번 연구는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1차 조사자료는 물론 2차 조사자료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의 패널분석은 어렵지만 종단적 모형의 설계를 통한 분석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1차년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2차년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재비행 여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시간을 고려한 로짓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종속변인으로서 재비행은 <표 4>와 같이 ‘학업중단 전 비행 → 2차년도 비행’, ‘1차년도 비행 → 2차년도 비행’, ‘학업중단 전 비행 → 1차년도 비행 → 2차년도 비행’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속한 경우를 재비행(1)으로, 나머지 경우는 해당없음(0)으로 코딩을 하였다.

표 4.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 여부

구분	비행경험집단		보호관찰패널	
	빈도수	(%)	빈도수	(%)
재비행	17	(27.4)	23	(10.9)
해당없음	45	(72.6)	187	(89.1)
계	62	(100.0)	210	(100.0)

보호요인은 아르바이트 시간²¹⁾, 수업참여 시간²²⁾, 개인공부 시간²³⁾, 취미·동아리활동 시간²⁴⁾ 등 인습적 활동의 참여, 부모애착²⁵⁾, 친구애착²⁶⁾ 등 애착, 지역사회의 유대²⁷⁾,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²⁸⁾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요인으로는 혼자서 보내는 시간²⁹⁾, 친구와 몰려다니는 시간³⁰⁾ 등 비구조화된 활동의 참여, 부모에 의한 신체·언어적 학대³¹⁾, 친구의 비행성향³²⁾, 지역의

- 21) 아르바이트 시간(1차설문 문19-2, 2차설문 문10-3)은 ‘하루에 몇 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없음(0)’, ‘6시간 미만(1)’,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2)’, ‘9시간 이상(3)’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 22) 수업참여 시간(1차설문 문32-2, 2차설문 문27-2)은 ‘나는 하루 24시간 중 학교나 대안학교,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략...’에 대한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없음(0)’, ‘4시간 이하(1)’, ‘5시간 이상 8시간 이하(2)’, ‘9시간 이상(3)’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 23) 개인공부 시간(1차설문 문32-4, 2차설문 문27-4)은 ‘나는 하루 24시간 중 숙제, 시험준비, 자격증을 따기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대략...’에 대한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없음(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3)’, ‘4시간 이상(4)’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 24) 취미·동아리활동 시간(1차설문 문32-6, 2차설문 문27-6)은 ‘나는 하루 24시간 중 운동, 취미, 동아리, 교회나 성당에 가는 시간이 대략...’에 대한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없음(0)’,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1)’,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2)’,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3)’, ‘4시간 이상(4)’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 25) 부모애착(1차설문 문27, 2차설문 문22)은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 ‘고민을 들어 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실망하거나 좌절할 때 위로해 주신다’ 등 5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26) 친구애착(1차설문 문30, 2차설문 문25)은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 준다’,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친구들을 믿는다’ 등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27) 지역사회의 유대(1차설문 문31, 2차설문 문26)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잘 알고 지낸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우리 동네 어른들은 꾸짖는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혼내고 말린다’ 등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28)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1차설문 문34, 2차설문 문30)은 ‘나는 내가 원하면 대학을 갈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앞날이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성공할거라고 생각한다’ 등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29) 혼자서 보내는 시간(1차설문 문32-5, 2차설문 문27-5)은 ‘나는 하루 24시간 중 휴대전화기, 컴퓨터, 게임, TV 등을 보면서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략...’에 대한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없음(0)’, ‘1시간 이하(1)’, ‘2시간 이하(2)’, ‘3시간 이하(3)’, ‘4시간 이하(4)’, ‘5시간 이하(5)’,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6)’, ‘8시간 이상(7)’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 30) 친구와 몰려다니는 시간(1차설문 문32-7, 2차설문 문27-7)은 ‘나는 하루 24시간 중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거나 노는 시간이 대략...’에 대한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해당 없음(0)’, ‘1시간 이하(1)’, ‘2시간 이하(2)’, ‘3시간 이하(3)’, ‘4시간 이하(4)’, ‘5시간 이하(5)’,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6)’, ‘8시간 이상(7)’으로 재부호화 하였다.

무질서³³⁾를 고려하였다.

각각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 간의 평균비교는 물론 각 변인마다 변화량도 살펴볼 수 있다. 두 집단 간 평균차이 검증결과, 대체로 모든 변인들에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1차년도에 수업참여시간은 비행경험집단이 보호관찰패널에 비해 통계적인 유의수준에서 높지만 2차년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부모학대(1차설문 문28, 2차설문 문23)은 ‘화를 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대로 들고 때리셨다’,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때리려고 하셨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때린 적이 많다’,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 등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2) 친구의 비행성향(1차설문 문30, 2차설문 문25)은 ‘내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잘 괴롭힌다’,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잘 때린다’, ‘내 친구들은 물건을 잘 훔친다’ 등 3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3) 지역사회의 유대(1차설문 문31, 2차설문 문26)는 ‘우리 동네는 관리하지 않는 빈집이나 공터가 많다’, ‘우리 동네는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 ‘우리 동네는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우리 동네는 불량한 청소년들이 함께 물려다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등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5. 학업중단 이후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기술통계

독립 변인	구 분	최소	최대	비행 경험집 단		보호 관찰패 널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호 아르바이트시간	1차	0	3	0.48	(0.97)	0.70	(1.17)	-1.30	
요인	2차	0	3	0.89	(1.26)	1.00	(1.29)	-0.61	
수업참여시간	1차	0	3	0.55	(0.82)	0.21	(0.58)	3.64**	
	2차	0	3	0.55	(0.90)	0.39	(0.81)	1.31	
개인공부시간	1차	0	4	0.81	(1.33)	0.59	(1.18)	1.23	
	2차	0	4	1.05	(1.31)	0.76	(1.29)	1.56	
취미·동아리활동시간	1차	0	3	0.53	(0.99)	0.57	(0.94)	-0.28	
	2차	0	3	0.55	(0.95)	0.43	(0.85)	0.95	
부모애착	1차	1	4	2.85	(0.72)	2.99	(0.65)	-1.44	
	2차	1	4	2.92	(0.63)	2.99	(0.65)	-0.72	
친구애착	1차	2	4	3.12	(0.59)	3.21	(0.55)	-1.11	
	2차	1	4	3.15	(0.57)	3.20	(0.58)	-0.57	
지역사회유대	1차	1	4	2.54	(0.67)	2.54	(0.67)	0.06	
	2차	1	4	2.15	(0.72)	2.35	(0.71)	-1.92 ⁺	
미래긍정신념	1차	1	4	2.90	(0.63)	2.92	(0.72)	-0.21	
	2차	1	4	2.90	(0.69)	2.93	(0.70)	-0.24	
위험	혼자 보내는 시간	1차	0	7	3.56	(2.51)	2.52	(2.13)	3.24**
요인	2차	0	7	3.92	(2.42)	2.41	(2.25)	4.54**	
친구와 물려다니는 시간	1차	0	7	3.56	(2.41)	3.27	2.49	0.82	
	2차	0	7	2.89	(2.17)	2.68	2.57	0.57	
부모학대	1차	1	4	2.09	(0.87)	1.92	0.73	1.58	
	2차	1	4	1.48	(0.62)	1.63	0.63	-1.73 ⁺	
친구비행성향	1차	1	4	1.87	(0.70)	1.73	0.63	1.45	
	2차	1	4	1.66	(0.63)	1.66	0.68	0.06	
지역무질서	1차	1	4	2.32	(0.52)	2.23	0.69	0.93	
	2차	1	4	2.21	(0.71)	2.15	0.68	0.55	

[†]p<0.1 *p<0.05 **p<0.01

주목할 점은 혼자 보내는 시간은 비행경험집단이 보호관찰패널에 비해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높다는 사실이다. 특히 비행경험집단의 경우 혼자 보내는 시간이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유대는 1차년도의 경우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반면, 2차년도에는 보호관찰패널에서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학대의 경우 두 집단 모두 1차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정도에 있어 비행경험집단이 보호관찰패널에 비해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을 고려한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적 분석은 동일한 년도에 측정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효과를 비교하는 방법, 전년도 독립변인과 차년도 종속변인을 분석하는 방법, 독립변인의 변화량 차이에 따른 차년도 종속변인을 분석하는 방법, 독립변인의 변화량 차이에 따른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분석하는 방법 등 몇 가지 접근이 가능하다(김준호 외, 2006).

이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의 변화량이 차년도 종속변인에 미치는 방법을 택하되 독립변인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천정효과(ceiling effect)를 제거하기 위해 1차년도 독립변인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하였다. 즉 재비행은 학업중단 이전부터 1차년도를 거쳐 2차년도까지 비행을 지속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여 1차년도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2차년도까지 진행된 재비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는 동시에 각각의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변화량이 재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통제변인으로서는 성별, 연령, 학업중단시기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보호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6. 참조), 비행경험 집단에서는 1차년도 아르바이트시간, 아르바이트시간의 변화량, 수업참여시간의 변화량, 1차년도 개인공부시간, 개인공부시간의 변화량, 취미·동아리활동시간의 변화량, 1차년도 지역사회유대, 1차년도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전년도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할수록, 전년도에 비해 개인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전년도에 비해 취미·동아리활동을 더 많이 할수록, 전년도에 비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더 높아질수록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

흥미롭게도 인습적 활동 중에서 취미나 동아리활동은 재비행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아르바이트시간의 증가, 학교·학원·직업훈련기관에서의 수업참여의 증가, 개인공부시간의 증가는 오히려 재비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비행경험집단과 달리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부모애착의 변화량, 1차년도 친구애착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다른 보호요인은 재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년도에 비해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재비행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모형적합도가 매우 낮아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보호요인

에 의한 재비행의 설명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보호요인이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Logit모형

	비행경험집단		보호관찰집단	
	계수	z값	계수	z값
상수항	3.51	(0.47)	2.89	(1.03)
통계변인				
성별(1=여자)	-7.40	(-1.79) [†]	-0.85	(-0.99)
연령	-4.79	(-2.14)*	-0.04	(-0.13)
학업중단시기	1.75	(1.31)	-0.14	(-0.52)
보호요인				
아르바이트시간(1차)	2.28	(1.97)*	0.44	(1.53)
아르바이트시간(변화량)	1.66	(1.67) [†]	0.29	(1.28)
수업참여시간(1차)	-1.02	(-0.59)	-	-
수업참여시간(변화량)	2.94	(2.34)*	-	-
개인공부시간(1차)	3.88	(2.06)*	0.07	(0.24)
개인공부시간(변화량)	2.34	(2.23)*	0.03	(0.14)
취미/등아리시간(1차)	-1.72	(-1.36)	0.21	(0.57)
취미/등아리시간(변화량)	-4.42	(-2.36)*	0.06	(0.20)
부모애착(1차)	-1.08	(-0.51)	-0.02	(-0.03)
부모애착(변화량)	-4.91	(-1.41)	-1.01	(-1.91) [†]
친구애착(1차)	2.68	(0.92)	-1.36	(-2.26)*
친구애착(변화량)	3.25	(1.22)	-0.71	(-1.47)
지역사회유대(1차)	-3.81	(-1.70) [†]	-0.36	(-0.68)
지역사회유대(변화량)	0.78	(0.63)	0.35	(0.81)
미래긍정신념(1차)	-7.18	(-1.77) [†]	0.24	(0.47)
미래긍정신념(변화량)	-8.61	(-2.35)*	-0.07	(-0.15)
	N=56		N=204	
	LR chi2(18)=33.33*		LR chi2(17)=24.24	
	Pseudo R ² =0.529		Pseudo R ² =0.174	

[†]p<0.1 *p<0.05 **p<0.01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표 7. 참조), 비행경험집단에서는 1차년도에 혼자 보내는 시간 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보호관찰패널에서는 성별, 1차년도 부모학대, 부모학대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전년도에 부모학대가 높을수록, 부모학대가 전년도에 비해 더 증가할수록 재비행의 정도 역시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이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경험집단의 경우 보호요인이 비행경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반면, 보호관찰패널의 경우에는 보호요인보다 위험요인이 학업중단 이후의 비행경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있다.

표 7. 위험요인이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에 미치는 영향-Logit모형

	비행경험집단		보호관찰집단	
	계수	z값	계수	z값
상수항	-1.39	(-0.35)	-0.34	(-0.16)
통계 변인				
성별(1=여자)	1.06	(0.87)	-1.75	(-2.03)*
연령	0.07	(0.13)	0.24	(0.83)
학업중단시기	0.11	(0.23)	-0.23	(-0.83)
위험요인				
혼자 보내는 시간(1차)	0.39	(1.69) ⁺	0.17	(1.26)
혼자 보내는 시간(변화량)	0.02	(0.13)	0.08	(0.66)
친구와 물려다니는 시간(1차)	0.36	(1.41)	-0.19	(-1.38)
친구와 물려다니는 시간(변화량)	0.21	(1.14)	-0.06	(-0.59)
부모학대(1차)	-0.60	(-0.82)	1.10	(2.44)*
부모학대(변화량)	0.12	(0.16)	1.40	(2.97)**
친구비행성향(1차)	-0.84	(-1.09)	0.19	(0.37)
친구비행성향(변화량)	1.22	(1.55)	-0.47	(-1.09)
지역무질서(1차)	-0.42	(-0.56)	-0.25	(-0.52)
지역무질서(변화량)	-0.95	(-1.36)	0.38	(0.86)
	N=62		N=209	
	LR chi2(13)=18.02		LR chi2(13)=23.32*	
	Pseudo R ² =0.247		Pseudo R ² =0.166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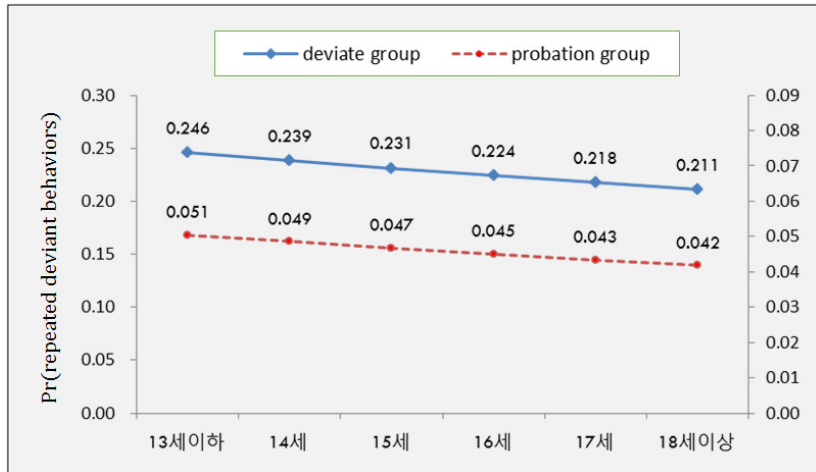


그림 3. 학업중단 시기에 따른 재비행 가능성

끝으로 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업중단시기에 따른 재비행의 가능성을 살펴보면(그림 3. 참조),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 모두 학업중단시기가 빠를수록 재비행의 가능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비행경험집단의 경우 13세 이하에서 재비행가능성은 24.6%인 반면 18세 이상에서는 21.1%로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 보호관찰패널 역시 13세 이하에서 5.1%인 반면에 18세 이상에서는 4.2%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두 집단 모두 기울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학업중단시기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5. 결론

이 글은 비행경험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과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특히 학업중단과 비행 간의 관계를 일반패널의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의 비교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 간 비행경로의 차이가 있는지를 다양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의 몇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분석대상에 포함된 청소년들은 대체로 13~14세(만12세~13세)를 전후로 학업중단이 시작되어 15세를 전후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업중단의 시기는 일반패널의 비행경험집단에 비해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일수록 더 빨리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발견되

었다.

둘째,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이 달랐는데, 비행경험집단은 연령이 낮을수록, 보호관찰패널은 연령이 낮을수록, 일찍부터 무단결석이 시작될수록, 학업중단 이전에 재산비행 및 폭력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학업을 더 빨리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비행경험이 학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보다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행경험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단결석이나 비행경험 등 이른바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업중단보다는 다른 이유(예를 들어, 학교부적응 등)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나누어 변화의 정도를 살펴본 결과, 비행경험집단과 보호관찰패널 간의 특성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에 나가 수업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은 비행경험집단이 보호관찰패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넷째,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비행경험집단은 아르바이트, 학교·학원·직업훈련기관 등 수업참여, 개인공부, 취미·동아리 활동,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 등 주로 보호요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르바이트나 학원 등 수업참여, 개인공부는 재비행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재비행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수업참여, 혼자서 공부하는 것 등은 인습적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취미·동아리활동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이전에 비해 더 높아질수록 재비행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보호관찰패널은 비행경험집단과 달리 보호요인에 의한 설명보다는 부모에 의한 학대와 같은 위험요인의 증가가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차년도에 비해 부모의 학대가 더 심해질수록 재비행의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가정환경이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사실 보호관찰패널의 경우 보호요인이 재비행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 집단의 경우 애초부터 보호요인이라고 할 만한 사회적 지지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여겨진다. 이처럼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으로 하여금 더 일찍 학업을 중단하게 만들고, 학업중단 이후 재비행에 이르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시점이 빠를수록 더 일찍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에 쉽게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홉 안제넨트·안톤 드 만, 1999: 18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비행경험집단은 유대나 지지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보다 높은 편이고, 이로 인해 인습적 활동에의 참여나 접근도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보호요인의 강화를 통해 재비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에는 열악한 가정환경이 개선되거나 회복되지 않는 한 재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비행경험집단보다는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집단의 재비행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나 대안도 전략을 달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무엇보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기에 학업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시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단결석과 비행경험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단결석, 장기결석 등 학교생활 부적응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개입 등을 통해 이들이 일찍부터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세심한 노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로 어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는 인습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각각의 인습적 활동이 갖고 있는 내용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아르바이트,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재비행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재비행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아르바이트를 권장하기보다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좀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만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진학이나 취업 등 일상적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강호(2015). 학업중단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유형과 특징. 학업중단 청소년패널조사 데이터분석을 위한 워크숍 발표문.
- 김성곤(2005). 비행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 환경·개인 심리적 변인과 재비행과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8: 165-217.
- 김준호, 박현수, 이윤영, 최수형, 박성훈(2006). 패널연구를 통해 본 종단적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사회*, 7(1): 201-230.
- 박성훈, 전영실(2014). 일반학업중단 청소년과 비행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 비행경로에 대한 비교. 217-244. 윤철경 외,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중단 후 경로: 학업중단 청소년패널조사 I 데이터분석 보고서.
- 송순용, 양철호 (2009). 보호관찰청소년의 재사회화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사회연구*, 17: 61-82.
- 최옥채, 이정미 (2006). 청소년의 재비행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교정연구*, 33: 143-167.
- 홉 안제넨트, 안톤 드 만 저. 노성호, 김지선, 이동원 역(1999). *청소년비행의 이해*.
- Henry, K. L., Knight, K. E., & Thornberry, T. P. (2012). School disengagement as a predictor of dropout, delinquency, and problem substance use during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41: 156-166.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atsiyannis, A., Ryan, J., Zhang, D., & Spann, A. (2008). Juvenile delinquency and recidivism: The impact of academic achievement, *Reading and Writing Quarterly* 24(2): 177-196.

토론 3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생활경험, 특성 및 변화 양상”에 관한 토론

정 제 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생활경험, 제 특성 및 변화 양상”에 관한 토론

1. 토론에 들어가며

오늘 발표를 맡아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한 2년간의 패널조사를 매우 흥미롭게 분석해주신 유성렬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교수님께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중에서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생활경험과 특성, 그리고 1차년도와 2차년도의 변화 양상에 대해 분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해 혼재·무업형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계적으로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발표문의 분석 결과는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삶과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생활과 학습적 경험의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정에서 활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 자체로의 완결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토론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관점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2. 학교중단 청소년의 유형 구분 관련

발표자께서는 1차년도 패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비행형’의 4가지 유형의 구분이 이론적 근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귀납적 관점으로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범주화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1년 간 생활을 바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발표자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범주화를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2년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PAM 알로리즘에 기초한 군집분석을 통해 추출된 5개 유형은 ‘직업지향형, 혼재·무업형, 비행경험형, 학업지속형, 학업전환형’으로 나누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5개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과정과 유형별 특징은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토론자는 ‘혼재·무업형’의 범주에 대해서만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혼재·무업형’이라는 용어가 해당 청소년들의 생활 특징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우선 ‘무업(無業)’은 사전적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대부분은 무업 상태일 것으로 생각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혼재(混在)’는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이므로 혼재와 무업의 합성은 어떤 의미일지 독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혼재·무업형 청소년의 특징으로 “이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시퀀스는 주로 혼재형과 무업형 양상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학업중단 초기에는 혼재형이 많이 나타나다가 이후 무업형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론자의 생각에는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에 특정한 진로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여 간헐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면 ‘방황지속형’이라는 용어로 범주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언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방황을 하겠지만 방황을 하다가 방향을 정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진로나 학업 계획을 설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방황을 하거나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고 ‘직업지향형, 학업지속형, 학업전환형’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비행경험형’과 같이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분류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3. 통계분석 결과 관련

발표자께서 분석해 주신 혼재·무업형 청소년들과 기타 청소년들의 차이분석 및 회귀분석 결과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 첨언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비교 분석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패넬조사에 일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추가하여 조사하는 것을 제언합니다. 이미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생활 특징을 더 잘 제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생들의 생활과 특성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학생을 별도로 샘플링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연구기관에서 기존에 이루어지고 패넬조사와 비교문항을 설정하여 조사한다면 별도의 샘플링이 없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분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둘째, 패넬조사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패넬조사의 기본 설문 문항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표원고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3차년도 연구로서 종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 또 다른 패넬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될 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패넬 구성에서 연령과 이유를 고려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발표문에서도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학업중단 연령이나 학업중단의 이유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분석에는 빠져 있어서 궁금합니다.

셋째, 차이분석에서 나타난 혼재·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나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동거 여부, 경제적 수준, 학업중단 당시의 성적에서 다른 유형과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정보의 제공이나 2013년 시행된 학업중단 숙려제가 큰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혼재·무업형 청소년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학업중단을 고민하는 학생들 중에서 부모와 동거하지 않거나 저소득층 가정,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자도 지적하였듯이 학업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는 혼재·무업형 보다는 다른 유형의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혼재 무업형 청소년들의 특징으로 나타난 것은 향후 진로 결정 수준이 낮고, 충동성이 높으며, 미래관은 낮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업중단 친구 수는 적고, 친구에 대한 애착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다른 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과 어떻게 다르게

지원해 주어야 할지에 대한 과제를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4. 토론을 마치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우리 사회의 학령인구 청소년들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 명의 청소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위주의 경쟁이 우리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생활과 특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발표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여 학업중단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적 과제입니다. 또한 매년 2%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와 연구기관의 노력과 함께 민간 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론 4

.....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 경험,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

조 아 미

(명지대학교 교수)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경험,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

비행 청소년의 개인적·환경적 특성, 학교 경험, 중단 후 생활 및 변화 양상에 대한 토론 원고를 쓰다보니 작년에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를 했던 경험이 떠올라 우선 연구자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 싶다.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자료는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만큼 얻기 어려운 자료다. 이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자료를 분석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고 그 작업이 지루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토를 달고 싶지 않다. 그러나 토론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족을 붙이고자 한다.

첫째, 비행경험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행경험형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는 기초발표원고를 보지 않아서 자세하게 알 수 없으나 <표 2>에 제시된 10개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10개의 문제행동을 보면, 각각의 문제행동의 경중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배 피우거나 술 마시기 등은 비교적 가벼운 지위비행이지만, 남의 돈/물건 뺏기나 자살 시도는 범죄이거나 심각한 비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이 다른 비행을 같이 고려한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행의 편차가 적고 경험이 적은 비행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살시도(1.03), 약물 흡입(1.01), 남의 돈/물건 뺏기(1.06), 남의 돈/물건 훔치기(1.08),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1.08), 공공기물 파손(1.09) 등은 경험비율이 너무 낮다.

또한 비행경험형은 전체 학업중단 청소년 중 62명(10.4%)에 불과하여 비행경험형의 특징을

제대로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후비교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비행경험형, 기타 학업중단형, 보호관찰형의 세 집단별로 개인·환경적 특성, 학교 경험의 특성, 중단 후 생활의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세 집단에 따른 각각의 변인들이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제시했을 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때, 사후비교분석을 통하여 어느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해석할 때에는 어느 집단이 어느 집단에 비해 어떠한 비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사후비교분석을 통해 그 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한편, 이 연구를 통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이해를 높이게 되었거나 현장의 사례를 설명해 주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후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가능해졌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고 학업중단 후 그들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 결과, 매우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과 같이 다소 긍정적인 것을 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지만 실컷 놀거나 돈 많이 벌기 등을 하고 싶어 하기도 하여 학업중단 이후 하고 싶은 일들이 다양하여 설명하는 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보니,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이들이 학업중단 이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 다른 유형의 청소년에게는 다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비행경험형 청소년들은 검정고시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이보다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과 복학 성공의 관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졌다.

작년 연구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의 복학에 관한 질문이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비행경험형, 기타 학업중단형, 보호관찰형의 세 집단간 학업 재중단 경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을 제시해 주고 있다.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 1차년도에 복학한 학생 중 최근 1년 안에 중단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50%였다. 이것은 기타 학업중단형 5.3%, 보호관찰

형 청소년 28.6%보다 높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연구의 17페이지 15-17줄 “결국 비행경험형 청소년 집단의 특성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처럼 완전한 범죄로 진행된 것은 아니지만,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경계선상에 서 있는 학생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에 있다고 본다. 즉 보호관찰형 청소년은 복교했을 때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학교를 그만두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학교규칙이 엄격한 학교에 복교했을 때는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비행경험형, 기타 학업중단형, 보호관찰형에 따라 게임중독과 스마트폰 중독에 차이가 있다.

사후비교분석 결과가 없어서 정확한 해석은 어렵지만,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 게임중독은 다른 집단 청소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스마트폰 중독은 그와 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이다. 기타 학업중단형 청소년은 비행경험형 청소년보다 게임중독 수준은 낮지만 스마트폰 중독 수준은 비슷하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이라고 생각되나 토론자로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학업중단이 필요하다(?).

특히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세 집단의 청소년 모두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학업중단 이전보다 중단 후, 최근 1년의 문제행동 경험비율이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비행경험형 청소년의 자살시도는 학업중단 이전 24.2%에서 중단 후 9.7%, 최근 1년 1.6%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다른 집단의 청소년의 경우에도 비행경험형 청소년보다는 덜하지만 학업중단 이전보다 이후에 오히려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일반학생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비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감소하였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럼 이제부터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감소를 위해서는 차라리 학업중단을 시켜야 하나?”라는 황당무계한 생각을 하게 한다.

토론 5



학업중단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비행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이 창 한

(동국대학교 교수)

학업중단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비행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토론문

범죄학자들은 청소년 비행행동의 시작과 지속을 사회제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 설명하는데 익숙하다.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조직 및 제도 등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한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긍정적이고 지지를 받으며 사회화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상호작용이 역기능적이고 붕괴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은 관습적인 성공이 불가능해지고, 비행이라는 대안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범죄학자들은 이러한 상호작용을 사회화의 과정으로 바라본다. 특히 청소년은 친구관계와 교육경험이 핵심적인 사회화 요소이다. 비행성이 있는 친구들과 접촉한다거나 공식적인 교육과정에서 탈락하는 청소년이 비행행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사실은 거의 상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거 많은 횡단연구들이 경험적 성과들을 통해 지지해 왔다.

근래 범죄학자들은 범죄자의 인생경로를 추적하는 시도를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한 시점에서 관찰된 청소년의 일탈행동 원인을 정적인 변수들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졌고, 점차 범죄자의 인생경로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찾고자 했다. 대부분의 비행청소년들이 갖는 변곡점은 가족, 친구, 그리고 학교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서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료를 통해 학업중단이 비행경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중요 연구문제로 설정한 투고논문은 참으로 반갑다. 사실 “비행->학업중단->재비행”의 경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행경로를 확인하는 경험적 시도는 자료 확보의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시도가 부족했기에 투고논문의 학술적 가치는 매우 높다.

투고문의 제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과연 학업중단이 비행청소년의 재범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인생사건인가? 비행경험 청소년은 학업중단 전후에 직면하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일까? 범죄행위로 유죄를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과 비행경험 청소년과는 실제 범죄성(비행성)에서 다른 차이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투고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자의 결론처럼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들은 비행경험 청소년에 비해 가정환경이 불안정하고 열악할지 모른다. 같은 맥락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은 학업단절마저 겪게 되면 위험요인이 더 커질 것이고, 비행경험 청소년은 여전히 보호요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실제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비행경험 청소년들에 비해 가정적으로 더 열악해서 재범가능성 및 학업단절 가능성이 더 높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투고문에서 비행경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여준다면 토론자의 의문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자아와 정체성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이 혼재되어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역동성에 기초하여 적응유연성을 키워 나간다. 그러나 위기의 청소년이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학업중단은 음주와 흡연, 흥분추구, 조속한 성정체성 등 다른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행성(범죄성)의 정도에 따라 대처방식이 달라져야겠지만, 특히 학업중단이라는 사건이 청소년의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야할 필요성은 명약관화하다. 투고논문에서 이러한 논거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해 주어, 매우 감사한 마음이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경로와 변화양상

인 쇄 2015년 7월 1일

발 행 2015년 7월 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노 혁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휘문인쇄 전화 1661-7576 대표 김점순

※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에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자료집 문의 : 044) 415-2141